



## 口絵 <濟州島>

<2011→ p. 16>

- ① 멀리서 바라본 제주시
- ② 용암으로 쌓은 돌담
- ③ 기상화산군의 일부와 용암류의 해안





④ 삼양동의 촌락

⑤ 동촌락의 돌담





⑥ 민가의 지붕



⑦ 마을의 광장

⑧ 정지목





㉑ 감수천



㉒ 음료수 길어내기

㉓ 용수지 경관





02 삼성혈 입구



03 삼성혈



① 상원성의 관림과 영주산

## 차 례

번역에 즈음하여 .....	12
濟州島의 地域性 素描 .....	21
濟州島의 畜産 .....	46
濟州島 海女 .....	66
濟州島人의 内地(日本) 出稼 .....	86
濟州島의 취락 .....	123
잊을 수 없는 濟州島 .....	155



# 濟州島の地理的研究

〈1930年代の地理・人口・産業・出稼状況等〉

著者 梶田一二

翻譯・出版 濟州市愚堂圖書館

## 번역에 즈음하여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는 著者 마수다·이치지(樹田一二·문학박사)씨가 1930년8월부터 1937년까지 7년간에 걸쳐 본도를 십지 답사하면서 조사한 바를 수록한 것이다. 東京文理科大學地理學教室의 助敎로 있던 저자는 地形學講義를 맡고 있던 東京大學 츠지무라(辻村太郎)교수가 어느날 내보인 5만분의1 濟州島地圖(金寧·城山浦·表菁·濟州·漢拿山·西歸浦·翰林·大靜·飛揚·幕瑟浦의 10대)를 보고 그 地形的特色과 훌륭한 景觀에 魅了되어 濟州島探查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1930년에 잠시 濟州에 들렀다가 33년부터 5년간에 걸쳐 본격적인 답사에 들어갔다. 매해 40일간의 합계 2백여일에 걸친 현장답사를 통해 그는 본도의 地形뿐 아니라 농업·축산·임업·出稼海女·大阪등으로의 도민 移住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통계를 곁들여 集大成했다.

여기 수록된 갖가지 계수나 통계는 그동안 남겨진 직잡은 분량의 본도 관련 기록들 중 가장 深層까지 파고들고 있다. 日本 移住島民의 연령별, 성별, 연대별 수치는 물론 그 당시 耕地面積에 대한 종류별 분류나 牛·馬의 분포상황, 그리고 본도와 大阪을 잇는 海運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는 본도에서 답사하는 동안 다구치(田口禎憲: 재임기간 1931년12월16~35년9월2일)島司를 비롯 各邑面長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수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본도는 1910년 韓日合併된 후 5년만인 1915년부터 島制가 실시되어 초대 도사에 이마무라 도모(今村綱)가 취임했고 해방되는 1945년 8월 오노 도라이치(小野虎市: 재임기간 1943년11~ )가 퇴임하기까지 9명의 일본인이 도사가 역임했다.

역사적으로 겪어야 했던 민족적 아픔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본도의 近代史에서 볼 때 현대적인 행정이 시작된 것은 이 합병시대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그 植民時代의 본도에 관한 자료는 모두 갖춰줘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愚堂圖書館에서는 그런 觀點에서 日帝下 본도에 관한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조그마한 책자가 번역되어 나오게 된 것도 그 一端임을 밝혀 둔다.

1996. 11.

濟州市愚堂圖書館

館長 李 仲 燦

## 本道地方行政名の 變遷

※ 본서에 나타나 있는 1930년대의 行政地名과 現在の 그것을 대조한 것임.

30年代 名稱	現 在
濟州面	濟州市
新左面	朝天邑
舊左面	舊左邑
旌義面	城山邑
東中面	表善面
西中面	南元面
右面	西歸浦市
左面	西歸浦市(中文)
中面	安德面
大靜面	大靜邑
舊右面	翰林·翰京
新右面	涯月邑

年代對照表

西 曆	日 本	西 曆	日 本
1868	明治 1	1953	28
1911	明治44	1954	29
		1955	30
1912	大正 1	1956	31
1913	2	1957	32
1914	3	1958	33
1915	4	1959	34
1916	5	1960	35
1917	6	1961	36
1918	7	1962	37
1919	8	1963	38
1920	9	1964	39
1921	10	1965	40
1922	11	1966	41
1923	12	1967	42
1924	13	1968	43
1925	14	1969	44
1926	昭和 1	1970	45
1927	2	1971	46
1928	3	1972	47
1929	4	1973	48
1930	5	1974	49
1931	6	1975	50
1932	7	1976	51
1933	8	1977	52
1934	9	1978	53
1935	10	1979	54
1936	11	1980	55
1937	12	1981	56
1938	13	1982	57
1939	14	1983	58
1940	15	1984	59
1941	16	1985	60
1942	17	1986	61
1943	18	1987	62
1944	19	1988	63
1945	20	1989	平成 1
1946	21	1990	2
1947	22	1991	3
1948	23	1992	4
1949	24	1993	5
1950	25	1994	6
1951	26	1995	7
1952	27		

## 1. 濟州市의 遠景(사진上)

소나무가 많은 148m 높이의 紗羅峰전망대로부터 바라 본 濟州市. 뛰어난 방파제의 한쪽이 山地川 河口인 濟州港으로, 釜山 연락선은 여기서부터 출항한다. 戰後, 도로의 너비와 시가지의 재개발로 오래된 민가는 차츰 모습을 감췄고,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지고 있다.

## 2. 熔岩을 쌓아올린 돌담(사진中)

濟州道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돌담의 경관. 발가운데에 熔岩의 玄武岩을 쌓아 올린 돌담은 연중 방목되는 가축의 피해를 막기위한 울타리로서, 防風用이기도 하다. 그 높이가 2m이상 되는 것에는,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하기위한 틈이 있어 濟州島만의 독특한 기술이 엿보인다. (道頭洞에서)

## 3. 寄生火山群의 일부와 熔岩流의 海岸(사진下)

濟州市 교외의 경관으로 시가지는 紗羅峰 기슭에서 끝나고 있다. 寄生火山의 꼭대기가 点在해 있고, 바다를 향해 뻗어 나온 곳은, 모두 熔岩의 흐름에 의한 것이며, 그 사이의 灣頭に 聚落이 형성되어 있다. 앞에 있는 계곡 넘어 斜面에 작은 円丘가 밀집해 있는 곳은 공동묘지이다.

## 4. 三陽洞의 聚落

濟州市에서 동쪽으로 약5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약400戶의 三陽洞의 聚落. 해안 가까이에 「甘水泉」이라는 湧水가 있어 聚落이 형성되었다. 또 이 마을은

현재 7代제의 宗家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하안 합석지붕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5. 同聚落의 돌담

聚落안의 골목길은 높이 2~2.5m의 돌담에 둘러 싸여있다. 그것은 집집마다 둘러친 돌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옥을 강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6. 民家の 지붕

民家の 지붕들은 어느 집이나 띠로 이은 형태로, 강풍에 대비해 두꺼운 새끼줄을 四目格子로 얹어서 걸쳐 있다. 濟州島의 獨特한 耐風構造이다.

## 7. 마을 廣場

三陽洞의 聚落은 해안에서 한단 올라간 평지에 있고, 그 중심광장은 장터라고도 일컫어지며, 4일과 9일이 장날. 1개월에 6회, 생활필수품을 주르해서 물물교환도 행하여지는 장이 선다. 사진 오른쪽, 나무들 가운데의 비석 앞에 있는 龜石은 장터의 守護神이다.

## 8. 정자나무

聚落중심의 광장에는 반드시 정자나무(쟁나무)가 있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 마을의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 9. “甘水泉”

三陽洞의 「甘水泉」. 濟州島에는 이같은 湧泉이 해안 가까이에 많아, 聚落이 이루어진다.

## 10. 飲料水 운반

물이 귀한 聚落에는 湧泉池의 물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탱크 로리에 의해 운반된다.

## 11. 샘터의 景觀

湧泉은 주위에 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湧出口에 가까운 곳에는 음료수 採水場,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빨래터, 목욕터 등등으로, 귀중한 물의 이용방법이 예로부터 정해져 있다. 빨래는 발로 밟고 손으로 비비기도 하며,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기도 하는 풍 갖가지 모양이다.

## 12. 三姓穴의 입구

高麗史古記傳의 「三神人從地湧出……云云,이라는 三神을 제사지내는 三姓穴이 濟州市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1km되는 곳에 있다. 사진은 聖地의 안내판과, 돌하루방 석상.

### 13. “三姓穴”

漢驍山の 완만한 산기슭의 소나무나 녹나무 등으로 둘러 싸여진 잔디밭 안에 梁·高·夫의 三神을 상징하는 세개의 台石이 있으며 그 곁에 세개의 구멍 즉 三姓穴이 있다.

### 14. 城邑城의 聚落과 瀘州山

濟州島南部的 南濟州郡 表善面에 있는 城邑城의 聚落. 內陸쪽의 오래된 聚落으로 약 700년전에 孔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 서당(『大成教』라는 문패가 적혀있다)이 남겨져 있다. 밭에는 알뜰의 원료가 되는 고구마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 뒤에 화산은 瀘州山(해발 325m)이다.



## 濟州島의 地域性 素描

### 1

濟州島를 찾는 것을 해아려보니, 이번으로 네번째이다. 처음은 昭和5년(1930)8월, 다나카 게이이치(田中啓爾)선생을 수행하여 總督府의 카토 캉카쿠(加藤 健)씨의 안내로 약 1개월간 전 朝鮮半島를 踏査하고난 歸途, 홀로 木浦로부터 濟州에 건너가 약 1주일간 섬의 남동부의 3분의1을 빼고 약 1백60km의 해안지와 南端의 西歸浦로부터 한복판에 솟아있는 漢拿山(1,950m) 꼭대기를 홀로 北岸의 濟州城內로 내려가 섬을 떠났던 것이다.

이 訪島로써 섬에 한없는 애착을 갖게된 것은 朝鮮半島部의 산촌·어촌·농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南北朝鮮語에 능통한 加藤씨의 안내에 따른 답사의 인상 때문에 半島部와 현저히 다른, 섬이 갖는 많은 地域性을 直感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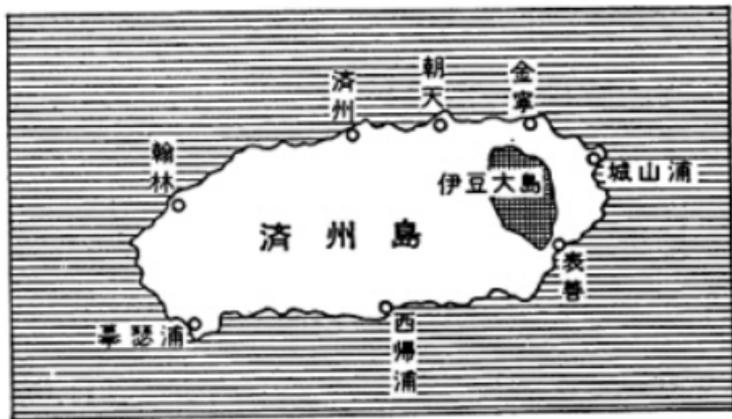
그래서 그 뒷해에도 訪島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昭和7년(1932)의 여름, 滿洲國으로 출장명령을 받아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濟州로 건너가 지난번의 나머지 3분의 1의 해안지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두번 다 업무상 여행의 심심풀이인 단순한 概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세번째로 訪島한 것이 昭和8년(1933)의 8월, 물론 섬이라고는 하나 면적은 1천8백40평방km로 카가와(香川)縣의 면적과 비슷하며 이즈오오시마(伊豆大島)의 20배(圖1-1 참조)에 해당되므로 왕복일수를 합쳐 불과 1개월간의 답사로는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더군다나 여관이 각기 40여km나 떨어져 있고 있다는 것이나 교통기관의 不備 등도 조사에 적잖은 불편을 주었다. 그 결과 펴낸 것이 「濟州島漁女の 地誌學的研究」(大阪地理學會 論文集 第2輯 下, 昭和8년11월)와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的研究」(同 第3輯, 昭和9년7월)의 2編이다. 訪島의 經路가 세번 모두 木浦로부터이며 또 시기도 똑같이 무더운 8월이다. 올해는 「봄의 濟州島」를 企圖했지만 이뤄지지 않

왔고 가을에도 또한 확실하게 예정짓기 어려움으로 할 수 없이 다시 여름을 택한 것이다. 그런만큼 여름에 있어서의 濟州島에 대해서는 우선 중요한 점을 관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地域性의 연구, 地誌의 연구 등은 계절적으로 편향된 조사에서는 안된다. 특히 산업방면의 農業地理, 土地利用의 상태 등은 사계절에 걸쳐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乾期·雨期로 나누어진 지방에서는 적어도 두 계절의 상태를 봐야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필요한 일로, 더우기 수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가 아니면 정확한 論述을 진행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할 수 없이 단기간의 조사로써 마무리 짓는 것도 不可避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大阪으로부터 濟州島로 가는 汽船에 편승하기로 했다. 大阪에는 섬사람들이 매해 수만명씩이나 出稼하고 있기 때문에 大阪~濟州간에는 적통항로가 특별히 있다. 月 6회의 定期船은, 1의 날의 大阪出港이 아마가사키(尼ヶ崎) 汽船會社の「君代丸」, 6의 날의 出港이 朝鮮郵船會社の「京城丸」으로 각각 3회 출항하고 있다. 그래서 매월 1일과 16일에는 가장 많은 出稼者들이 그들과 중순의 월급날 현금을 지니고 歸島한다는 것이다. 그 船便을 끝



라서 8월1일 大阪築港 棧橋의 아가가사키汽船 「第2君代丸」(919L)의 손님이 되었다. 그것은 이번의 訪島 목적이 섬의 농업·교통·인구 등을 테마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송해 주겠다고 멀리 고오베(神戸)로부터 나온 다니자키(谷崎)군이나 동생 부부등과 함께 자동차로 大阪築港 棧橋의 賣票所에 내린 것이 출항 10분전인 하오 3시50분이었다. 내리자마자 입구에서 서성거리던 나에게 「마스다(槇田)선생 이시죠」라고 말을 걸어오는데 약간 놀랐다. 이어 「濟州島共濟會大阪支部의 후지이(藤井)주사님이 지금까지 줄곧 기다리시다가 잘 말씀해달라」시더라고 전한다. 內地語(註=日本國內語)는 능숙했지만 액센트 등으로 해서 기선회사의 조선인 사원임을 알 수 있었다. 수일전 선박관계로 共濟會에 照會했더니 후지이 주사의 이름으로 친절히 회답해 주신 위에 大阪에 도착하면 곧 전화해달라고 변호까지 알려 주었다. 그 사람이 마중 나와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의 감사편지에 8월1일 선박을 골라주도록 託言해 두었던 것이다. 그 공제회 사무소는 히가시나리구 나카미치(東成區中道)에 있어 출항까지는 꽤나 멀다. 더운데 전화해서 페를 꺼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출항 직전에 기선회사의 전화로 인사 나하고 배에 탈 작정이었다. 그러나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주었다가 부득이한 일로 조금전에 돌아갔다는지라 고마움과 미안스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賣票場에는 이젠 손님의 그림자도 없다. 조선인 사무원이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다.

거주 표를 손에 넣고 棧橋로 달려가 가카스로 뛰어오르자, 內地語에 능통한 조선인 보이가 船室로 안내해 준다. 그야말로 출항 직전에 달려든 것이다. 선실은 12円の 上等票(註=特等)로 奮發했지만 무어라고 하기 어려운 넘새가 코를 찌른다. 짐을 내려놓고 甲板 위로 뛰어나갔다. 4時! 배는 조용히 岸壁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환승객이 많이 서 있는 棧橋에도 나를 전송해주는 사람을 빼고는 內地人(註=日本人)같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미 濟州島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 배는 大阪~濟州 直航이다. 손님으로서 섬에 가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濟州人이다. 이 배는 마치 濟州島의 일부가 절단되어 海上을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아마도 朝鮮 안을 잇는 항로의 선박에는 이러한 情景은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육지와 배, 전송받는 사람과 전송하는 사람. 서로 나누는 이별의 인사인듯 난 데없는 고성이나 奇聲, 이런 분위기 속에 서 있는 나도 또한 어느새연가 섬사람이 된 것같이 느껴졌다. 이 소란스러움도 차츰 가라앉고 배 안이 조용해질 즈음에는, 배는 거울과 같이 고요한 해변을 가르며 곧장 하리마나다(播磨灘)를 서쪽으로 향전하고 있었다. 맑게 계인 저녁하늘에 중국·註=廣島등 日本西部地方5縣) 지방은 보라빛으로, 옅은 남빛으로, 그리고 아와지(淡路), 시고쿠(四國)의 산들은 석양을 받아 茶色 또는 주홍색으로 반짝거리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었다.

이 배의 船客 정원은 3백65명이지만 出稼者定員으로서 6백85명까지는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항해의 손님은 5백63명이다. 이 가운데 특등실 손님은 7명, 그 중 겨우 두사람만이 일본인·나와 또 한사람은 울분 고마자와(駒澤) 대학을 졸업한 가바시마(樺島) 學士이다. 처음엔 그마저 濟州島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실로 2對 5백61이었다. 그 밖에 이동경찰관으로 大阪府警察署 思想係의 O씨, 大阪築港水上署의 W씨와 濟州島의 巡査(註=경찰관)가 모두 和服(註=일본 고유의 옷)으로 乘船근무를 하고있다. 배는 직령을 해도 濟州의 山地港에는 나흘만에야 도착한다니 시간거리로는 神戶~大連 사이보다도 멀다.

한편 下等(註=보통선실)의 운임은 大阪으로부터 섬의 上陸地가 되는 열다섯 개의 항구, 어디나 모두 6円인데 식사가 달려있으니 이렇게싼 운임은 日本제일, 아마도 세계 제일일 것이다. 손님은 젊은이가 많아 17~18세로부터 3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상투를 땀아 말쑥리로 찬 冠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나 노파도 있다. 또 사람 미리의 3배나 뿔 듯한 바가지(干瓢, 註=태왁)와 나무를 등갈게 꼬뭇린 테두리에 걸린 網籠(註=망사리) 등을 곁에 두고 젓먹이에게 젓을 물리고 있는 사람등 보기에다 혈색이 좋고 튼튼한 몸매의 젊은 여자들도 여기 셋, 저기 다섯씩 보인다. 그들은 휴대즘이나 햇벌에 그을린 혈색 좋은 튼튼한 몸으로 해서 出稼海女の 귀환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밖에도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젓먹이를 데린 부부의, 가족 모두가 뽕벌이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해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창백한 얼굴의, 女工으로 보이는 처녀와 청년도 있었다. 5백63명의 손님 중 어린이의 무료손님이 80여명이나 된다는 것으로 보아 뽕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찍이 나는

華僑들의 出稼에 관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지만 그때의 모습을 바로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선실 안은 옆으로 드리누울만한 공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통로는 말할 것도 없고 甲板이나 짐짝 위 할 것 없이 빈 자리가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엔 마구 드리누워있는 상태이다. 새벽, 브릿지로부터 내려다본 갑판 위는 대단히 불결해져 있었다.

복동선실은 고물에 가까운 갑판 위에 있었다. 여자 손님은 겨우 한 명으로, 그녀는 20세 뿔뿔말락한 젊은 남자의 수발을 받고 있었다. 그 젊은 남자는 出稼했다가 아내가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중이라고 했다. 부인이 완쾌하면 또 일하러 가겠느냐고 들었더니 다신 안가겠다고 한다. 그는 목수이고 그녀는 紡績工으로 맞벌이를 했었다. 복동 손님은 7명이며 달리 이동경찰관이 셋이 있어 모두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두줄로 자면 팔굽과 팔굽이 스칠 정도로 답답하다. 그래도 다다미 위에서 잘 수 있는 것은 12円을 분발한, 예 패션저(3동선객)의 倍額을 지출한 덕택. 돈의 힘은 부처님만큼이나 빛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맙게 여겨졌다.

배는 뒷날 정오께 석탄을 실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항에 잠시 寄港했다. 가는 길에는 언제나 석탄을 실기 위해 기항하는 것 같았다. 下關에서 섬의 양반 金斗鉉씨가 승선. 이 선실은 함께 11명이 되었다. 내가 「下關으로부터 濟州島까지의 운임은 얼마나 되지요,」하고 물었더니 「12円50錢,」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들은 大阪에서 下關까지 無賃인 외에 50전의 환불이 있어 간밤부터의 세끼니를 그저 대접받은 셈이 된다. 보통선실도 6원50전이라고 한다. 阪~濟間 항로는 그야말로 出稼者들을 위한 特別船賃이란걸 알 수 있다.

이 복동실의 입구로부터 2m쯤 떨어진 고물 댐 끝에 양쪽을 때묻은 두터운 돛과 같은 천으로 막은 어두운 구석이 있다. 그 안에는 주위를 양철관으로 둘러, 棺크기의 상자 두개가 서로 나란히 놓여있다. 그 앞에 線香을 세외 참외와 夏橘을 올리고 그 곁에 삼베로 만든 冠(註=두건)과 脚絆(註=헝겂)을 친 서른살쯤의 남자와 너댓살 위의 남자가 버들고리에 걸터앉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얼른 죽은 사람을 넣은 靈柩란 걸 알아차렸다. 그때부터 나는 시종 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남자들은 식사때마다 취사장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뜻한 밥을 얻어다가 올리고 있었다. 線香의 연기도 끊이는 일이 없었다. 앉아서 조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젊은 남자가 모시고 있는 棺은 그의 장인 것으로 孝慕浦까지, 또 한쪽은 모친의 유해로 西歸浦까지 각각 運遷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부장의 예기로는 항해 때마다 靈柩가 없을 때가 없다. 올 4월엔 일곱개나 되는 영구를 실었었는데 그 운임은 보통 승선요금의 5배라는 것이다.

한편 同乘한 金斗鉉씨의 말에 따르면 喪主의 麻冠은 頭巾이라고 하며 각반은 행경이라고 한다. 부모의 죽음에 즈음해서는 3년간 상복을 입고 근신하며 또 대중이 모이는 집회장소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禮도 한다. 또 服喪에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먼저 죽음으로 죄가 많다고 하여 그 상주는 8개월만 服喪한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늦은 경우에는 3년간 복상한다. 遷骸는 정성껏 土葬, 封墳을 만들고 주위에는 方形으로 돌담을 쌓는다. 그 면적은 보통 1백24平方尺으로하며 3천평방척까지 허용되고 있다. 분묘 주위에는 육지(朝鮮半島部를 섬에서는 보통 육지라고 부른다)에서는 볼 수 없는 돌담이 있다. 이는 放牧牛馬들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매년 8월1일에는 出稼先으로부터 일부리 歸省하여 묘지의 풀을 베고 돌담을 고치며 청소를 해서 망인을 추모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出漁中 익사하여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秋夕을 맞아도 분묘 밑에 유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쓸쓸해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다. 이렇듯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는다해도 경비를 아끼지 않고 고향으로 모시는 것이다. 한편 모서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假埋葬했다가 기회를 얻어 發掘願을 제출한 후에 유해를 모셔온다. ○형사는 언젠가 大阪에서 4년간에 발굴된 유해가 蠶化되어 있는 것을 모시고온 일도 있다고 말한다. 3年喪까지는 매년 命日에 契(朝鮮에서는 상호부조적 자치조직을 말함)의 전원을 초청하여 술이나 떡을 대접한다. 또 契員들도 반드시 弔問을 가는데 그때에는 양초 1본씩을 갖고 가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빗을 내는 한이 있어도 3년 상까지는 이 예법을 어기지 않는다. 잇따라 돌이나 喪이 낫을 때는 破産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해 제사의 풍습을 깊이 하는 그 孝養은 정말로 美點이지만 너무도 형식에 호른다면 오히려 근본정신에 反하는 것이 아닐까. 자손이 풍요로이 번영하여 비로소 조상의 제사도 깊이지 않고, 깊이 조상에 대한 孝養이 되는 것-

여기에 형식에 얽매인 因襲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大阪을 출발해서 사흘째 아침에는 棺을 모시고 있는 남자의 눈두덩이 모두 부어오르고 눈은 침침하여 빛이 없다. 不眠不休의 정성을 알만하다. 배는 순풍과 潮流를 타서 濟州島의 山地港에는 예정보다 수시간 빨리, 사흘째의 오후 10시에 입항하게 되었다. 華彭浦에는 나흘째의 저녁, 西歸浦에는 다섯째의 정오에 입항한다고 한다. 이 사이 두사람의 청년은 상주로서의 봉사를 목적지까지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사흘째의 오후 4시께에는 섬의 동쪽 끝인 城山이 그 특색있는 자태를 나타내고 얼마없어 그 왼쪽 가까이에 해녀로 특히 유명한 牛島가 떠오른다. 모두가 익숙했다. 이상하리만큼 반가운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牛島를 뒤로 하고 細花里 난바다에 이르렀을 때의 右舷 일대에 전개되는 섬의 景觀은, 漢驛山の 동쪽으로 뻗은 그 斜面에 가까스로 傾斜를 알아 볼 수 있는 화산다운 우미한 線, 그 옷자락같이 펼쳐진 아름다운 산 기슭에 용기종기 모인 중대가리와 같은 寄生火山群. 그 일대는 京都大의 나카무라(中村) 교수가 남쪽의 瀧州山에 서서 아름다운 円錐形火山 75개를 헤아렸다고 보고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북쪽 해상에서 더구나 배의 마스트 위에 서서 살피며



그것을 세웠던 것이다. 유명한 에트나화산은 기생화산이 1백개를 헤인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濟州島에 있어서는 全島 거의가 漢拿山과 그 斜面으로 이뤄지고 있어 새까만 玄武岩 熔岩이 해안에까지 이르러 깎아세운듯한 斷崖가 해면을 향해, 어떤 곳은 자연의 흐름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대소, 실로 4백에 가까운 화산이 아름다운 甲型이나 円錐形을 이루어 대부분이 3백m 이하의 지대에서 그 산기슭을 감싸고 있다. 이런 것으로해서 濟州의 화산활동이 왕성했던 시대에는 벌집과 같은 수천의 火口로부터 용암이 흘러 火山彈, 火山礫 등을 분출시켰으리란 것이 상상된다. 그래서 小円錐火山이 많기로는 우리나라(註=韓日合併시대) 제일로, 그 특색있는 정관은 달리 찾아볼 수 없을 만큼 壯觀이다. 또 그 母體라고도 할 수 있는 主峰 漢拿山은 朝鮮 제2의 高峰으로 아스피테(Aspite)형 화산에 속하며 화산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流動性이 풍부한 鹽基性的의 玄武岩岩漿이 다량 흘러내려 만들어진 극히 扁平한 円錐體이다. 그 모양은 마치 샷갯을 덮어놓은 것 같아 円山·円嶼山·頭無山 등의 異名이 있다. 이 화산형태는 獨逸에서는 楯狀火山(Schild Vulkan)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그 형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주위의 경사는 극히 완만하다.

배는 西廻로 15個港에 기항해서 귀환자를 내리고 동시에 渡航者를 태우면서 거의 2晝夜로 섬을 일주, 東端의 城山浦港을 마지막으로 섬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열다섯의 寄港地 중 거룻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항구는 단 하나도 없다. 57만 円을 투입한 섬의 앞 玄關인 본도 제1의 속항, 山地港조차도 거룻배없이 상륙할 수가 없다. 겨울의 북서강풍이 불어다칠 때에는 釜山과 木浦에서 오는 定期船도 着埠할 수가 없어 정월명절에 쓸 물건이 『나나쿠사(七草, 註=陰1월7일의 명절)』를 지내서야 겨우 荷役, 쓸모없게 돼버린 일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나쁠 때는 해안 가까이 올 수 없어 며칠이나 해상을 헤매는 일이 적잖았다는 것이다.

배는 섬의 최초의 寄航港 金寧의 앞바다, 약 1km 해상에 정박, 거룻배가 오는 것을 기다려 80여명의 손님을 하선시키고 짐을 내리기 위해 1시간 반가량 소요했다. 해안에는 띠로 덮은 낮은 民家가 船虫의 등딱지와 같이 밀집하여 聚落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회반죽으로 다진 기와집 2동이, 지도로 봐서 학교와 駐

在所(註=경찰관파출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2등은 땅에 얼드린 것과도 같은 濟州島의 民家에 비해 사뭇 不均衡이다. 해변 모래밭은 흰웃이나 갈색웃을 입은 출영객으로 가득해진다. 여기 호수는 3백73호 중 內地人(일본인) 2戶, 인구 1천7백2명 중 내지인이 6명이다. 취락의 동쪽에는 하얀 천을 널려놓은 것과 같은 일련의 純白의 해안지대가 가로놓여 있다. 이것이 金寧의 貝殼粉末로 이루어진 砂丘帶인데 북서로부터 남동으로 내륙을 향해 길게 펼쳐있는 모양은 해상으로부터가 아니면 뚜렷이 볼 수가 없다. 그 면적은 50여정보에 달하며 그 펼쳐는 방향에 따라 이 지방에 부는 卓越風의 방향을 뚜렷이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모래언덕은 매년 평균 약 40m정도의 속도로 내륙으로 진행,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위치한 취락은 모래언덕 아래 매몰되버린 것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국은 砂防工事に苦心하며 植林에 애쓰고 있다. 또한 이 밖에 도내 2백50km의 해안지대에는 北岸에 月汀里·威德里·挾才里·南岸에는 表善里 등의 훌륭한 貝砂丘의 발달을 보여 그 총면적은 6백정보나 되며 모래언덕의 이동발전의 발향이 어느 것이나 이 지방 卓越風의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배는 金寧 서쪽 15km의 朝天에 다시 입항, 거룻배로 귀환자 수십명을 상륙시키고 渡航者 20여명을 태웠다. 여기 戶數는 내지인 5호, 인구 13, 조선인 6백80호 인구 2천7백45로 옛부터 半島에 있어서의 땅은 國事犯이 流刑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東經 139度45分の 東京으로부터 126度10分の 濟州島에 오면 현저히 저녁이 깊다. 저물어서 얼마 안되는 오후 10시 조금 넘어 드디어 濟州의 首府 濟州邑에 도착했다. 배는 조용히 山地港에 닻을 내렸다. 부두의 빛나는 燈불은 이즈오오시마(伊豆大島)의 모토무라(元村)에 가까와졌을 때의 느낌이었다. 기적을 듣고 해안에 물러드는 흰웃의 도민들 수가 점점 늘어난다. 여기는 섬 가운데서 전통을 갖고있는 유일한 시가지이다. 山地에 축항이 만들어져있어 거룻배로부터 직접 상륙될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지난날엔 거룻배로부터 남자(이 남자를 하루라고 했다)의 어깨에 얹혀 알은 여울을 해안까지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다. 乘船 때, 남게될까 두려워한 손님들은 「하루,에게 특별히 힘줄 주는등 앓다투어 거룻배에 타기도 했기에 부녀자들의 渡航 때의 고생스러움은 각별한 것이었다

는 것이다. 그 위에 표를 무제한으로 팔았기 때문에 「하루, 여기서 외면 당한 손님은 다음 선편 때까지 여러날을 허송해야 했다. 때문에 겨우 한 집밖에 없었던 여관은 언제나 붐볐다고 한다. 그런 일로 해서 島廳사람들의 권유로 해변에 개업한 것이 내가 언제나 묵는 M여관이다. 나는 여기서 상륙했다. 또 한 사람의 내지인 손님 가바시마군도 상륙했다. 또 出稼歸還者の 과반수도 상륙했는데 그들의 화물은 검사관의 엄중한 검사를 받았다. 나는 친절한 노인부부가 경영하는, 그것도 항구를 막바로 눈 아래 내려다 보이는 여관에 자리를 잡았다. 뒷날 아침까지 荷役으로 시간을 보낸 君代丸은 나머지 귀환자와 새로운 30여명의 도합자를 싣고 8시경 아침 햇볕을 쬐며 받으며 출항했다. 저 두개의 靈樞도 상주인 두 젊은이와 함께…….

### 3.

濟州島의 名物은 돌과 여자와 바람이며 이것을 「濟州島의 三多,」라고 한다. 이 섬에 와서 첫번째로 느끼는 것은 돌이 많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라고 할까, 섬 전체에 30~50m 정도의 돌은 보퐁이고 큰 것은 수m 수십m. 그 위에 一大岩盤이 용암이 흐른 그대로의 것도 있다. 火田의 폐허로 황폐화된 이 섬은 標高 6백m 이하는 모두 불태워진 것과도 같이 나무가 거의 없다. 그 때문인지 한층 바위들이 돋보인다. 얼핏 봐서 황량한 사막의 景觀이다. 그러나 그 황량한 경치 속에 사람과 자연의 조화도 드러난다.

이 바람이 센 섬에서는, 특히 겨울쯤엔 집에서 햇간까지 가는 새에도 날릴 것 같은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昭和7년(1932)의 訪島 때도 8월2일부터 대폭풍우로 상륙하자 마자 사흘동안 외출도 못하고 완전히 「풍조립신세,」가 되었다. 여관의 양철지붕은 날라가고 기와지붕으로부터 비가 새어 끝내는 가장 바람이 덜한 곳에 게치던 大邱의 하라(原) 覆審法院長 부처의 방에 京城大學의 하나무라(花村) 교수, 光州의 요시다(吉田) 지방법원장, 그 밖의 일행들과 함께 피난했던 일이 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4일까지에 걸친 태풍으로, 3일 오후2시의 관측으로는 최대풍속 北北東 36.1m의 맹렬한 태풍의 내습을 받았다. 濟州廳檢所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8월3일에도 맹렬한 태풍의 내습으로 비바람이 강해 피

태풍 입었다. 2년 연속해서 같은 날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8월3일이 全南의 厄日이다. 올해도 제재중인 8월7, 8일 이틀동안 맹렬한 태풍의 내습을 받았다. 東京에 살아서 地震에 의한 가옥의 진동에 익숙한 나도, 7일 저녁의 강렬한 진동에는 드디어 한밤중에 다른 방으로 피난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웃의 조선인 가옥을 보니 그야말로 조용했다. 이 豪雨, 이 烈風을 알맞은 휴식이나, 서느러워서 좋다는 정도로 여기고있는 것 같았다. 人家는 아주 낮게하여 벽은 돌아가면서 돌을 쌓아올려 그 안쪽에는 粘土를 바르고 지붕은 띠로 덮여있다. 그리고 그 지붕은 육지의 지붕보다 훨씬 굽고 튼튼한 줄을 四目格子型으로 촘촘히 얹어있다. 이 四目格子는 해안 가까운 바람이 강한 곳일수록 촘촘히, 줄은 굵은 것 같다. 더욱이 이 집의 주위는 보통 1~1.5間 높이의 돌담으로 둘러져 있어 耐風의構造로 되어있다. 더구나 이 石材는 쉽게 주워, 아나 바로 옆을 파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自然界로부터 받은 오랜 시련과 그 환경으로부터 키워져온 문화는, 內地(일본)로부터 직수입한 양철지붕의 木造家屋이나 2층집은 오히려 適應性이 모자라 대폭풍우가 많은 자연적환경에 대해 참담한 광경을 드러내며 또한 토지에 不調和인데 비해, 섬 고유의 민가가 아무리 봐도 어울리는 것같이 느껴졌다. 이 돌담이나 지붕에 애착을, 그리고 아름다움조차 느끼는 것이다.

돌담은 단지 人家뿐이 아니라 밭에도 논에도 있으며 무덤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 때문이라기보다 牛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섬에는 4만9백 24두의 소와 2만2천2백50두(1931년12월말 현재)의 말이 원시적인 연중방목으로 放飼되고 있다. 당국은 畜籍面의 수로 牧牛 6만두, 牧馬 4만5천두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는 全朝鮮 牛馬의 36%強이 되는데 牧馬는 北濟州, 牧牛는 南濟州가 각기 탁월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 특수한 地域性이 발견되는 것이다. 돌담은 牛馬의 침해를 막기위해 주거로부터 논과 밭으로 확장되고 한라산에 돌담이 그물처럼 치어있지만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지껏 計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돌담에 지켜지면서 밭 9만3천9백49.2정보, 논 9백57.1정보 합계 9만4천9백6.3정보의 耕地가 펼쳐져있다. 지형·지질의 관계상 灌溉用水가 귀한 이 섬에서는 논이 겨우 전 경작지의 1%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한라산 南

斜面인 南濟州의 해안지대에 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 쌀의 二期作까지 가능한 高溫지역이 있다. 농가 1호당 평균경지는 28.31反步로 内地의 10.9반보에 비해 무려 2.6배강의 광대한 경지를 갖고 있다. 이들 넓은 경지도 因襲의粗放農法과 부녀자들이 노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자급자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도 인구 약 20만의 常食인 조가 14만9천1백8식, 大粟 26만1천8백90식, 水稻 1만2백34식, 陸稻 1만4천5백76식이 그 주된 식량작물이다. 또 바람과 旱魃에 견디는 작물이 주가 되어 陸地綿 등의 재배도 근년들어 활발히 장려되고 있지만 反當收益率이 높은 綿花는 바람에 약한 때면 예상수익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 밖에 薄荷·除虫菊등 内地로부터의 移入種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自然的制約을 받는 이들 工藝作物에는 도내에 있어서도 適·不適이 있어 그 분포상으로부터 몇개의 副地理的單元을 결정하는 알맞은 요소가 될 것이다.

섬의 主風이 北 또는 北北西風이란 것은 濟州測候所의 大正13年(1924)부터 昭和7年(1932)까지의 9년간의 통계 및 貝砂丘의 이동방향 등에 의해서 관찰된다. 더욱이 재미있게 관찰한 것은 이 無樹木의 山麓地帶에 보기드물게 樺子의 큰 숲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舊左面漢東里의 남방 약8km 지점, 寄生火山 豬岳의 동녘 기슭에 45정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천연기념물 조사를 위해 來島한 京城大의 모리(森)교수를 수행하여 볼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樹齡이 모두가 3백년 이상의 것으로 1933년 12월의 조사에 따르면 나무는 모두 2천7백98본, 모리교수에 의하면 그 수령과 叢生에 있어 세계 유일일 것이라고 한다. 이 3백년 이상의 大木이 모두 南南東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방의 3백년간의 卓越風의 방향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森교수 일행이 숲을 답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島廳의 아리요시(有吉)산업주임의 안내로 豬岳에 올랐다. 그것은 일대에 群立하는 기생화산과 이 부근에 있어서의 경작풍경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 副收穫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눈 아래 전개되는 비자림의 분포상태와 卓越風에 의한 大木의 규칙적인 일정방향에의 傾斜, 그리고 바람 불어오는 쪽의 外側一帶 나무가 中幹 이상이 枯死하여 빛자루를 세운 것과 같이, 그것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현상이 漸減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外側林이 열풍에 대한 방풍의 희생으로서 枯死하고 있는 상태를 확연히 인정할 수 있었다.

## 4.

여자. 섬에는 여자가 많다. 濟州는 「女護島」(註=여성만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中國에서 由來된 想像의 섬) 라고 한다.

섬의 性別 인구구성을 大正14年(1925)과 1930년의 國勢調査 결과에서 살펴보면

	男	女	女性過剩數
1925. 10. 1	95,437명	109,757명	14,320명
1930. 10. 1	96,206	112,111	15,905

즉 남자 1백명에 대해서 여자 1백16명으로 일본의 남자 1백對 여자 99명強(1930)과는 현저히 풀리다. 이것은 위 두번의 조사 때 우연히 여성이 많았던 게 아니라 濟州의 인구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한의 것으로 살펴봐도 해마다 남녀의 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낳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랄 수 있는 出生·死亡에 대한 1922년부터 1931년까지의 10년간 통계는 다음과 같다.

	男	女
出生	100명	93.7명
死亡	100명	82.2명
差減	0명	11.5명

이것은 매년 평균인구 100명에 대해 여자는 11.5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째서 섬의 여성이 남자보다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것일까. 어째서 남자의 出生率이 높고 그 死亡率이 높은가. 그것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醫學者는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모성의 체력이 父性보다 우수한 경우로, 그것은 父性的의 허약에 의해 그 父性이라야 할 남자수의 감소를 두려워해서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理法에서 말한다면 濟州島엔 남자가 적고 여성이 많은 섬이 된다. 따라서 그 결점을 보충하려고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여자의 제격이 남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도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 위에 남자의 사망율이 높은 것은 어업을 주로 하는 島嶼에 있어서는 出漁中の 조난 등도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濟州에서는 농업이 主宗 이 되고 어업에도 여자가 종사하는 裸體潛水漁業이 대부분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 이유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濟州島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현저히 많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리상으로 흥미로운 문제이다.

이와같이 여자가 현저히 많은 것은 濟州島가 갖는 지리적 사정 및 사회적 현상 등 여러 요소의 종합적 결과로, 그 이유의 連斷은 설블리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근년 남녀수의 현저한 較差는 出稼까지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濟州島人的 血統이 절반이 일본인이란 것은 섬에 전해지는 三神人의 아름다운 부부의 神話나 섬사람의 용모·골격 氣質 등이 육지와 현저히 다르고 특히 여성이 지나고있는 용모·풍습 등은 육지의 조선인보다 한층 일본인에게 가깝다고 느껴진다.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島 建置沿革의 項에 「高麗史古記傳」이라고 해서

厥初無人物。三神人從地湧出。今嶺山北麓有穴<sup>(註1)</sup>。曰毛興。是其地也。長日良乙那。次日高乙那。三日夫乙那。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一日見紫泥封木函。浮至東海濱<sup>(註2)</sup>。就而開之。內有石函。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開函有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數種。及日。我是日本國使也。吾王生此三女。云西海中岳。陸神子三人。將欲國開。而無配匹。於是命臣侍三女而來。宜作配。以成大業。使者忽乘雲而去。三人以處次分葬之。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良乙那所居曰第一郡。高乙那所居曰第二郡。夫乙那所居曰第三郡。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以下略)

(註1) 嶺山은 漢拿山 1950m, 섬의 最高峰

(註2) 東海濱이란 현재의 旌義面 温平里, 舊稱 延婚里

이 신화가 어느 시대에 시작해서 어떤 기록에 처음으로 실렸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여간 濟州城外의 남방 1km 남짓에 三姓穴(毛興穴)이라고 불리우는 구멍이 있어 그곳에 三神人을 모시는 三姓祠라는 聖地가 있는 것은 사실로, 섬사람들은 이 일을 굳게 믿고 內地(일본)을 가리켜 「어머니 나라」라고까지 칭하면서 일종의 반가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文中에 「日本國使」라고 되어있는데

역사적사실의 정도는 전문가의 연구를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濟州島의 지리적 위치가 日本·朝鮮 두 地帶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키(壹岐)·츠시마(對馬)의 여러 섬이 日·鮮交流上의 징검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만큼, 크지는 않지만 옛부터 北九州연안 및 고토(五島)의 어민 등이 출어중에 포착하여 섬사람이 되고 또 섬사람과의 사이에 자손을 남겼으리란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림 1-3〉 三姓穴 및 濟州城附近의 地形

8월19일(일요일) 새벽에 아침 이슬의 길을 밟고 三姓祠를 참배하기 위해 정면의 乾始門 앞에 섰다. 三姓祠(그림1-3 참조)는 한라산의 완만한 기슭 돌판에 있어 소나무 숲 너머로 바라다보이는 산은 산뜻하게 아름답고 바로 밑에는 城壁에 둘러싸인 섬의 首邑 濟州의 城廓街가 보이며 그 앞에 펼쳐진 코발트색의 길은 바다로부터는 설새 없이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景勝이 좋은 위치에 있다. 祠堂은 수백년이나 된 老松 2백여그루의 숲 속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기도 하다. 祠堂의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 境內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은 高氏姓으로 이 神人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인데 마침 不在中이라 순박하면서도 고집 세게 보이는 늙은 하인의 안내로, 통역에는 보통학교 훈도인 康寧春군의 신세를 졌다.

本殿은 기와지붕 회반죽으로 단단히 다져 東向으로 세워져 있다. 그 백후에는 다시 돌담으로 둘러싸인 1백50평 정도의 아름다운 잔디에 덮인 지역의 중앙에 간단한 울퉁이 있다. 그 속에 직경 1m 정도의 약간 패인 세계의 구멍이 있다. 그 곁에는 梁·高·夫 三神人을 표시하는 돌이 동쪽부터 年長順으로 놓여 있었다. 여기로부터 다시 북쪽의 神室通門을 통해 本堂에 안내되었다. 本堂은 정면 너비 6間, 간격이 3間으로, 정면을 향해 오른쪽부터 毛羅始祖夫乙那, 毛羅始祖高乙那, 毛羅始祖良乙那의 三神人 위패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南向으로 三神女의 위패라는 것이 늘어서 있었다. 허가를 받고 사진을 찍은 다음 이곳을 떠났다. 乾始門 밖의 奇異한 형태의 石佛(돌하무방)이 우리들을 전송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얼굴생김새, 그뺨이 매우 유사하다고는 하나 그레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濟州人과의 얼굴에서는 이 차이를 거의 잊게 할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광대뼈의 突起가 적다는 것이나 눈이 덜 치켜올라 갔다는 등을 생각해봐도 좀처럼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濟州島의 남자는 육지의 남녀보다 밝고, 특히 여성이 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라고 島廳사람이나 이곳 일본인들은 말한다. 그래서 濟州人은 어느 시대에나 정치적으로 특수한 취급을 받으며 朝鮮半島部의 사람들로부터는 異人種視 당하고 자기를 자신도 또한 육지사람에 대해 외국인과 같은 느낌을 갖고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런 것은 아베(安倍能成)씨도 「耽羅漫筆」에서 지적하고 있다. 「東國輿地勝覽」에도 「俚語難遊先高後低」라고 되어있지만 카토(加藤灌覽)씨도 濟州의 언어는 특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 5

한편 風俗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점에서 육지와 다르다. 오히려 일본에 가까운 것이 있다.

첫째로 濟州島여성은 육지 여성에 비해서 활동적이다. 집 밖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물론, 어업 그 밖의 노동에도 종사한다. 특히 부인의 裸體潛水漁業인 해녀는 섬의 명물이라고도 할만한 것으로, 육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해녀가 濟州에는 海女漁業組合員만으로도 무척 많아 8천8백62명(1932)에 이르러, 전국 해녀의 40%強을 차지하는 상태이다. 조합원 이외의 해녀 어업에 종사하는 해녀까지 합산하면 實數 1만5천여에 이르러 전국 해녀의 54% 남짓을 占有하게 된다. 이들 해녀는 섬 주위 2백40km의 臨海聚落의 여자만이 아니라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중산간 지대의 여자까지도 민첩한 해녀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명물인 해녀는, 섬 전체에 분포되고 있다.

이들 1만5천여의 해녀 가운데는 단순히 도내에서 해녀어업에 종사할뿐 아니라, 농한기에는 對岸의 全羅·慶尙南北道는 물론 江原道로부터 북으로는 물이 차거운 咸鏡北道까지, 西으로는 黃海道까지 진출, 오랫동안 풍한히 해왔던 沿岸漁業權을 濟州島海女組合의 이름으로 획득하는 등 濟州海女の 독립적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으로는 고용계약에 의해, 멀리 東京府를 비롯 치바(千葉), 시즈오카(靜岡), 미에(三重), 도쿠시마(徳島), 고오치9高知), 카고시마(鹿兒島), 나가사키(長崎)의 諸縣에 이르고 있다. 이 제주해녀는 低賃金과 장시간 작업이 인기를 끌어 종전 일본의 「나무통 해녀(註=일본해녀들은 태와 대신에 나무통을 썼기 때문 '樽かつぎ海女'라고 했다), 어장에 진출하여 그 수는 실로 1천6천명, 그 위에 半島部 出稼海女를 합치면 5천78명(1932)명이 된다. 이들 해녀들의 우체국을 통한 送金만도 실로 1백10만円에 이른다. 더구나 그녀들은 11~12세경부터 잠수하는 연습을 쌓아 17~18세에는 제구실을 하는 해녀가 되어 40세를 넘길때까지 일을 계속한다.

해녀의 操業은 노련한 자를 앞세워 干潮를 따라 일에 나가, 滿潮를 타고 돌아온다. 그 세 때는 쓰지 않고 몸과 어획물을 담은 망사리 1개를 바가지(태와)의 부표에 의지하여 4~8발(1발은 약 1.5~1.8m)의 水深을 약 1분간 단숨에 잠수하여 일하는 것이다.

또 어업에 관한 것으로 아주 원시적인 어선이 있다. 그것은 일본에서 搬入한 삼나무의 통나무, 길이 2間半쯤의 것 10여본을 짜맞춰, 그 위에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난간을 가로세로 걸친 멧목(註=태우)이다. 그 어선에 몇사람이 타서 바다로 나가 뜰망을 내려 자리를 잡는 것이다. 예전엔 濟州에 풍부했던 濟州전나무를 짜서 배를 만들었지만 벌채가 금지된 오늘날엔 搬入杉木의 통

나무로 바뀌고 있다. 또한 1933년말 현재의 몇목수는 濟州邑 55, 新右面(註= 涯月) 70, 舊右面(翰林) 28, 左面(中文) 18, 右面(西歸) 15, 西中面(南元) 24, 旌義面(城山) 70, 舊左面 70, 新左面(朝天) 50, 계 4백척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여자는 육지 여자와 같이 머리에 물건을 이지 않는다. 육지 여자는 물동이를 머리에 얹으며, 그 밖에 液體固體를 가리지 않고 커다란 짐까지도 머리 위에 얹어서 길을 간다. 이 모습은 육지에서와 다른 모습이지만 제주도 여자는 결코 머리에 물건을 이지 않는다. 물동이를 물을 나를 때는 1斗들이 정도의 입이 작은 허벅을 바구니(물구덕)에 담아 그것을 목색과 같이 짊어진다. 그 바구니 밑바닥에는 작은 대밭이 붙어있어 땅에 내려놓고 설 때쯤에 허벅이 안정되어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어있다. 이 짐승은 돌맹이 많은 비탈길을 날라야하고 더구나 물이 귀한 섬에서 상당히 멀리 운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방법일 것이다. 물림 없이 一地域性이다. 또 바구니가 있는 것은 기후가 따뜻한, 대가 풍부한 지역이란 것도 외면할 수 없다. 이와같이 濟州島에 와서 부인이 물 깃는 모습을 보면 섬사람인가, 육지에서 온 사람인가, 곧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가벼운 것은 바구니에 넣어 거드랑이에 끼고 나른다. 이것도 육지에선 볼 수 없다. 길을 걸을 경우에도 대개 바구니를 거드랑이에 끼고 다니며,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체면치레로 갖고 다닌다. 마치 모던걸의 핸드백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부인의 옷차림이다. 조선인은 白衣族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하얀옷을 입는 것이 습관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색옷, 특히 감물을 드린 赤褐色의 것(註=갈옷)이 많이 쓰인다. 그것은 흰 베옷에 비해 3배의 耐久力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복과 平常服裝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는 日本式이다. 또 바느질에 있어서도 육지에서는 바늘을 안쪽으로 향해 사용하지만, 섬에서는 일본과 같이 運針, 바느질하는 것이 보통이며 더구나 그 솜씨가 좋기로는 朝鮮 제일이라고 말해진다. 어린이 엮는 법도, 육지부인은 일본과 틀린 독특한 방식인데 이 점도 섬의 부인들은 일본인과 꼭 같은 방법을 취한다.

이상과 같이 濟州에는 일본계풍에 속하는 갖가지 文化系統이 엿보이지만 한편 蒙古계풍에 속하는 문화형태가 있는 것도 의문할 수가 없다. 그 하나는 산간 지대의 火田民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복장이다. 그것은 머리에 개털로 만든 이상한 모양의 두건을 쓰고 개털外套를 입고 있다. 모자는 쇠털을 풀로 고정시킨, 차양이 넓은, 푸터운 것으로, 아주 가벼운 것이지만 환한조차 판공되지 않을 정도로 強韌하다는 것이다. 보기에도 야만스러운 土人 같은 風貌이지만 접해보면 그야말로 유순하고 소박한 野人이다. 그런데 도리이(島居)박사는 이 복장과 調製法은 蒙古系라고 말하고 있다.

流水가 귀한 濟州에 있어서는 水力을 動力化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主峰 한라산을 중심으로하여 사방으로 뻗치는 放射型溪谷도 보기드물게 河口에서는 流水를 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瀾濁流이다. 실로 물의 洶擊이 없는 섬이다. 일본의 산간지방이나 朝鮮에서도 湖南平野지방에서는 溪流에 水車를 걸어 그 동력을 製粉이나 精穀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제주에는 단 하나의 水車도 없다. 그래서 정곡용으로 일종 독특한 馬力에 의해 짙는 들방아(註= 말방아)가 있다. 蒙古땅지에서 볼 수 있는 방아와 비슷한 것이다. 들방아는 직경 2m남짓, 두께 70~80cm의 큰 것이다. 石材는 섬에 풍부한 玄武岩이 이용되고 10여호가 공동으로 가장 편리한 위치에 방아를 마련, 이를 순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또 제주도는 기후적으로 혜택을 받아, 대밭이 가는 곳마다 있는 가하면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밀감의 생산, 쌀의 2期作, 습부기의 群生을 볼 수 있다.

온돌은 육지만큼 越冬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돌의 설비는 있다. 그러나 그 構造가 다소 달라져 있다. 특히 육지에서는 취사용의 불을 온돌에 유효하게 이용하는 구조이지만 섬에서는 취사장은 별도로, 온돌의 아궁이가 반드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료로서 말똥을 이용하고 있는데 섬에는 약 10만두의 牛馬가 방목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다. 여름에 여행하면 농가의 앞마당에 모아진 말똥을 말리기 위해 널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장터에서는 이것을 상품으로서 거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말뚝을 사용한 온돌은 保溫이 잘 되며 온도가 알맞기 때문에 好評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도 또 나무가 귀한 蒙古와 말뚝, 牛馬가 많은 제주도의 말뚝과 연료라고 하는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섬사람의 常食인 조(粟)의 재배에 있어서도 이 지방 獨自의 鑛厰農法(註=踏厰法)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는 우리나라(註=일본과 한국) 유일의 乾燥農業지역으로, 조 파종후 밭에 10수마리 내리 수십마리의 말을 몰아놓아 새싹의 發芽를 위한 保水의 鑛厰(踏厰)을 하는 것이다. 한편 방법은 다르지만 北滿洲 평야 및 蒙古지방에도 비슷한 건조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이 언제 어디로부터 傳해졌는가, 또는 섬사람 獨自의 創法인가는 별도로 해서 이상과 같이 大陸系文化와의 類型이 인정된다. 더우기 제주도가 元寇(註=1274년에 蒙古軍이 일본에 쳐들어간 일)의 일본來襲 때 寄港地가 되었다든지, 가끔 정치적으로 대륙의 지배하에 속했던 과거를 갖고있는 일풍으로 해서, 그때 移入된 것 중에서 자연에 적합한 것이 오늘날까지 保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흥미 깊게 관찰했다. 이상의 여러 점이 일본과 半島部, 그리고 대륙과의 3지역 사이에 介在하는 漸移性的의 나타남이다.

## 7

섬 아가씨가 파라솔을 지니기 시작했다. 또 겨드랑이에 지녔던 바구니가 핸드백으로 변해간다. 面마다 두부집이 생겼다. 조선초신이 고무신으로 바뀌었다. 이 무슨 변화냐고 섬의 古老들은 말한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매년 2만명 가까운 섬사람들이 大阪경유로 일본에 돈벌이 간다. 그 渡航상황을 大正11年(1922)부터 昭和8年(1933)까지의 12년간 통계에 따르면, 1922년에는 겨우 3천5백2명이었던 게 漸增이라기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1933년에는 2만9천2백8명으로 8倍強이 되었다. 일본 在住者는 실로 4만7천2백72명에 이르러 日本出稼朝鮮人 총인구의 33%남짓에 이르고 있다. 이래서 昭和9年4월말 현재로 남자 2만9천5백62명, 여자 2만6백99명, 합계 5만2백61명으로 그중 大阪在住者는 3만7천9백38명에 이르러 전체의 75%強을 점유하고 있다. 그 밖에 교오트(京

郡) 2천2백8, 효오고(兵庫) 2천63, 東京 1천7백1, 와카야마(和歌山) 1천5백83 명의 순위로, 미야자키(宮崎), 뭇토리(鳥取), 이시카와(石川), 도야마(富山), 군마(群馬), 도치기(栃木), 이바라기(茨城), 야마가타(山形), 이와테(岩手), 오키나와(沖縄)의 10縣을 제외한 33縣에서 북은 홋카이도(北海道), 가라후토(樺太=사하린), 남으로는 台灣, 南洋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분포는 경키(近畿)에 가장 많고 이어 北九州, 東海道, 山陽道の 순위로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濟州島人的 이동경로는 山陽, 四國방면으로는 물론 九州로 옮기는 사람조차도 大阪을 경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阪~濟直通으로 운임이 싼 기선이 있기 때문이다.

濟州島人的 日本出稼는 明治40년(1907) 전후부터 발달하고 있다. 당시 제주로 가는 일본 通漁者が 있어, 그 어선, 어구 漁法 등이 대단히 우수한 것을 본 섬사람들이 漁法見習을 위해 어선에 승선, 자발적으로 渡航한 것인데, 그 수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 안되는 것이었다.

大正3년(1914) 歐州大戰의 발발과 함께 大阪방면으로부터의 職工모집을 계기로 被動的인 권유로 出稼가 이루어졌다. 잇따라 大正7~8년부터의 日本工業界의 振興과 함께 노동자의 수요가 격증하여 北九州의 탄광 및 공업지대, 더우기 阪神공업지대에 출가하는 渡航者가 차츰 증가해 갔다. 더군다나 阪神지방에 현저한 도항자의 증가를 보게되었다. 이에 이르러 大正11년 아가가사키(尼崎)기선회사는 大阪~濟州島間的 직통항로를 열고 이어 同13년 朝鮮郵船株式會社도 동 항로를 경영하기에 이르러 定期就航, 항해때마다 만원의 성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昭和4년(1929) 1월에 이르러 濟州출신의 大阪在任 高一派(註=高順欽)가 움직이는 企業同盟인 組合이 출현, 儲船을 운항하다가 동년4월에 카코시마(鹿兒島) 郵船과 提携했다. 이 때문에 三巴戰의 경쟁이 되어 10円 전후였던 阪~濟間 운임은 드디어 3円까지 덩징, 치열한 승객쟁탈전을 벌였다. 그 위에 昭和5년 11월 섬출신으로 大阪在任의 과익분자들이 東亞通航組合을 설립하여 儲船인 「후시기마루(伏木丸) : 1천3백t을 취항시키는 등으로 白熱의 경쟁을 연출했다. 이러한 일로 해서 昭和6년3월 伏木丸은 운항정지가 되고 前記 3社는 운임을 6円50錢으로 협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東亞通航組合 간부가 大阪에서 과익운동의 前衛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

의 治安上 要注意로 단정, 당국이 소화7년10월 이후 엄중히 단속하고 탄압한 것과 재정정책의 공지에 물러 소화8년12월1일부터 운항을 중지했다. 그러나 간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策動中으로 그 결과에 예민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이래서 伏木丸 慶航에 의해 현재는 朝鮮郵船의 京城丸(1천39t), 尼崎汽船會社の「기미가요마루(君代丸, 9백19t),」의 두 선박이 운임도 8Fy, 16Fy(昭和9년8월15일까지는 6Fy, 12Fy)으로 협정하여 출항일도 前者는 6의 날, 후자는 1의 날에, 大阪부터 교대로 매일 3회씩 취항하고 있다. 또한 濟州로 갈 때는 석탄을 싣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에 기항하지만 돌아올 때는 直航이다. 따라서 섬의 出稼者들은 우선 大阪에 들어갔다 다음으로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大阪을 중심으로한 京阪神의 땅(註=京都·大阪·神戸)은 일본 工業의 一大核心이기 때문에 많은 제주출신 出稼노동자가 소화되게 되는 것이다. 출가노동자의 연령은 昭和9년(1934) 4월현재의 조사에 따르면 15~20세 7천7백28명, 21~25세 1만2백6, 26~30세 9천2백44, 31~35세 6천9백23, 36~40세 4천7백83명으로, 15~40세의 가장 팔력있는 청장년 합계가 3만8천8백84명에 이르러 出稼總數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직업별 인구는, 35업종 기타 중에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紡績工 6천6백33, 고무工 5천9백64, 鐵工 3천9백91, 유리工 2천9백27, 자유노동 3천2백63명으로, 특히 여자의 특색은 방적공, 고무공, 재봉공 등이며 해녀는 그 중에도 가장 특색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땅은 肥沃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耕地는 9만4천9백6町步, 농가 1호당 평균경지는 28.31反步로 일본의 2.6倍強의 넓은 경지를 갖고 있으며 그 위에 全朝鮮 제일의 양호한 氣候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농업은 풍요로와 섬 전체로는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궁핍한 사람도 적고 또 거지 같은 것도 볼 수 없다. 섬 전체가 유복한 생활을 하며 섬사람 본래의 생활경도에서 보면 아직 많은 인구 수용의 여지를 남겨있어 결코 人口飽和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出稼가 많다는 배경에는 被動的으로 誘導되어 好況時代에 출가하고 이로써 얻은 파격적인 소득과 출가에 의한 보다 나은 생활, 귀환자들의 도회지생활에 대한 예찬, 또 한편으로는 기선회사들의 경쟁에 의한, 경제를 무시한 엄청난 선박운임과 승선하기만 하면 반드시 노동자

의 大需要가 있는 大阪港에 상륙할 수 있는, 渡航의 容易性이 부재될 하고 있다.

그 위에 濟州島人은 본디가 勤儉簡素한데다 “濟州島의 朝鮮人은 결코 노동쟁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모토로해서 出稼地에 있어서의 信用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섬에 出稼者를 위한 共濟會를 만들어 일본도항자의 소개, 숙박소·주거의 편의 앞선, 근점저축의 장려, 위생사상의 보급등에 노력, 大阪府東成區의 나카미치(中道)에 그 출장소를 마련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오늘의 성황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共濟會의 조합원이 되려면 섬을 나갈 때 1圓의 회비를 납부하면 되는데 조합원 이외는 일절 渡航을 허가하지 않기로 되어있다. 섬으로부터 出稼하는 자는 ①民籍謄本 ②出稼許可證 ③濟州島共濟組合員證 ④準備金の 네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번째의 민적등본은 수속만 밟으면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두번째의 출가미인허가증은 일본에서의 생활방도만 확실하면 즉각 교부된다. 제3의 회원증은 1인당 1圓을 납부하면 된다. 제4의 준비금은 1인 10圓 내지 15圓이 필요한데 이 검사는 오늘날에는 거의 행하지 않고 있다. 소지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제한이 없다. 또 出稼移民許可證은 濟州警察의 본서 외에 열다섯의 分署에서 고시된 일정한 曜日에 교부키로 되어있다. 이 허가증 交付日인 금요일에는 渡航許可證을 얻기 위해 물려드는 인원수가 대단하여,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다.

渡航의 盛況期는 섬의 농어업의 繁境期인 1~4월의 4개월이다. 1933년도는 3월의 도항자가 5천6백28명에 이르렀다가 5~7월에는 감소하여 겨우 2천9백74명에 이르고 있다. 3월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이들 1933년도 출가자들의 우편에 의한 송금액만도 86만圓에 이르고 있다. 가장 액수가 많았던 1928년에는 1백30만圓이나 되는데 이 돈은 거의가 價格表記로 現送하는 것으로, 직접 소지하고 돌아간 금액을 합산한다면 倍額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金融組合長, 郵便所長 등의 말에 따르면 섬의 통화의 90%까지가 일본지폐(朝鮮의 지폐로는 조선은행의 兌換券)가 유통하고 있다. 京城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보통 가게에서는 1圓이나 되는 일본지폐 동치돈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섬에서는 어디에 가도 손이 뻐어질듯한 새 일본지폐가 눈에

된다. 심사자들은 오랜 관습으로서 현금은 거의 銀行같은 데에 예금하지 않고 단지에 넣어서 보관하든지, 자기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맨다는 것이다. 出稼移民이 심에 미치는 경제적영향은 이렇듯 큰 것으로 이에 수반하는 심의 노동력 부족, 田圃의 황폐 등 많은 폐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하기로 하겠다.

이번 필자가 訪島한 8월은 出稼移動期에서 보면 아주 한산한 달이긴 하지만 秋夕 지낼 조(粟)의 除草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귀환자는 매년 상당수에 이른다. 訪島때 사흘 밤낮을 歸還出稼者들과 침식을 함께 한 것은 濟州人을 보다 잘 알고 또한 출가자들의 생활을 살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脫稿에 즈음하여 못 다한 점을 사과함과 더불어 訪島 때마다 연구에 필요한 여러 자료제공 등 갖가지 편의를 주신 대구치(田口)島司, 미우라(三浦)내무주임, 다테노(立野)기사, 다치바나(立花)·아리요시(有吉)산업주임, 金根善씨, 마수다(掛田義美)씨, 이케다(池田)보통학교 교장, 야마다(山田)·사토(佐藤)두 부장, 수기모토(杉本)순사부장, 崔炳默씨 그 밖에 各邑面官·民 여러분께 謝意를 표한다.

(昭和9년9월2일)

## 濟州島의 畜産

濟州島는 조선반도의 南西端, 木浦로부터 1백42km 남쪽 해상에 가로놓여 있는 一大火山島이다. 섬은 동서방향을 長軸으로 하는 타원형으로, 동서 80km, 남북 40km, 주위 2백km 남짓의 海岸線을 갖는 조선 제1의 큰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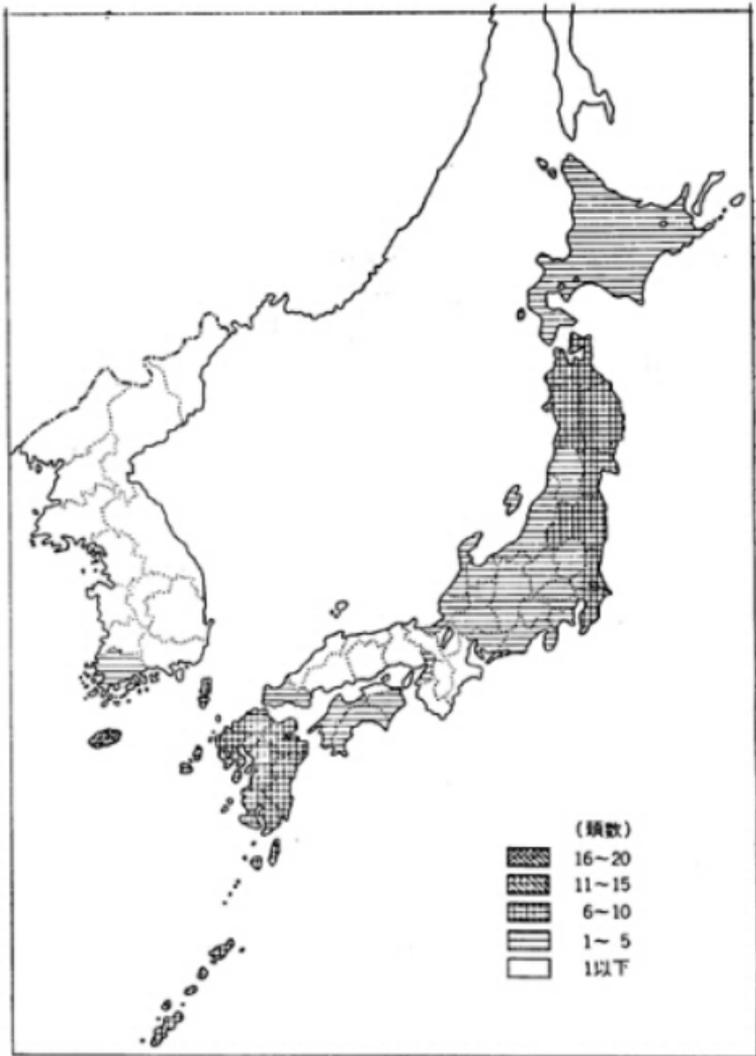
本島는 행정상 濟州·新右(莊月)·舊右(翰林)·新左(朝天)·舊左·右(西歸)·左(中文)·中(安德)·大靜·西中(南元)·東中(表善) 및 旌義(城山)의 12面을 포괄하여 島制를 실시, 島司가 관할하는 자연적인 一地理的單元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제주도에도 있어서의 畜産, 특히 소·말·꿀벌 등에 대해서 섬의 위치·지형·지질·기후등의 자연지리적 諸因子 및 人文地理的 여러 요소의 종합성의 영향에 의해 어떠한 地域性을 本島에 招來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註/꿀벌도 편의상 畜産에 포함해서 취급하기로 했다. 또한 黃豚·黃鷄·黃蠶도 일괄해서 本論을 구성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소·말·꿀벌에 대해서 論하고 그 밖은 割愛해서 다음 기회에 논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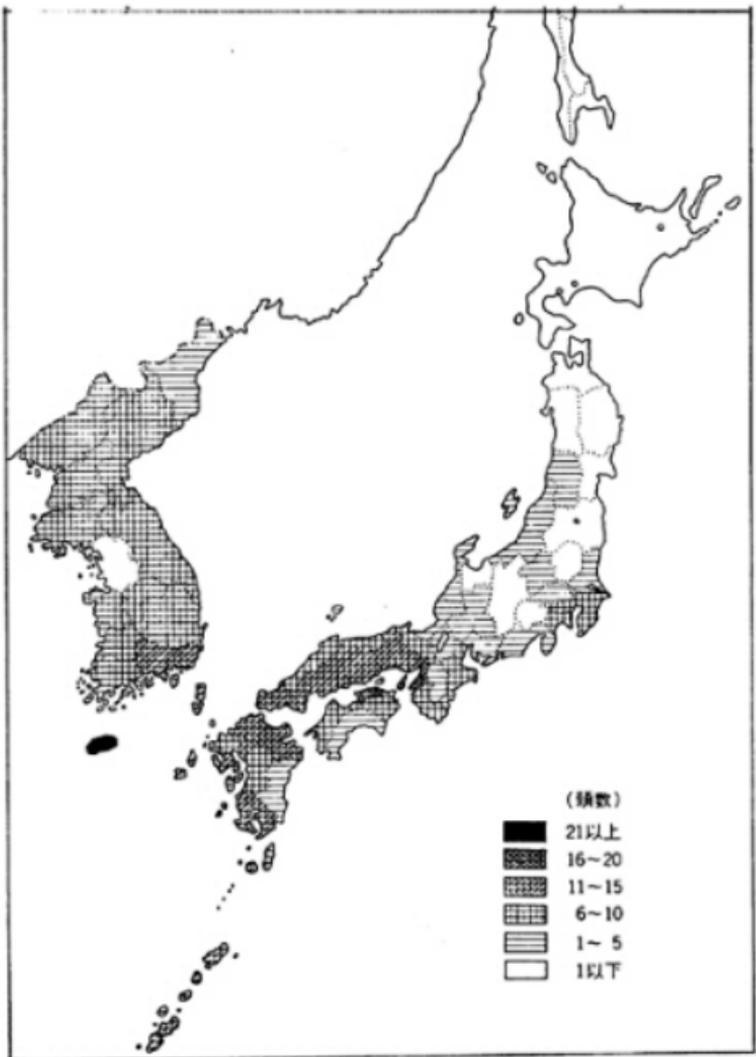
### 統計上에 나타난 濟州島의 牧牛·牧馬에 있어서의 地域性

濟州島의 畜産上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51회帝國統計年鑑·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 昭和5년<1930>현재)로부터 道府縣別 소·말의 統計를 갖고 그림1-4의 全國에 있어서의 1930년의 道府縣別 말의 頭數密度圖 및 그림1-5 소의 頭數密度圖를 작성했다.

그림1-4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朝鮮半島部의 말의 密度가 가장 적다는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것은 추우고구(中國)지방 및 킵기(近畿)지방으로, 동북지방의 야마가타(山形)縣을 제외한 各縣, 관동지방의 이바라기(茨城)·치바(千葉) 및 큐슈(九州)의 各縣은 비교적 많은 제3계급의 密度區를 이루고 오



◁ 그림 1-4 ▷ 道府縣別 1km<sup>2</sup>當 鹿의 密度 (昭和5年)



〈그림 1-5〉 道府縣別 1km<sup>2</sup>當 소의 密度

키나와(沖繩)현은 15.9頭의 최대밀도를 지니, 제1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오키나와에 이어 11.8頭로 전국 제2의 稠密地域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朝鮮半島部가 最稀疎地域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저한 對照가 된다.

그림1-5의 소의 密度圖는 前者와 같은 間隔比率로써 구분하고 그 위에 上位1階級을 더하여 6계급으로 구분했다. 소와 말의 密度圖가 현저히 다른 점은 말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稀疎지역에 속하는 朝鮮半島부가 소의 密度에 있어서는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全域의 거리가 等密度의 제3계급에 속하는 비교적 高密度의 分布區를 이루고 있다. 또 北海道, 東北의 各縣이 희박한 제5계급의 稀疎지역을 이루어 말의 경우에 稀疎지역에 속한 中國·近畿지방에 많다. 특히 中國·四國·九州의 讃岐토나이카이(瀬戸内海) 各縣이 11~15두로 제2계급의 조밀지역을 이루어九州지방은 소·말 모두가 밀도가 대체적으로 큰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소의 밀도는 22.7두로 절대 최대의 密度區가 되어 있다.

이상은 物에 관한 통계적사실로, 단순히 物에만 觀點을 둘 때에는 말은 전국 제2위, 소는 제1의 밀도를 지니는 셈이 되어 朝鮮半島부에도 内地(일본)에도 볼 수 없는 조밀지역을 이루어, 따라서 牛馬 모두가 탁월한 지역으로서 畜産上 특색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濟州島의 牧牛·牧馬의 分布

### 1. 소의 分布

제주도에 있어서의 소의 두수는 표1-1과 같이 4만9백24두(숫소 1만9천7백13, 암소 2만1천2백11두로 숫소에 비해 암소가 현저히 많다)로 전 조선 牛의 30%強에 해당된다. 소의 분포(표1-1, 그림1-6 참조)는 보편적으로 全島에 보급되고 있지만 굳이 분포상의 疎密을 찾는다면 (1)南濟州中央部(右面·左面·西中面) (2)동부지역(旌義·舊左面), (3)서부지역(舊右面·大靜面)에 많고 (4)北濟州중앙부에 적다.

그 중에서도 최대밀도를 갖는 것은 南濟州의 右面이 1평방km에 34두, 이어 西中面이 30두, 旌義面 28두, 大靜面 27.5두, 舊右面 27두, 舊左面 26.5두의 순위

〈表1-1〉 濟州島에 있어서의 소·말의 飼育戶數와 그 比率, 頭數, 密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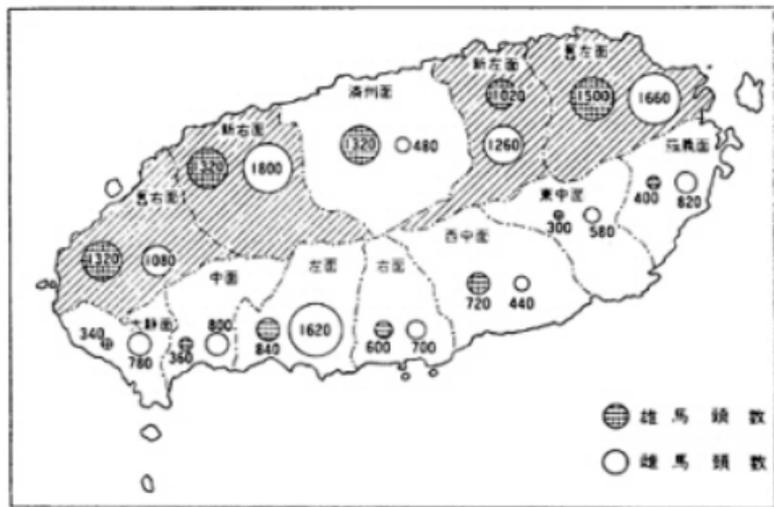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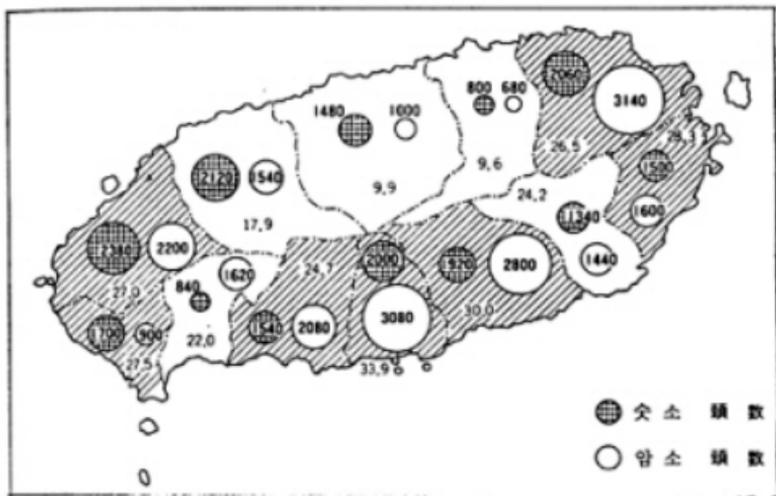
(昭和5年12月末現在)

面	面積 (ha)	馬				牛			
		飼育戶數	農家 100 戶에 對한 飼育戶數	頭 數	1ha當 密度	飼育戶數	農家 100 戶에 對한 飼育戶數	頭 數	1ha當 密度
濟州	250.4	1,226	20	1,813	7.3	2,033	34	2,485	9.9
新右	204.2	1,504	35	3,127	15.3	2,480	57	3,658	17.9
舊右	164.1	973	14	2,422	14.7	3,257	47	4,434	27.0
新左	154.0	1,035	35	2,373	15.4	947	32	1,467	9.6
舊左	195.0	229	6	3,395	17.4	1,642	40	5,182	26.5
右	140.4	742	26	1,299	9.3	1,752	51	4,748	33.9
左	145.3	726	35	1,667	11.5	1,036	49	3,598	24.7
中	106.0	288	17	1,150	10.9	1,341	80	2,321	22.0
大靜	88.0	385	15	776	8.8	1,699	67	2,424	27.5
西中	189.0	511	25	2,155	11.4	1,231	58	4,705	30.0
東中	136.2	317	22	868	6.4	1,174	82	2,777	24.2
旌義	109.7	358	15	1,205	10.9	1,140	48	3,115	28.3
合 計	1,886.3	8,294	21	22,250	11.8	19,732	50	40,924	21.7

이며 最小密度區는 北濟州의 舊右面 9.6두, 濟州面 9.9두, 그리고 新右·東中의 두面은 모두 본도의 평균밀도 이하이다. 농가호수 1백호에 대한 소위 飼育戶數比率은 평균 50, 최고비율은 南濟州東中面の 82, 中面の 80, 大靜面の 67, 西中面の 58, 右面の 51, 左面の 49 程度으로, 南濟州지역이 北濟州지역에 비해 사육호수비율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크다.

(1) 南濟州中央部

牧牛에 있어서 최대밀도와 사육호수의 최고비율과를 갖는 이 지역중, 특히 그 중앙에 위치하는 右面이 가장 뚜렷하다. 右面은 한라산의 南斜面 중앙에 위치하여 標高 1,950m의 山頂部로부터 0m의 해안지대까지 내려간, 띠모양의 지대로 도내에서도 山頂부터 해안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지역으로 겨우 15km, 따라서 傾斜度는 비교적 크다.



〈그림 1-7〉 濟州島에 있어서의 말 生産分布(面別) (昭和6年12月末現在)

이 지역은 배후에 한라산의 最高部를 끼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4월경까지 탁월한 偏北의 찬바람을 막아, 도내는 물론 全朝鮮中<sup>2)</sup> 가장 溫暖地區<sup>3)</sup>를 이뤄 후쿠이(福井)學士의 En<sub>2</sub> 아리아케(有明) 지구에 속하며 해양성기후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지역이 되고 있다.

바뀌 말하면 北濟州의 1월의 평균기온 5.2°C에 대해 右面의 西歸浦에서는 항상 2~4°C정도 높아 최저가 영하로 내리는 일이 없다. 다구치(田口)島司의 말에 따르면 「해안지대는 無結霜으로 잡초는 寒中에도 아직 푸르름을 나타내며 1월엔 완두콩, 油菜의 開花를 보게되며 일본의 同緯度지역에서는 3월말에 꽃을 피우는 川原榮胡(註=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가 滿開, 하는 파스함으로 해서 연중 방목이나 粗放的의 牧畜에는 온난한 해양성기후<sup>4)</sup>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도내에는 가장 결빙하기 쉬운 牛馬의 음묘수가 비교적 풍부하다. 또 濶外川, 孝敦川 상류의 산간지대 標高 6백m의 높은 지대에 폭포가 걸려있고 각처에 湧泉, 溜水가 있다. 또 산꼭대기의 火口안에는 깨끗한 물이 고인 火口湖 白鹿潭이 있어 실제로 踏査 때 소 31두, 말 9두가 호반에 내려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섬의 해안지대를 빼고는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이면서도 前述한 바와같이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목초가 풍부하다는 것 등이 濟州지역의 牧牛의 밀도를 크게 하고 있다. 인접하는 左面·西中面도 위치·기후·음묘수 사정상 동일한 요소가 있어 右面과 더불어 南濟州중앙부의 稠密地域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다.

## (2) 東部地域

제2의 稠密區에 속하는 東部지역의 旌義·舊左面은 어느 것이나 高麗朝<sup>5)</sup>에 본도 최초의 官設牛牧野으로서 川尾場·黃黎場 등이 설정된 지역으로 일찍부터 목장에 好適한 지역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 지역의 혜택을 받은 기후를 구성하는 자연지리적 여의 조건은 南濟州남부의 지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漢拿山頂으로부터 동쪽해안까지 39km로 2배 이상의 너비를 갖는다. 따라서 경사는 가장 완만하고 熔岩流 및 火山噴出物質로 이뤄지는 물판의 緩傾斜部에 웅대한 原野를 점유하는 지역으로, 전도 제1의 방목지 면적을 갖고 있다. 특히 舊左面 서부의 해안에 이르는 동서 10km, 남북 10km남짓의 삼각형의 광대한 熔岩原은 도내의 표고

2백m 이하의 지역에서는 보기드문 牧野이다.

더구나 旌義面の 北境에는 완만한 경사의 一大原野가 있어 여기에 狗岳 3백53m, 飛雉山 3백49m 大石額岳·民岳 3백74m, 亞父岳 3백10m, 高岳·左甫岳 3백51m, 瀛州山 3백25m, 龍臥岳·大王山 1백45m, 斗山 1백45m 등을 비롯 무수한 토로이데型(Tholoide Type) 기생 화산이 있다. 전도에 3백40남짓의 기생 화산이 있지만 이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나카무라(中村)學士는 瀛州山에 올라 아름다운 圓錐山 75개를 헤아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국부적으로 겨울의 偏北卓越風을 막는 防風丘陵이 있어 겨울의 방목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 舊右面の 목야가 帶狀密集의으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大靜面은 소단위 목장의 집합으로 이뤄지는 분포형태를 갖는 등 각자가 특색을 지니고 있다.

### (3) 西部地域

이 지역의 斜面의 위치는 동부지역과 전혀 달리 북서 및 남서로 傾斜하여 비교적 북풍이 부는 지역이지만 主峰 한라산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다는 점은 동부지역에 버금 간다. 또 舊右面에는 동부지역의 舊左面보다도 나은 광대한 목야가 道乙洞을 중심으로 해서 표고 1백m로부터 3백m의 낮은 곳에 緩傾斜로 펼쳐져 한쪽에선 大正15년(1926년) 面內 覺浦里에 다케나카(竹中) 봉조림공장이 창설되어 畜牛의 경제적인 판로가 자극된 것도 최근의 축우 증가와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 (4) 北濟州中央

이 지역에 牧牛가 적은 것은 연중 방목을 주세로 하는 粗放牧畜의 관계상, 偏北卓越風에 직면해서 겨울의 방목은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牛舍를 필요로 하는 기후적 제약이 있다. 또 半島部에 面하고 있어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 섬속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큰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도 높고, 耕地가 발달되어 있어 農耕과 방아를 돌리는 데에 말의 노동력을 빌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牧馬가 비교적 많다. 한편 지형·지질 등의 관계로 음료가 귀하다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이 지역에는 畜舍를 갖추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이 南

濟州의 연중 방목형과는 다소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 2. 말의 分布

濟州島에 있어서의 말은 表1-1에 따르면 2만2천5백두(그 중 숫말 1만10두, 암말은 그 1.2倍強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로 전 조선의 말 총수의 40%強에 해당된다. 그 분포상대는 表1-1 및 그림1-7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北濟州에 많고 南濟州에는 적다. 이 점, 牧牛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서 北濟州에서는 濟州面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이나 평균밀도 11.8두 이상으로, 동부의 舊左面이 최대밀도를 이루어 新左面·新右面·舊右面의 순이다. 南濟州의 모든 面은 평균밀도 이하로, 左面·西中·旌義·中面의 순으로 감소하는데 東中面이 가장 적어 6.4두이다.

이것을 사육호수의 전 농가에 대한 比率上으로 보면, 사육호수는 소의 비율의 2분1에도 미치지 않아, 가장 비율이 높은 北濟州의 新右·新左 및 南濟州의 左面이 각 35%이며 나머지는 극히 낮다. 단지 통계상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表1-1의 통계는 사육자의 신고에 의한 集計로, 사육자는 課稅가 두려워 될 수 있는대로 두수를 적게 보고하고, 1~2두의 소유자에 있어서는 보고를 고의로 해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이 原野에서 연중 방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소유의 牛馬가 확실치 않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통계보다도 더욱 많은 것으로 보어져, 당국은 목우 6만두, 牧馬 4만5천두로 예측하고 있다.

牛馬소유자에 대해 濟州島農會에서는 畜産割로서 매년 1두에 대해 5錢을 납부토록 하고 동시에 牛馬籍의 등록을 시키고 있다. 그 통계가 表1-1이다. 그러나 종래 頭數割 納金을 위해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1932년부터 우마소유자로부터 畜産割로써 마리 수에 관계없이 매년 55錢을 납부토록함과 동시에 소유의 전 우마를 등록하여 그 소유권이 公認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마사육 호수가 종전보다 감소하는 일 없이 신고두수는 훨씬 증가. 表1-1의 昭和6년도(1931)를 한도로 하여 實數에 가까운 牛馬數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마통계 변화는 매우 흥미깊은 것으로 기대되는 反面, 表1-1은 기초통계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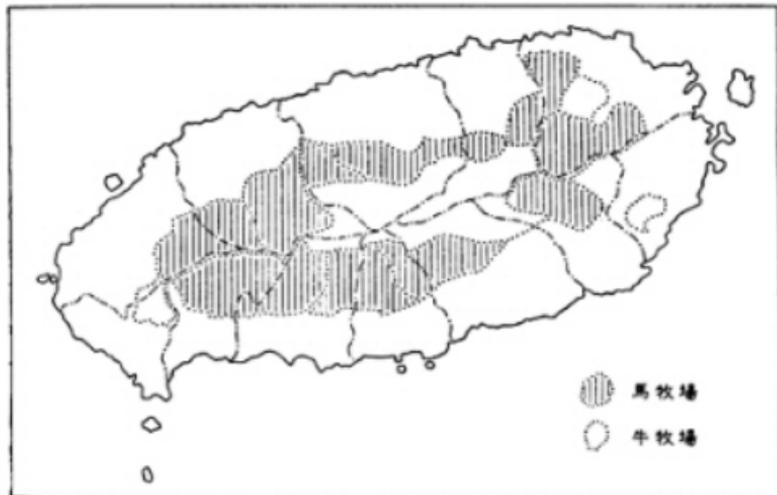
## 濟州島의 牛馬牧畜의 特異性

牛馬飼育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 성질 형태상으로 대개 세 종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①연중 방목 ②계절적 방목 ③축舍사육<sup>3)</sup>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①의 연중방목의 형식이 주체이다.

### 1. 牧場

제주도의 牧牛馬는 高麗忠烈王<sup>3)</sup> 3년 丁丑歲에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元의 達魯花赤이 소·말 수십두를 이끌고 지금의 新左面朝天里 부근에 상륙, 같은 해 도내에 1所場부터 10所場에 이르는 목장 10개소(그림 1-8)를 설정하여 말을 방목했다. 한편 소 목장으로는 1所場 안에 黃泰場(현재의 舊左面德泉里 부근?), 현재의 旌義·東中面 경계의 川尾川 연안의 10所場 부근의 川尾場·毛洞場(大



〈그림 1-8〉 濟州島에 있어서의 1660年代의 官營牧場分布 (宣祖大王33年)

靜面九億里 일원)을 설정하여 방목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여기에 監牧官이 두어져 그 밑에 牛監·馬監등 諸官이 있어 직접 牧子를 지도하면서 官牛馬를 사양 관리, 良牛·駿馬를 생산했다. 나중에 官牛馬를 농민에게 배부, 현재는 거의 民有가 되고 있다. 현재 섬의 主峰 한라산 주위의 표고 2백m~3백m로부터 傾斜 變移線에 해당하는 표고 6백m의 지점에 이르는 山腹의 帶狀草地는 폭이 좁은 곳은 4km, 넓은 곳은 8~10km 남짓이나 펼쳐져 있다.

官牧時代에 설정된 면적 6만정보<sup>10)</sup>의 목장 터에 윗쪽의 森林地帶과의 경계에는 上場城<sup>11)</sup>, 아랫쪽의 중간지대와와의 경계에도 下場城이라고 불리우는 둘담이 구축되어 있어, 우마의 타지역 침범을 막았던 것과 같이 그 흔적을 지금도 남겨 있다. 또한 관목시대의 목장은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제주도의 토지이용형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해서 아직도 河川侵蝕作用등 開析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화산의 斜面을 들판의 해안으로부터 해안지대(표고 0~200m, 最緩傾斜部로서 토지이용도가 最高率의 지역), 중간지대(200~약250m, 약간 경사도가 높은 半耕·半牧지대), 산간지대(350~600m, 방목지대), 삼림지대(600m 이상의 급경사지대)의 4지대가 한라산의 主峰을 둘러싸서 특색있는 構門環狀<sup>12)</sup>의 토지이용 景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도내 12면의 행정상의 各面境界는 중앙의 漢拏山頂을 軸으로 하여 放射狀으로 해안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各面 모두 앞에서 말한 4지대를 포함, 각기 面內에 목장지대를 갖고 있다. 더욱이 그 공통성은 섬의 지질이 모두 흑색의 玄武岩 熔岩, 火山碎屑物 30~50cm 크기의 현무암 角礫 및 火山彈·火山灰 등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 火山岩礫의 均質적분포가 본도의 일대 특색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副地理的單元으로서의 지역성을 특색지우는 것은 그 위치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斜面의 방향과 그 4지대의 넓이 등이 畜産上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 2. 放牧과 들담

섬의 首邑 濟州城內를 떠나서 해안지대의 환상도로를 여행할 때, 노상에서 만나는 우마의 수는 길 가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 하물며 해안지대보다 중간간의 垂直的인 횡단도로를 선택할 때는, 路上·休耕地·방목지역에서 목격되

는 우마의 무리는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人家는 물론 경지용은 모두 높이 120~130cm 정도의 돌담으로 둘러싸 우마의 침입을 막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경작지 안에 있는 돌을 주셔서 그 주위에 쌓아올린 것으로, 판 데서 일부러 날라오지 않아도 필만람 火山標이 분포한다. 그것은 오오무라(大村) 廟狀地<sup>1)</sup>의 돌명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야말로 본도가 갖는 一大景觀이며, 섬사람의 생애의 싸움은 돌을 줌고, 돌을 쌓으면서 살고, 조상들도 또한 이를 되풀이한 감이 있어, 진정 제주가 지닌 특색있는 경관이다. 환상도로의 全長 160km 남짓은 양쪽을 돌담으로 연이은 경관으로해서 「小萬里의 長城」이라고 할만 하다. 여기를 자동차로 달릴 때, 방목된 우마의 무리가 자동차에 놀라, 도망칠 곳을 잃고 수마리 또는 수십마리가 흩어진들 날리며 허둥대는 모습은 결코 진귀한 것이 아니다.

### 3. 放牧과 牧草

제주도의 牧畜은 대부분 年中放牧이지만 일부 乘馬·役用에 사역하는 것은 使役時에만 속사에서 돌보던가 주거 가까이에 放飼하여 사료는 糞糞 등을 줄뿐이다. 愛馬家들이 보리, 콩 등을 주어도 처음에는 얼핏 먹으려고 않고, 加熱된 식품은 投與되지 않는다. 본디 野草가 중요한 사료로, 목초는 해안지대, 중간지대에서는 雀豌豆, 개자리, 大栗, 大稗, 雀稗, 莎草(방동사나), 그 밖의 야초가 主宗을 이룬다. 재배사료로는 荳茶(자갈), 콩, 팥, 크림송크로바, 무사白萩 등이 있다. 산간지대에서는 草蓆, 茅(띠), 콩, 팥, 달맞이꽃, 薔薇, 万葉, 野萩 등이 主로, 일본 및 조선 본토와 같이 버나 稗를 사료로 代用하는 일은 없다.

### 4. 年中放牧과 繁殖品種

제주도 소의 품종은 南韓牛와 비슷한 체격으로, 대체로 왜소하지만 저항력이 강하고 또 熔岩, 砂礫의 산야를 오르내리기 위해 발힘이나 踏實이 강인하며 더구나 성질은 온순, 粗放사육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말의 품종은 「포코」에 속하는 純朝鮮馬(일설로는 蒙古系와의 잡종)로, 소와 마찬가지로 용암, 자갈등이 널려있는 들판을 자유로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 발굽이 강하고 자갈부성이의 험한 길도 잘 걸으며 연일 비바람에 시달려도 병에 걸리는 일은 드물다. 더우기 渴症에 견디는 힘은 다른 馬種에 뛰어나며 바위나

〈表1-2〉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소 去勢統計 (濟州島畜産組合)

年次	大正12年	大正13年	大正14年	大正15年	昭和2年	昭和3年	昭和4年	合計
頭數	1,060	794	549	693	439	635	144	4,314

〈表1-3〉 濟州島産 말의 搬出

年次	頭數	金額	搬出先
	頭	円	
大正13	4	128	大 阪
14	8	224	大 阪
15	19	416	北九州
昭和 2	10	227	大 阪
3	74	1,932	大阪, 忠南, 寶城, 羅州, 珍島
4	139	3,753	全北, 咸平, 羅州, 木浦, 珍島
5	74	2,658	京城, 咸平, 珍島
6	246	4,905	新義州, 咸平, 光州, 珍島
7	483	5,299	木浦, 長興, 寶城, 東京, 珍島
合計	1,080	19,562	

자갈 위에서도 쇠발굽이 없이 使役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갖췄다. 단지 체격이 왜소하여 보통 103~120cm 정도의 것이 가장 많아 그 때문에 負擔力은 일본 말의 3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말하자면 연중방목이기 때문에 겨울철의 사료 부족과 관리 불충분, 그 한편으로 진드기등의 폐해에 따른 영양부족과 劣性 種牛馬와의 交尾의 결과 동종이 劣性を 조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방목에 즈음해서는 混牧·入舍牧에 있어서 우마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키토(隱岐島)<sup>14)</sup>에서는 귀를 자르지만 濟州에서도 또 耳標로서 귀를 자른다면 烙印을 찍으므로써 식별하고 있다. 또 새끼소나 새끼말은 成牛馬에 의해 그 소속이 결정케 된다. 연중방목·入舍牧에 있어서의 種牛馬 선택은 어려운 일로, 품종향상을 도모하는 한 방법으로써 劣性소나 말의 屠殺 및 去勢를 장려

하고 이를 실시한 이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 후의 숫소의 거세실시 성적은 表1-2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최초 7년간에 4천3백14두에 이르며 숫소 총수의 22%강에 상당하고 있다.

본도의 말은 부담력이 작은 결점이 있다. 그 때문에 전국 제2위의 産馬地域이면서도 부담력이 큰 말을 필요로 하는 근대에 있어서는 극히 경쟁적 가치가 낮아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島外로의 搬出이 매우 적다. 大正13년(1924년) 이전의 통계는 얻을 수 없지만 1924년의 「4두」라는 수자에도 搬出不振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으로의 搬出先은 大阪·東京방면의 高오시영(甲子園), 하마데라(浜寺) 유원지, 도시마영(豊島園) 등 여러곳에 있어서의 어린이 승마용으로, 北九州에는 炭鑛지대에 있어서의 軌道馬, 坑内作業用으로서의 반출이다. 半島部로의 반출은 온순성이 높지 평가되어 교통불편한 지역의 교통기관으로서, 또 벽지, 고지의 농사용 및 운반용으로서이다. 섬 안에서는 乘用, 役用, 견조농업에 있어서의 조 파종의 踏壓用·말방아갈기 등에 이용하고 있지만 말 총 두수의 30%정도가 계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畜牛는 말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 農耕牛·肉牛로서 반출되는 것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또 특히 일본으로의 반출은 최근 11년간에 불과 202頭인데 반해 조선본토로는 그 20여곱절이나 반출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다.

## 5. 質보다 量의 畜産

전술한 바와 같이 본도의 牛馬의 質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表1-5에 따르면 본도의 경지면적은 일본의 2.5倍強이 된다. 더구나 지형·지질의 관계상 도내의 河川은 대부분 溜馬川(乾川)이다. 따라서 음표수는 바닷가의 湧泉이나 溜水(奉天水)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聚落의 대부분은 集村으로서 바닷가에 偏在하고 노동력도 현저히 편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半農半漁가 많고 그 위에 섬의 풍습으로서 농업노동의 주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있어 1년의 태반은 해녀<sup>14)</sup>로서 바다에서 일하고 섬 밖으로 돈벌이 나간다. 또 남자도 인구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2만여가 大阪, 그 밖의 지역으로 출가한다. (본도 出稼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남아도는 지역이 出稼地域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본도의 인구가동현상은 노동력 부족의

〈表1-4〉 濟州島産 소의 搬出先別搬出頭數(濟州島廳調査)

年次別	日本内地			朝鮮本土			合計			價格 (円)
	頭	頭	計	頭	頭	計	頭	頭	計	
獎勵後 大正11年	-	-	-	?	?	71	?	?	71	1,562
獎勵後 大正12年	-	-	-	422	135	557	422	135	557	15,317
大正13年	126	50	176	345	172	517	471	222	693	20,097
大正14年	25	1	26	218	305	523	243	306	549	16,470
大正15年	-	-	-	103	62	165	103	62	65	1,690
昭和2年	-	-	-	139	197	336	139	197	336	9,744
昭和3年	-	-	-	191	874	1,065	191	874	1,065	34,090
昭和4年	-	-	-	26	626	652	26	626	652	20,212
昭和5年	-	-	-	-	288	288	-	288	288	9,792
昭和6年	-	-	-	6	318	324	6	318	324	11,988
昭和7年	-	-	-	38	1,438	1,476	38	1,438	1,476	57,670
累計	151	51	202	1,488	4,415	4,822	1,639	3,346	6,078	198,633

상태에 있어서도 더욱 왕성하게 출가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詳論하기로 한다.)

이와같이 토지에 대한 노동력은 부족하고 편제하기 때문에 通耕距離가 길어 聚落부근의 경지 이외는 통경거리에 반비례해서 토지의 농업생산성은 低下한다. 耕種農業의 양식은 아주 粗放에서 과종과 수확 외는 耕地·中耕·施肥를 하는 일이 드물어 地味 소모가 막심, 토지이용생산은 1년 1耕보다 10년 1耕이 된다. 그래서 이 休閒地에 우마를 방목하여 無管理 아래 放飼하기 때문에 種牛馬의 선택이 없는, 野交尾에 의한 자연번식이라는 데서 증가하여 전국에서 손꼽는 두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賈的으로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우마를 다수 소유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광막한 목야, 휴한지의 이용과 품종의 개량·향상에 고심하고 있다.

## 꿀 벌 (蜜蜂)

濟州島의 養蜂의 起源은 始政後(註=한일합병후)의 일로 明治43년(1910년) 莞島郡으로부터 旌義面에 在來種 3群을 옮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洋種벌(사이프리안 및 이탈리아인種系 잡종)은 大正8년(1919)에 西歸浦 川崎某가 일본으로부터 반입한 것이 최초로 여겨지고 있다.

본도의 양봉은 온난한 해양성기후의 혜택을 받고, 특히 南濟州는 중앙에 솟아있는 조선제2의 高峰 한라산의 南斜面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뜻하여 사계절을 통해서 양봉에 적합하다. 이에 더하여 지형·지질의 관계상 밤이나 목장이 많은 관계로(表1-5 참조) 蜜源植物이 풍부하여 좋은 결과를 올리고 있다. 이것이 中産 지식계급의 부업에 대한 의욕을 자극, 大正12년(1923)부터 3년간에 걸쳐 기후(岐阜)縣으로부터 黃金種벌 1백46群을 공동구입했다. 이후 더욱 堅實한 발전을 이루어 그림1-9(濟州島畜産組合 조사자료에 의해 작성)와 같이 1920년에 불과 15群이었던 것이 1931년에는 실로 2천9백59군을 갖는 발전상을 보이게 되었다.

꿀벌의 분포는 南濟州에 많아 그 중에도 南濟州 중앙부의 右面 및 左面이 가장 탁월한데 北濟州에는 적다. 右面에 많은 것은 양봉업 발생의 땅이며 또한 기후조건이 양봉에 적합하고 蜜源이 풍부한 데에 起因한다.

다시 말해서 기후는 이미 「牧牛」章에 지적했듯이 본도 제일의 온난기후로 겨울에도 아직 豌豆, 油菜, 동백, 柴胡 등의 蜜源이 있다. 특히 동백은 防火林의 목적으로 집집마다 주위에 심어져 있어 好近里·西好里·西烘里·東烘里·下孝里·新孝里 등에서는 어디서나 동백에 둘러싸인 특색있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表1-5〉 農家 1戶當 平均耕地(昭和5年)

地方	地 種	논(反步)	밭(反步)	. 計	牧場(反步)	合 計
內	地	5.5	5.4	10.9	-	10.9
朝鮮	群	5.8	10.4	16.2	-	16.2
濟州島		0.25	28.6	28.31	18.8	47.11

蜜源이 되는 주요식물의 분포는 해안지대에서는 주로 紫雲英·油菜·紫苔萍  
櫻蘇(봄 가을 2종)·먹구슬나무·감귤류(温州蜜柑·金柑·唐金橘·乳柑)·복  
숭아·빛나무·棉花 등이 있다. 또한 감귤류의 생산은 朝鮮에서는 제주도에 한  
정되어 있으며 특히 西歸浦 북서쪽 2km지점에 감귤원이 많다.

중간지대에는 메밀·決明·크림송골로바·콩·팥 등이 있다. 더우기 산간지  
대에서는 9월부터 12월 중순에 이르는 건조기에 양질의 꿀을 저장하는 香薷가  
발생하여 紫紅色의 꽃을 달아 마치 노오비(濃尾) 平野(註=일본 岐阜·愛知 두  
縣에 걸친 광대한 평야)의 총총이어진 紫雲英밭을 보는 것 같다. 또한 일본 및  
半島部에 있어서의 꿀의 최성기는 봄으로, 양봉가의 가장 중요한 계절이 되어  
있지만 제주도는 전연 상반된 계절의 香薷의 꿀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 밖에 삼  
림지대에는 밤·싸리·덩굴풀 등이 있으며 삼림지대의 상부에는 철쭉밭이 펼쳐  
져 있다.

이상의 蜜源의 분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15km 사이에 있어서의 2천m의 수직  
적인 변화에 의해 계절적으로 해안지대로부터 산간지대로로 1년중 계속하여 꿀



〈그림 1-9〉 濟州島에 있어서의 꿀벌의 分布 (昭和6年12月末現在)

을 딸 수가 있어, 가장 경제적인 養蜂의 이동<sup>17)</sup>이 행해지게 된다. 양봉가는 해안지대의 開花期가 끝날 즈음부터 벌통을 最高所로 이전하여 10수일간의 천막 생활을 하면서 벌통을 관리한다. 개화기가 중간지대로 내려감과 함께 벌통을 옮겨 산간지대 거주자(표고 막사리)에 위촉하여 보수로서 꿀을 나눠주던가, 꿀을 兩者間에서 折半한다. 12월말에는 해안지대에 내려와 南濟州에서는 2월말, 北濟州에서는 3월말까지 월동한다. 西歸浦 같은 데서는 따뜻하기 때문에 벌통 입구를 좁히는 정도로 월동한다.

이와같은 양봉의 조건이 비슷한 右面에 인접한 左面을 자극하고 나아가서 西中面에 전해져서 드디어 그림1-9와 같은 꿀벌의 분포를 보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北濟州에서는 香薷草로부터의 採蜜을 위해 표고 6백m의 觀音寺까지 이동해 간다. 본도 최초의 꿀벌 輸入面인 旌義에 현재 그 분포가 全無한 것은 이 지역의 6~7월에 걸친 濃霧에 의한 악조건과 가장 低平地帶이기 때문에 蜜源期の 中과 부족에 기인한다.

세계의 주요 養蜂國<sup>18)</sup>에 있어서의 인구 1천명당 벌통 수는 美國 33상자, 獨逸 24, 소련 17(1925년), 濟州島 17, 일본 2, 조선반도 4.4상자(1927)의 비율이다. 昭和6년(1931) 제주도의 꿀 생산고는 4만9천78斤, 그 전해인 1930년에는 4만8천9백97근으로, 釜山 및 大阪방면에 반출하고 있다.

한편 1930년에는 4백70群的 種蜂을 天津에 수출하기도 했다.

##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的意義

이상 제주도에 있어서의 畜産의 지리학적 觀點으로부터 제주도가 갖는 地域性的의 일면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축산의 分析學的解剖와 지리학적 고찰이 진행됨에 따라 제주도 내부의 副地理的單元의 결정인자로서 축산이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일로 해서 다음 사항이 主된 현상으로서 요약된다.

1. 본도의 축산 속에서 牛馬는 質보다 量에 있어서 전국에서 보기 드문 優越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 특성은 위치·지형·지질·기후 등의 자연지리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치며 더우기 人文地理의 여러 요소와의 종합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官牧시대에 있어서의 牧野가 개방되어도 그 제도를 전승시킨 것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섬을 둘러싸는 개방된 광막한 목야이며 또한 방목지대의 아랫쪽에 펼쳐져있는 광막한 休閒耕地였다. 현재 농가의 1호당 農牧地는 일본의 4~5배이지만 그 이용에는 방목이 最適이다. 더구나 휴한경지 및 경지의 각 개인의 所有區를 방목된 우마의 침해로부터 막기 위한 돌담을 만드는데도 火山礫이 가는 곳마다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온화한 해양성기후와 수직·수평의 兩面으로 펼쳐진 목장은 우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해서 기후적으로 받는 繁殖制約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2. 우마는 習性으로서 집단적으로 목야지 안을 이동하지만 混牧으로부터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귀를 자르는 耳標가 쓰이며 최근에는 烙印등도 사용되고 있다.

3.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연중방목은 種牛馬의 선택도 없이 野交尾에 의해서 수는 증가했지만 質은 떨어졌다.

4. 落島라는 隔絶性으로해서 최근까지 우마의 반출에 의한 감소는 적고 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5. 湧泉水에 의한 음료수의 偏在는 집촌형취락을 해안지대로 편재시켰다. 따라서 노동력도 현저히 편재하고 半農半漁가 농업노동력을 더욱 삭감시키고 있다. 그 위에 남자는 도외로의 출가에 노동력이 흘러, 토지 이용도도 쇠퇴, 휴한지는 방목에 더 이용되고 있다.

6. 연중 粗放牧과 목야의 형태·지질 등의 자연적환경은 우마의 脚力이나 蹄質을 강인하게 하여 험한 도로나 연일의 비바람에도 잘 견디며 또한 渴症도 잘 참아내고 성질이 온순한 위에 조악한 飼養을 견디내는, 장점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들 장점은 체격의 왜소, 부담력의 빈약 등 短點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소는 肉牛로서 개량되어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서 장래에 濟州島는 牛舍으로서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畜産의 생산분포는, 소는 南濟州, 말은 반대의 北濟州가 탁월하다.

7. 양봉은 시작되어 아직 얼마 안되지만 자연지리적 好條件에 힘을 입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南濟州는 養蜂에 적합하며 전국에서도 손꼽는 위치

에 있다.

8. 제주도의 자연적인 南北性은, 畜産에서도 나타나 南濟州에 소·꿀벌, 北濟州에 말이 각기 뛰어나다.

이상의 因子는 얼마없이 다른 人文的諸現象의 究明과 함께 副地理的單元을 결정 짓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을 집필함에 있어 항상 지도를 해주신 다나카(田中啓爾) 교수에 대해 삼가 深謝함과 더불어 현지에 있어서 갖가지 자료와 조사의 편의를 주신 濟州島司 다구치(田口禎憲)씨 濟州島畜産組合技師 다테노(立野角之助)씨 전 濟州農業學校 敎諭 이치노미야(一宮正則)씨, 島廳 여러분, 하기하라(萩原駒藏)씨, 고토(郷末雄)씨 그 밖의 도내 유지 여러분께 敬意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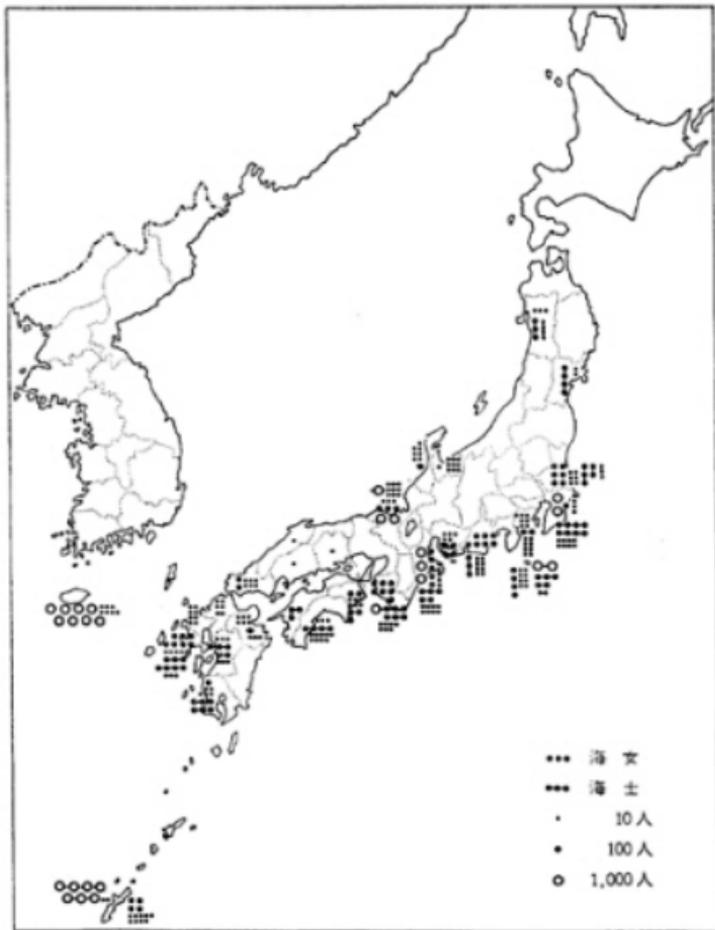
(昭和 9년 4월 20일/濟州島에 있어서의 地理學的研究)

## 濟州島 海女

濟州島의 여성이 이른바 해녀로서 裸體潛水漁業에 종사하는 것은 희귀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섬의 여성이, 또 바닷가의 여성이 처녀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환경으로 봐서도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있어서도 「아만도(蒼海人)」, 또는 海人, 혹은 海士·海女·漁婦 등의 문자가 古文書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옛부터 남녀 모두가 裸體潛水漁業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해녀는, 여성이 繪畫나 詩歌에 인용한다는 데서, 또 잠수어업상으로도 한층 흥미있는 일이라는 데서 여성이 主體로 여겨진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관념으로 「海人」이라면 물에 잠수하는 여성을 연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남녀의 裸體潛水漁業者가 전국 각지에 분포(그림1-10 참조)하고 있다. 昭和6년(1931)의 『전국잠수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裸體潛水漁業者의 본업, 부업자의 합계는 4만5백38명, 이 가운데 남자가 종사하는 이른바 海士가 1만8천7백63명, 해녀가 2만1천7백75명이다. 해녀가 海士보다 3천12명이나 많다. 또 분포에 있어서 海士는 오키나와(沖繩)縣 7천19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며 해녀는 제주도에 있어서 8천8백62명으로 전국 해녀의 40%강을 점유하고 있다. 西南日本에 있어 琉球의 海士와 濟州의 海女가 특히 많고 더구나 西南의 限界點(그림1~10 참조)에 있다는 것이 뚜렷한 현상이라고 않을 수 없다.

이 제주해녀의 수는 1932년 8월 현재의 濟州海女組合員數이지만 조합원 이외의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를 포함하면 1만5천여나 되어 전국 해녀의 54%로서 濟州해녀가 단연 拔群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옛날부터 朝鮮地方으로서 동일 행정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부에 있어서 한 사람의 해녀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여성이 일반적으로 籠居的, 비활동적 여성이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제주여성만이 해녀어업에 종사하고 그 수가 많은 것은 조선지방에 있어서 濟州島만이 갖는 獨自의 지역성이며 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림 1-10 〕 全國에 있어서의 專業漁業漁業者의 分布

# 海女の環境으로서의 濟州島

## 1. 位置의 特色

濟州島<sup>41)</sup>는 東經 126度10分부터 126度58分, 北緯 33度12分부터 33度34分에 가로놓여 있는 一大孤島이다. 특히 그 關係的位置가 제주도해녀를 지역 매김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 본도는 朝鮮半島の 南西端인 木浦로부터 1백42km 떨어진 바다에 떠 있어 북쪽은 朝鮮의 多島海에 면하고 동쪽은 對馬(對馬)와 나가사키(長崎)의 五島列島에 상대하여 거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며, 거리적으로는 朝鮮半島の 남부해안지방과 北九州 연해지방과는 거의 等距離로 일본 本土와 半島部에 접근하고 있다. 또 南海의 도서가 지나는 해양성기후상 半島部와는 다른 독자적 地域性을 갖고 있다. 본도의 면적은 朝鮮에 속하는 3천3백남짓의 島嶼中 최대의 것으로 약 1천8백31평방km에 이르며 牛島 이하 13개의 작은 섬(거의 無人島)를 합치면 1천8백57, 2평방km로 카가와(香川)縣의 면적과 엇비슷하다.

台灣의 남방으로부터 薩南諸島의 서쪽에 이르러 分岐한 쿠로시오(黑潮)의 支流는 濟州本島의 남동부를 씻고 流路를 북동으로 돌려 對馬海峽으로 향한다. 그 지류인 수 많은 海岸潮流가 濟州島를 싸고 흘러 연안 일대는 每時 2~2海里의 流速을 이루고 있다. 또 潮沙干滿의 차는 1.8m나 돼 滿潮時에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干潮時에는 그 반대의 流路를 잡는다. 이와같이 海洋에 지배된 본도는 朝鮮半도부와는 기후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海藻類 및 조개류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바 커서 해녀어업에 있어서 鹽水和 潮沙干滿의 差동이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地形概觀

濟州島는 거의 전부가 火山岩으로 이루어진 타원형의 화산도로, 중앙으로부터 약간 남서쪽에 있는 主峰 한라산 1,950m가 王座와 같이 솟아있고 그 산기슭

을 둘러싸듯 噴火小 円錐화산은 마치 鐘의 突起物처럼, 그 수는 地圖上으로도 3백40여나 된다. 나카무라(中村)<sup>22)</sup>학사는 약 3백으로 계산하고, 하라구치(原口)<sup>23)</sup>學士는 3백을 넘는다고 概算하고 있다. 더우기 분화후 용암이나 火山砂土등으로 매립되어 地上에 나와있지 않은 많은 소원추화산이 있다는 것도 推察된다. 생각컨대 화산활동이 왕성했던 시대의 제주도는 벌집과도 같이 수많은, 수천의 火口로부터 용암이 흘러 火山彈, 火山礫을 분출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현재 小円錐화산이 많기로는 달리 구해볼 수 없는 壯觀이다.

또 主峰 漢擊火山은 아스피테(Aspite)형 화산에 속하는, 세계에 많이 분포하는 형식의 화산형태이며 화산활동이<sup>24)</sup> 왕성한 시기에 유동성이 풍부한 鹽基性的 玄武岩 岩塊이 많이 넘쳐 흐르면서 만들어낸 극히 扁平한 円錐體이다. 그 형태는 마치 삿갓을 덮은 모양으로 円山·円嶺山·頭無山 등의 異名이 있으며 獨逸語로 楯狀火山(Schild Vulkan)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으로 그 형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四圍의 경사는 극히 완만하며 中腹에서는 2度~3度の 緩傾斜이다.

이 편평한 火山錐는 주로 熔岩의 果層으로 구성되며 용암은 바다에 이르러 斷崖를 이루던지 또는 자연의 흐름 그대로 바다에 埋沒되고 있다. 그래서 그 熔岩層은 西歸里 북서쪽의 湖外川의 浸蝕溪谷에서 두꺼운 것은 5~7m, 얇은 것은 1m 내의물 이루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이런 상태는 전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러한 下層의 용암은 해중에 매몰되어 연안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탄한 岩盤面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 해안선 2백40km의 80%強은 黑色玄武岩의 극히 수평적이고 단조로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가까스로 단조로움을 깨는 것은 貝殼의 분말로 이루어지는 砂丘海岸으로 北斜面의 金寧里·威德里·金陵里 南斜面의 表善里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본도가 갖는 특수한 景觀이다. 특히 北斜面에 현저한 현상이다.

한편 섬 안은 분출된 용암이나, 그 부서진 직경 수m로부터 보통 30~40cm의 돌덩이로 은뚱 덮여 표고 6백m 이하는 거의 수목이 없는 그야말로 岩石島이다. 이 때문에 河川은 雨期에는 범람하지만 빗물의 대부분은 火山砂礫의 下層을 伏流하여, 南斜面의 松川·湖外川·倉庫川(이들도 극히 水量이 적다)를 제외하고는 乾川(Wadi)이다. 伏流水<sup>25)</sup>는 해안에 있어서 용암의 末端部에 湧泉으로 솟아

나기때문에 빗물의 瀉水(奉天水)를 음료수로 하는 산간부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 해변취락의 주민은 자연히 半農半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半農半漁와 海女の 特性

제주도에 있어서의 半農半漁의 형태는 일본의 그것과 현저히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에 獨自의 지역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반농반어의 주체는 대개의 경우 남자는 어업을 주제로 하고 부녀자는 농업노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一般通性이지만 제주도에 있어서의 어업이란 남자가 주체가 되어 종사하는 漁撈이 아니라, 捕貝採藻를 주로하는 專用漁業으로, 부녀자가 대부분 이를 맡고 또 사실상 농업노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 집안의 경제의 支持力이 본도에서 오직 부녀자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해도 된다. 이 부녀자들이 종사하는 捕貝採藻(조개 잡이와 해조류 채취)의 어법은 가장 원시적인 나세잠수업으로, 이를 부녀자가 이른바 해녀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沿岸 1백24個里에 거주하는 부녀자의 거의는 12~13세때부터 淺海에서 연습을 시작, 15~16세에 이르러 한 몫을 하는 해녀가 된다. 이 시대를 특히 幼生海女라고 칭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寒暑를 가리지 않고, 農閑期와 漁期를 노려 조업한다. 그 복장은 木綿製의 내의와 같은 것에 白 또는 흑색의 속옷만을 입은 간단한 것으로 때로는 속옷만 걸친 경우도 있다. 기구는 태왁이라고 불리우는 浮瓢와 이에 달려 있는 繩網袋(망사리)로, 패류의 채취에는 쇠로 만든 20~25cm 정도의 빗창을 휴대하고 해조류 채취에는 낚을 사용한다. 잠수하는 最高深度는 120尋(말, 1말은 5~6尺)이지만 4~5尋을 보통으로 한다. 1회의 잠수시간은 1분 내지 1분30초로, 그것을 연속적으로 60번쯤 한 다음 물에 나와 불에 쪼면 다음 다시 물에 들어간다. 하루에 이런 동작을 3~4회 되풀이한다.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가며 태왁을 왼쪽 어깨에 걸쳐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에 낚이나 빗창을 들고 해변에 내려가 태왁을 복부에 대고 해엄처 목적지로 나가면서 조업을 한다. 피로해지면 태왁에 몸을 의지하고 물결 사이에 떠있는 채로 쉰다. 일본해녀는 보통 나무로 된 부표(浮桶)를 사용하지만 이 점이 사정이 다르다. 한편 採取繩이 밀 경우

에는 심수명이 한 무리가 되어 섬 특유의 햇볕이나 작은 배에 타서 떠난다.

잠수심도가 깊을 경우엔 일본의 이세(伊勢)해녀나 그 밖의 해녀는 보통 3판 내외의 分網漁網籠를 빌어 잠수한다. 이 경우 해상에는 사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다가 거친 날에는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래도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기리'라고 해서 1명 내지 2명의 해녀에 작은 배 1척, 사공 1~2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해녀는 어망추가 없어도 깊은 곳까지 잘 잠수하고 또 파도가 높고 거칠어도 조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조업일수가 길어진다. 이 해녀들이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錢 정도의 값싼 물안경을 2円 50錢 내지 3円 것과 바꾼다면 더한 水壓에도 견디고 보다 깊이, 보다 장시간의 조업에 종사할 수 있어 한층 능률적이기 때문에 組合에서는 고급 물안경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해녀는 耐寒力에 약하여 추운 때는 한 달에 겨우 1주일 간 조업하는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15~20일의 耐寒勞動力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해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이다.

## 島內海女の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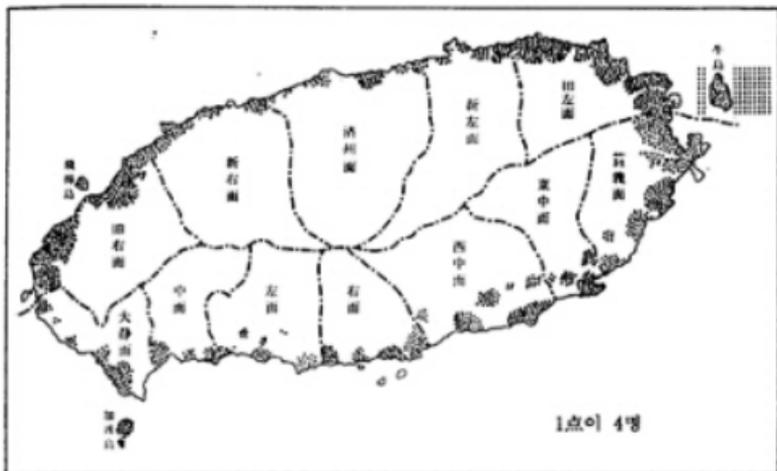
昭和7年(1932)8월 현재에 있어서의 各里別濟州島海女組合員數<sup>27)</sup>의 통계를 갖고 分布圖(그림 1-11 참조)를 작성하여 그 상태를 관찰하면, 그 분포가 陸上の 경지·해안지형·기후·수온·조류·潮汐干滿 등에 현저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 동부해안지대 즉 舊左面 및 旌義面을 포함하는 지역에 가장 많다. 이어 (2) 북서부해안지대의 舊右面, (3) 남부해안지역이 되며 (4) 북부해안지역은 가장 적다.

### 1. 東部海岸地帶

해녀의 최대수를 갖는 舊左面 및 旌義面은 합계 3천3백81명에 이르러 전체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것은 舊左面の 演坪里(牛島)로 5백 13명에 이르며 그 밖에 終達里·下道里·旌義面の 始興里·吾照里·古城里·溫平里 등으로, 즉 牛島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일대의 지역이다.

牛島는 終達里 동쪽 1海里정도의 해상에 가로 놓인 작은 섬으로, 주위 약 12

km. 섬 안에는 天津·後海·飛揚·古水·三陽·周興·鏡蛇의 7洞으로 演坪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1-11〉 濟州島의 海女の 分布

人家는 4백30여호, 해녀조합원 5백13명으로 1호당 평균 1명 이상이 된다. 더구나 牛島근해는 朝鮮 제1의 海藻類 產地로서 우뚝가사리·미역·감태 등의 良質의 것이 다량 생산되는 것으로 뛰어나며 특히 天津洞으로부터 飛揚洞에 이르는 南東海底에 최우량종이 생산된다. 그것은 熔岩流만으로 이루어지는 심으로 급한 斷崖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갑자기 깊어지고 또 海底가 岩盤이기 때문에 모래를 들러쓰는 일이 없어서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해녀가 10명이나 되는 잠수능력을 갖는 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깊은 바다와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들 해조류의 産額은 전 제주도 2분의1에 이르며 우뚝가사리는 최우량품인 蔚山産을 능가할 정도로, 가격도 또 他地方産에 비해 20%정도 비싼데도 상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사들인다.

牛島에 있어서의 潜水器漁業의 창시자인 요시무라구미(吉村組)는 일찍이 城山浦를 근거지로하여 採藻業에 종사했는데 기계선 12척, 운송선 5척을 사용

하고 있었다. 해변에는 30여동의 창고를 건설하고 끝내는 數地가 좁을 정도의 蠶漁를 蠶歌했는데 이 蠶獲으로 어장이 황폐화된 것과 裸潛海女の 이익을 좌취한 일 등으로 해서 器機船의 入漁는 금지되었다. 현재로서는 각기 海女組合에서 專用漁業權을 갖고 좋은 어장으로 부활, 해녀의 대집단지역을 이루게 되었다.

## 2. 北西部海岸地帶

제2의 稠密지역인 북서부해안지대의 舊右面(輪林)은 飛揚島를 중심으로하는 일대의 해안지역이다. 飛揚島는 有史 이후의 噴火에 의한 것으로, 해저의 岩盤은 오래지 않아 海조의 생육에 舒適, 미역·감태·우뭇가사리·모자반 등 각종 海조류가 풍부하며 미역은 도내 제1의 良質의 것이다.

## 3. 北部海岸地域

北岸의 新右面(涯月)·濟州面·新左面(朝天)의 해안에 해녀가 적은 것은 해



〔그림 1-12〕 濟州島에 있어서의 第6種免許漁業의 分布

저압반이 비교적 편란치 못한 것과 겨울철의 복서계절풍이 해저를 교란시켜 해조류에 모래가 덮인다는 定着上 불리한 조건도 있고, 물에는 비교적 넓은 可耕地在 있다는 데서 農牧業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人文的으로는, 이 지역에 일찍이 육지방면으로부터 遼流刑(流配)에 처하여 渡來한 半島黃族이나 그 자손이 많아 그 영향을 입고 있다는 것도 看過할 수 없다.

예로부터 미역은 제주도에 있어서 중요한 食料이며 시장 상품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본도에서는 産母에게 먹이는 미역국은 없어서는 안 될 「藥藻」로서 중히 여겨지고 需要와 市場價値가 높기 때문에 옛부터 漁業權이 시끄러워 일찍이 이를 둘러싸고 旌義面 始興里와 舊左面 終遠里 간에 10년에 걸쳐 係爭한 일도 있다. 이런 일로 해서 이웃마을에 시집간 여자도 婚姻 후에는 친정쪽 어장에 접근 못하도록 할 만큼 採貝의 어업권<sup>1)</sup>에는 종래부터 관대한데 반해 採藻漁業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중했다. 1933년8월 현재 採藻專用漁業權을 갖는 리는 해면 1백23개里中 北斜面에서는 濟州面の 禾北·三陽, 舊右面の 洙源·高山, 舊左面の 西金寧·東金寧·月汀 등, 南斜面에서는 中面(安德)의 柑山, 左面(中文)의 轡遠·中文·江汀, 右面(西歸)의 法遠·好近·西歸·東烘, 西中面(南元)의 新禮, 東中面(表善)의 細花 등 극히 몇몇 지역에 불과하다(그림 1-2 참조).

## 漁獲物과 漁期

### 미역

미역은 昭和7년도(1932)에 마른 것으로 63만8천斤이 생산되어 産地에서 斤당 14전부터 18전까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주산지는 旌義·東中·舊左·大靜·舊右의 여러 면을 포함한 東岸과 西岸이 많고 다른 곳도 거의 엇비슷하다. 채취는 조류와 수온의 관계로 東岸이 가장 빨라 3월1일부터 개시, 東中面에서는 3월10일, 제1회 賣上高는 무려 2만근에 이르고 있다. 東中面으로부터 旌義·大靜·舊右로, 동으로부터 남동·남서로 漁期가 옮겨져 서부의 大靜에서는 5월 상순이 最盛期로, 일본의 나루토(鳴門)미역의 어기와 거의 같은 시기가 되며 東岸보다는 약 2개월 늦어진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北岸으로 옮겨져 11월

30일의 禁採期에 이른다.

### 우뭇가사리

年産 15만근, 舊左面演坪里가 35%, 下道里가 9% 그 합계 6만8천근이 주축을 이룬다. 그 밖에 전도에 걸쳐 생산되지만 가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演坪里것은 平年作으로 1백근當 약28円, 1933년은 30.5円이었는데 통상적으로 30円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조선우뭇가사리의 주산지인 蔚山에도 떨어지지 않는 良質의 것이다. 下道里産은 20~26円, 그 밖의 것은 15~20円이다. 演坪里에서 優良品이 생산되는 것은 은 섬이 평탄한 熔岩島로 그 해안은 斷崖가 깊고 海底가 비교적 평평하다는 자연적 好條件 때문이다.

### 갈 태

제주도 특유의 것으로 켈프(Kelp·註=물에 떠온 재료 搗布灰라고도 하는데



〈그림1-13〉 專用漁業(各里)에 있어서의 貝藻採取免許漁業과 그 漁期  
(總督府採漁免許指令書에 依해 作圖)

沃素의 원료)로 해서 年産 1백2만7백90근, 감태는 제주연안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해조류인데 需要와 시장의 시세에 따라 생산은 伸縮自在이다. 최우량품을 내는 곳은 우뚝가사리의 지역과 거의 일치하여 舊左面 下道里로부터 旌義~東中面表善里에 이르는 관내로, 그 밖은 漂着감태이다.

필자가 1932년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쪽풍우 직후에 남동해안을 통과한 일이 있는데 그때 溫平里·新川里 등에서 많은 里民들이 漂着한 감태를 열심히 주워 모으는 것을 봤다. 펠프는 1백근 80전정도로 沃素會社가 사들인다. 漂着감태의 제품비율(步留)은 이물찌가 59%, 사흙찌 39%, 나흙찌 28%, 닳새찌 27%, 엇새찌 26%, 이레찌 25%, 여드렛찌 19%, 아흐렛찌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8%, 열흙찌는 7%라는 비율로 감소한다. 또 제품비율(步留=가공했을 때의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은 계절에 따라 달라져있어 3월부터 8월에 이르는 봄·여름 때가 비율이 높다. 精製沃素는, 朝鮮沃度株式會社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東京의 日本沃度株式會社, 興永沃度株式會社의 것은 大阪本店이나 기후(岐阜)의 大垣製藥會社 등으로 移送하고 있다. 근간 濟州海女組合에서 沃素製造工場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풀가사리(海蘆)

漁期는 8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4월30일로 끝난다. 年産 2만2천1백25근(1932), 演坪·大靜·加波 등이 주산지이다. 「도박」은 着生面の 암반이 평평하다는 것과 더구나 數大于水面下 2척이 번식상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前記 지방등이다. 판로는 原産인제 木浦경유로 大阪에 보내진다. 김은 崑蟹관계 때문에 적어 겨우 도내 수요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는다.

### 청각(海松)

1백근當 6円정도로 鹽物로써 大邱에 봉양 반출된 다음 大邱시장을 거쳐 조선 반도 각지에 보내진다.

### 소라

소라는 1년중 잡는데 해조류 가격에 정비례해서 오르내린다. 그것은 해조류

가 값이 좋을 때는 자연 採藻가 주가 되기 때문에 捕貝가 적어 시장의 소라도 品賣되기 때문이지만 年産 1백74만6천3백근, 不漁時에도 1천상자(1상자는 1백50근)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1931년의 통조림 好況시대에는 1천2백상자, 1932년에도 똑 같이 약 1천2백상자를 생산하고 있다. 해녀가 잡은 소라는 產地에서 仲買人에게 넘겨지는데 가격은 1근에 1錢8厘로부터 3전5厘로, 평균 2전이다. 그래서 市況이 활기를 띠어 중매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3錢5리쯤 된다. 최근 남획한 결과, 소라가 작아져 大正15년경(1925) 50돈중街으로 20개 이하의 것은 없었는데 최근 35~40개로 되었다. 그래서 당국은 40개 이하의 작은 것은 매매를 하지말도록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소라의 알이 작아진 원인은 남획도 그 하나이지만 그 위에 우수해녀의 出稼에도 起因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기계로 잡게되어 한 개에 50돈중의 것을 잡는 일도 쉬워졌다는 것이다. 또 통조림업자는 그 원인을, 해조류쪽이 高價로, 소라잡이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소라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익숙치 못한 해녀들이 捕貝하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 전복

전복의 가장 좋은 어장은 미역과 일치한다. 그것은 전복이 미역을 먹이로 하기 때문인데 旌義·大靜·右面·舊左面 등이 좋은 어장이다. 漁期는 1월1일에 시작하여 9월15일에 끝나는데 最盛期는 보리 수확후의 農閑期인 7~9월의 3개월간(미역은 3~5월, 우뚝가사리도 5월이 최성기로 그 뒤에는 채취 않는다)으로 年産 21만5천5백斤, 전도 아무데서나 생산된다. 특히 우량한 전복의 산지는 동으로 旌義, 서으로 大靜에 이르는 山南地域의 해안이다. 한편 山地인 북부해안지역은 바위가 거칠어 不適, 청각 같은 것도 남부해안의 것에 비하면 심히 또 부라지고 있어 얼마나 거친 바위인가를 관찰하게 된다. 미역도 역시 거친과도에 문질러져 발육이 불량하다.

가격은 北濟州것은 小粒으로 낮아 1斤當 16전, 南濟州것은 알이 굵어 25전 안팎이다. 그 계통비율(歩留)이 좋은 것은 城山浦, 西歸浦, 華瑟浦 등의 것이다.

大靜은 全島産額의 10%, 城山浦는 9%를 점유하며 주로 明鮑(註=익혀서 말린 것)를 만들어 1백근당 2백50원으로부터 3백원의 시가를 형성한다. 北濟州의

것은 素乾(날로 말린 것)으로, 明鮑에 적합치 않을뿐 아니라 제조해도 상품가치가 없다. 素乾鮑는 1백50円 안팎이다. 素乾 이외에 최근엔 보일통조림으로 제조하여 4다스들이 상자당 16~17円이 되고 있다. 滿洲事變後 滿洲에 明鮑를 수출 못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데 滿洲國의 독립과 明鮑貿易의 장래는 크게 기대되고 있다. 또 素乾의 搬出先은 조선반도 각처에 걸치고 있어, 群山·木浦·大邱·京城 등이 주이며 대부분은 大邱市場을 거쳐서 전 조선에 보내진다.

이상과 같이 도내 연안에서 조개류·해조류 채취에 종사하는 해녀는 약 1만 명에 이르며 그 漁獲高는 28만円에 미치고 있다.

## 出稼海女

濟州海女는 도내 본고장에서 나체 잠수어업에 종사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녀로서의 도외출가는 인구가동상 크게 주목할만한 현상을 이루고 있다.

제주해녀의 출가는 40년전인 明治28년(1895) 慶尙南道 釜山府牧島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다. 그 이후 해마다 증가했는데 昭和7년(1932)까지의 해녀출가상황을 보면

	출가해녀	송 금 액
昭和4년도	4,310명	불명
昭和5년도	3,860명	908,000円
昭和6년도	3,950명	687,350円
昭和7년도	5,078명	1,100,000円

〈내역〉	内地 1,600명
(昭和7년도)	朝鮮 3,4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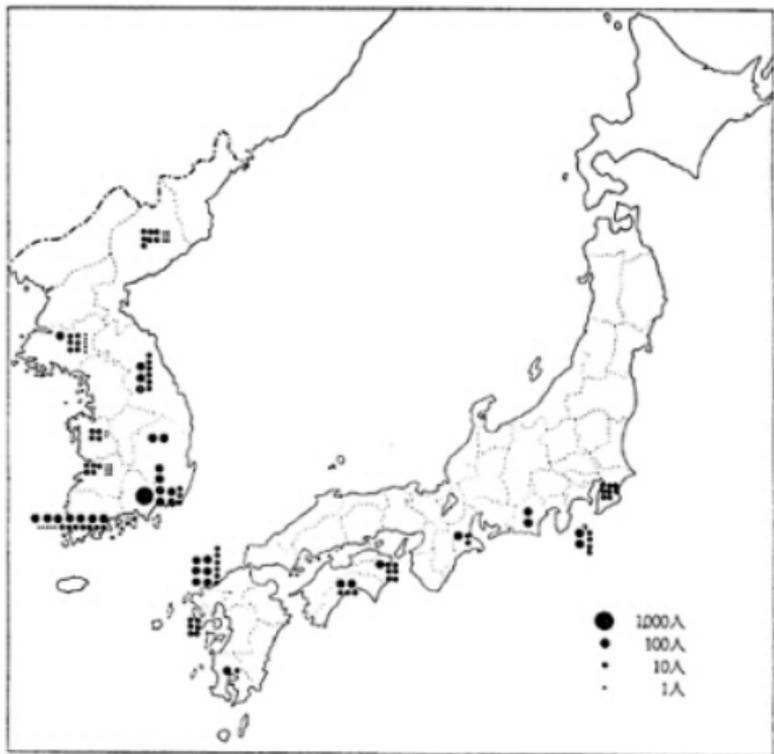
에 이르고 있으며 해녀에 의한 수익금은 실로 1백40만円の 거액에 달한다.

그 분포는 가장 근거리인 全羅·慶尙의 각 南道와 日本 長崎縣의 츠시마(對島)가 가장 많다. 특히 전년인 昭和6년에는 威境北道에까지 진출(10명)해서 朝鮮半島의 日本海岸전역에 걸쳐 있다.

또 黃海斜面은 日本海斜面에 비해 해녀의 출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암석해안

이 많지 않은 외에 潮汐干滿의 차가 몹시 커서 해안어장에 적합치 않은 때문이며 黃海道에 약간 많은 숫자를 보이는 것은 황해사면 특유의 해안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内地에의 출가해녀들은 對馬島가 가장 많으나(그림1~15참조)<sup>11)</sup>, 그밖에 분포된 각 府·縣은 그 차가 작고, 더구나 太平洋연안의 모든 縣에 편재되고 日本海연안에 전무한 것은 半島部인 日本海연안 전역에 걸쳐 출가해녀의 본포가 보이는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14〉 濟州島出稼海女の 分布 (昭和7年)



출가는 어기를 좇아 출어하는 것이지만 해류에 의한 수온관계로 南鮮의 어기는 빠르고 北鮮은 늦다. 또 日本海연안은 빠르고 황해연안은 늦다.

출가는 매년 2월경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慶尙南道와 全羅南道의 비교적 근거리로 출어해 점차 북쪽으로 옮겨 8월말을 한도로 귀도해 가을건이에 종사하게 된다.

출어방법으로는 慶南 慶北 全南 全北 쓰시마(對馬) 등 지방에는 대부분 5톤의 범선으로 출어한다. 배에는 보통 해녀 12~15명이 타며, 나이는 17~30세까지가 많아서 가장 능률 높은 해녀들인 것이다.

그밖에 선장 1명 사공 1명 내지 2명이 승선해 6개의 노로 해녀도 함께 저으면서 식료품과 그밖의 물건도 준비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때는 같은 배안에서 생활하며 음료수, 식량 연료 등은 그곳에서 보충한다.

또 기선편으로 黃海道 江原道 咸境南北道 등지로 출어한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집을 빈다든지 해안에 오두막을 지어 조업중에는 거기서 간단한 생활을 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저축한다.

기선에 의한 內地(註=日本 본토)에의 출가는 쓰시마를 제외하곤 모두가 오사카(大阪)를 경유하여 출가한다.

大阪와 濟州島와는 특별한 경제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朝鮮郵船, 尼崎汽船, 鹿兒島商船 등이 경쟁적으로 여객을 실어 날르고 도중에 모지(門司) 시모노세키(下關) 등지는 기항을 하지 않고 가장 값싼 운임으로 渡阪을 시켜서 다시 목적지로 기선편이나 철도로 출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활약해온 이세(伊勢)의 分銅해녀를 점차 쫓아내어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특색은 이세해녀나 그밖의 日本해녀와 비교해서 임금이 싸고 능률이 비교적 높다는 데 있다.

제주해녀는 조업시에는 태왁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분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깊이 잠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동해녀와 같이 해녀배나 사공이 필요없다. 따라서 체취비용이 상당히 싸진다. 전에 慶尙南道의 方魚津이나 蔚山郡의 浦項(亭子里) 등지는 50년전부터 이세해녀의 어장이었으나 明治28년의 제주해녀

진출이라 거의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연안지방에서는 해류관계에 의한 수온<sup>31)</sup>이 한여름의 7월에 평균 18.6도, 8월에 21도, 즉 7,8월에도 겨우 20도 안팎이기 때문에 이세해녀(三重縣二見鱒豆崎에 있어서는 7월이 29.2도, 8월 26.5도)는 1개월조업중 겨우 1주일밖에 견디내지 못하는데 반하여 濟州해녀(朝鮮 南海안에서는 7월이 22.8도, 8월 22.7도)는 15일간의 조업을 견디낼 수 있고 하루의 취업시간에 있어서도 제주해녀가 월봉히 길다. 결국 조업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은 여러조건때문에 점차 이세해녀들은 축출을 당해 昭和4년 이후 이세해녀는 조선반도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 朝鮮半島에의 출어와 入漁權

예전부터 조선연안의 주민들은 어업에 관해서는 가장 냉담해서, 더구나 바다 밑 貝藻類에 대해서는 거들떠보는 이도 없었다. 하물며 반도부의 부녀자들은 오랜 인습에 따라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裸潛해녀어업과 같은 것은 육지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연안어업에 대한 專用漁業權의 設定<sup>32)</sup>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풍성한 어장을 향해 타지에서 자유로이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연안주민이 겨우 그 어업利權에 대하여 눈을 뜨고 어업권을 문제삼기 시작한 때에는 이미 제주해녀들은 全朝鮮에 진출하여 확고한 기반을 갖고, 大正4년 朝鮮漁業令제정에 즈음해선 제주해녀어업조합의 이용으로 조선 전연안의 해변어장에 入漁慣行保存登記를 하고 조합으로서 入漁權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특징인에 주어지는 어업권과는 달리 조합이 입어권을 갖고 있어서 영원한 조합원인 제주해녀는 입어를 해서 반도인이 버려버린 어업이권을 독점할 수 있게된 것이었다.<sup>33)</sup>

内地의 출어해녀는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내지에서 제주해녀의 출가지로 가장 오래된 곳은 東京府의 미야케지마(三宅島)로 明治36년 金寧의 사공 金丙先씨가 해녀 수명을 데리고 출가한것이 그 시초이다. 그후 그곳에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쉰씨는 매해 다수의 해녀를 거느려 출가하게 되었는데 昭和7년8월현재로 三宅島坪田村 三池浦에 \*靜面과 舊左面 사람 2백40명이 나와 있다.

또 靜岡縣賀茂郡仁科村이나 田方郡 三重縣南牟婁郡 千葉縣安房郡 등지에도 진출해 있다.

鹿兒島縣에의 출가는 熊本縣人으로서 舊右面(輪林面)高山里에 거주하는 아카미(赤見)씨가 제주해녀를 鹿兒島에 보내고 싶다는 오랜 희망을 昭和2년에 이르러 실현시키고, 3명의 해녀를 출어시킨것을 시초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昭和7년8월 현재로 출가해녀는 90명에 달하고 있다.

高知縣의 해녀는 昭和3년 鹿兒島縣에의 출가도중에 安芸郡에 표착된 데서 시작되어 그후 수년에 걸쳐 2백30명의 많은 수가 출가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安芸에서 幡多郡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德島縣海部郡穴喰에 까지 진출했는데 穴喰에서는 1백60명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이를 원격지로 온 해녀의 대부분은 여기에 따라 通漁하는 사람들이로서 그 땅에서 해를 남기는 이는 극히 드물다.

## 濟州島海女の 地理的 意義

이상은 濟州島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의 한 요소가 되는 제주해녀에 대한 地誌學的 연구의 일단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요컨대 絶海の 孤島의 위치와, 용암의 탁월한 해안지형 및 해저지형, 그리고 環海洋의 자연적 여러 요소들은 본도의 여성으로 하여금 원시적인 전용어업으로서 조개와 해조류를 따는 해녀어업으로 유도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日本에 있어서의 海女の 分布

① 현재 우리나라(日本)에서의 해녀의 분포상 남서일본에 있어서 限界線을 이루고 있는 점.

② 오랜 기간동안 朝鮮과 동일행정지구에 있으면서 濟州海峽을 경계로해서 해녀의 분포가 半島部와 명료한 한계선을 이루고 있는 점.

③ 朝鮮반도에서는 全無인데 반하여 濟州島는 해녀의 분포가 단연 월등하고 더우기 전국적으로도 최대 조밀지구를 이루어 반도부와는 분포상 현저한 대조

를 나타내고 있는 점.

## 2. 島内の 海女 分布

① 동해안지대가 가장 조밀하며 북서부 해안지대가 그 다음이고, 남부해안지역, 북부해안지역으로 차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해안지형 및 해저지형·조류·풍향 등에 현저하게 지배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② 해녀어업은 예전부터 본도의 海邊聚落에 있어서의 여성의 중요한 부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전용어업권이 각리에서 계경되어 있었다.

## 3. 出稼海女の 出稼地

① 半島部 사람들이 관심없이 장기간 버려져왔던 반도부의 해변을 좋은 어장으로서는 출가·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慶尙南道 연안에 진출한 일본의 이세(伊勢) 해녀등을 축출하고 다시 복진하여 日本海연안 各道로 진출, 黃海연안지대의 平安南北 양도를 제외한 각도에 출가했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② 朝鮮반도 각도의 해변어장 입어권에 관해서는 濟州海女漁業組合의 명의로 입어관행보존봉기를 행하고 영원히 본도해녀의 출가지가 확보되도록 미리 못박음으로써 장차 반도예의 출가가 보증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③ 내지예의 출가는 고용관계가 주체를 이루는데 지금까지 해당지역 해녀·어부를 갖고있는 지역 가운데 東京府 千葉 神奈川 静岡 三重 徳島 高知 鹿兒島 長崎의 諸縣에 진출해 昭和8년도에는 靑森縣 下北半島에 까지 출가계약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가고 있다.

④ 출가해녀의 본포상 특색은 濟州島의 對岸지역 즉 南鮮이나 츠시마(對馬)에 가장 많고 거리와는 거의 반비례해서 감소하고 있다.

⑤ 출가해녀는 半島部에선 日本海연안 전역에 그 본포를 볼 수 있는데 반하여 内地에서는 일본해연안은 전무하고, 太平洋연안에만 편재되어 있음은 본포상 현저한 相違點이라고 하겠다.

⑥ 昭和8년에는 内地의 日本海연안지방에 출가어장조사를 위해 출장을 간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 앞으로 5~6년사이에는 分布圖上 출가해녀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⑦ 제주도의 해녀어업의 발생에 관해서 본도 독자적인 자연발생인가, 혹은 츠시마(對馬馬), 고토(五島)풍 내지해녀의 영향에 의한 모방발생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후일의 연구로 미룬다.

끝으로 본 논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지도를 베풀어주시신 다나카(田中啓爾) 교수에 대하여 여기에 삼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지에서 여러가지 자료와 조사의 편의를 주신 濟州島司 다구치(田口靛憲)씨, 그리고 島廳의 여러분, 濟州海女漁業組合의 이사 金根善씨, 주임 柳田義美씨, 제주전기주식회사 전무취제역 萩原駒藏씨 金丙生씨 金祚鉉씨 金承玉씨 기타 도내 유지 여러분께 사의를 표한다. (昭和8년8월/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

## 濟州島人の 内地出稼

昭和7年(1932) 이래 제주도에 대한 地誌學的 연구를 마음먹고 그 결과를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도 또한 그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문제의 대략은 昭和9년11월 東京帝國大學에서의 日本地理學會總會에서 발표하고 그 요지는 「지리학개론, 昭和10년1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濟州島에 있어서의 인구이동문제에 관해서는 出移動 入移動 및 島内間 이동 등의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출이동중에서도 주로 内地出稼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濟州島人(이하 본도 재적 조건인을 가리킴)이 최근에 내지출가가 현저한 사실은 뜻있는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그것은 조선인의 내지출가는 해마다 증가일로를 거듭하고, 경제적 사회적 중요문제가 되어 몇년전부터 당국에 있어서도 半島部出移民의 동향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것은 본도인의 内地에의 이동이 그 증가의 중요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선인의 内地出稼 총수에 관해서는 朝鮮總督府의 통계에 内地<sup>33)</sup> 在住 朝鮮人은 大正14년12월말 현재 13만3천7백10명이라고 되어있으나 출가자수에 대하여는 발표된 바가 없다. 또 內務省保安課에서도 극비로 붙여져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비율은 구하기 어려우나 「조선인<sup>34)</sup>의 인구현상」중의 内地渡航者項에는 「内地在住 조선인수는 지리적 관계상 남선지방의 사람이 많고 북선지방 사람은 국경을 넘어 滿洲 시베리아쪽으로 나가는 수가 많다. 南鮮지방중에도 全羅南道, 그중에도 濟州島사람이 다수를 점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慶尙南道 慶尙北道の 순이며 京畿道 全羅北道 忠清北道 사람들도 적지않다」고 되어있다.

한편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수는 昭和9년4월말 현재로 5만53명으로, 그중 남자가 2만9천3백65명 여자가 2만6백88명에 달하며 全島 총인구의 25%에 이른다. 이는 조선에 있어서의 内地出稼의 중요한 한 지역을 형성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본도의 사회상 경제상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인의 内地出稼分布, 供給地域 출가지에 있어서의 종사직업, 출가자의 소질, 출가계절과 농업노동배분, 출가자의 推移와 그 助長性등을 합쳐서 이들 출가이민의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하여 논술하고, 그럼으로써 본도인의 내지출가는 본도가 지니는 지역성의 중요요소의 하나라고 하는것을 구명하고자 한다.

## 濟州島人の 内地出稼地域과 그 供給地域

### 1. 濟州島人の 内地出稼地域

昭和9년4월말 현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内地出稼地域別統計를 갖고서 분포도(그림1~16)를 작성해보면 매우 흥미있는 분포현상을 나타낸다. 즉 千葉縣以西의 東海沿岸諸縣 南西日本の 近畿 및 瀬戸内海연안, 그리고 北九州에 많고, 東北日本 北陸 및 山陰의 日本海편에는 적다. 그러나 얼마 안되지만 북은 北海道 樺太, 남은 台灣 南洋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전혀 제주도인이 없는 곳은 冲繩·宮崎·鳥取·石川·富山·群馬·栃木·茨城·山形·岩手の 10개縣이다.

분포상 偏在性이 현저해서 가장 조밀한 집단구는 ①近畿區 ②東海沿岸區 ③山陽區 ④北九州區의 4개지역이다.

近畿區는 출가자총수의 88%강을 점하며 그 중에는 大阪府內가 가장 많아서 그 대부분이 大阪 시내 在住者로서 3만7천9백38명에 달하며, 이는 출가총수의 75%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는 京都府의 2천3백8명 兵庫縣의 2천63명, 和歌山縣 1천5백83명의 순으로, 京阪神을 중심으로한 近畿의 여러府縣에 그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東海연안구에서는 東京의 1천7백1명이 최대이고, 그밖에는 현저하게 감소된다. 그리하여 비교적 근거리에 있고 인정 풍속 언어풍 생활양식이 유사한 朝鮮半島部에는 극히 적으며 다만 특수노동이고, 반도부사랍에게는 할 수 없는 나제잠수어업에 특수기능을 갖고 있는 제주해녀<sup>37)</sup> 38) 만이 현저하게 진출하여 昭和7년도에는 3천4백78명이 출가하고 있다.

만 노동에서 출가자수는 거의 문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유사한 경제사정에



〈図 1-16〉 濠州島人 出稼先 (昭和9年 4月末現在)

놓여있는 조선인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본도인에게는 그 출가진출의 여지가 없는것이 큰 이유인 것이다. 内地出稼者의 대부분이 오사카를 핵심으로한 대도회지, 특히 阪神공업지대에 그 대부분이 편재 집중돼 있는것은 분포중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2. 内地出稼者 供給地域

전기 内地出稼者 공급지조사를 위하여 제주경찰서를 비롯, 관내 誦月 外都 輪林 高山 幕瑟浦 中面 中文 西歸浦 西中 東中 城山浦 細花 西金軍 朝天 三陽의 15개 경찰관주재소 (그림1-17참조)의 협조를 얻어, 昭和9년4월현재의 각 관하 12면1백62개리에 관한 조사를 했다.



〈그림 1-17〉 濟州島의 行政區

주: 別別 警계도는 출원된 일이 없기 때문에 1백62개의 경계기입도를 작성함에 있어, 측량부 발행 5만분의 1 지형도를 밑그림으로 하여 順天版 제주관내개략도, 자리별 전용어업인 정도(독월)를 참고로 기입하였음. 실지조사시에는 도청 영일시 해녀소항 각 면사무소 경찰관주재소 보통학교장의 교직원 제의의 자문을 받아 5만분의 1 지형도의 도록에 기입 작성한 것으로 하여 정확을 기했지만 작인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의 주시반 대항이었다. 더욱이 세관이 된 후 신우면은 애월면, 羅石은 한양, 中은 安嶽, 左는 中文, 右는 西嶺, 西中은 西光, 東中은 東海, 羅巖는 城山, 新左는 朝天으로 면의 이름이 각기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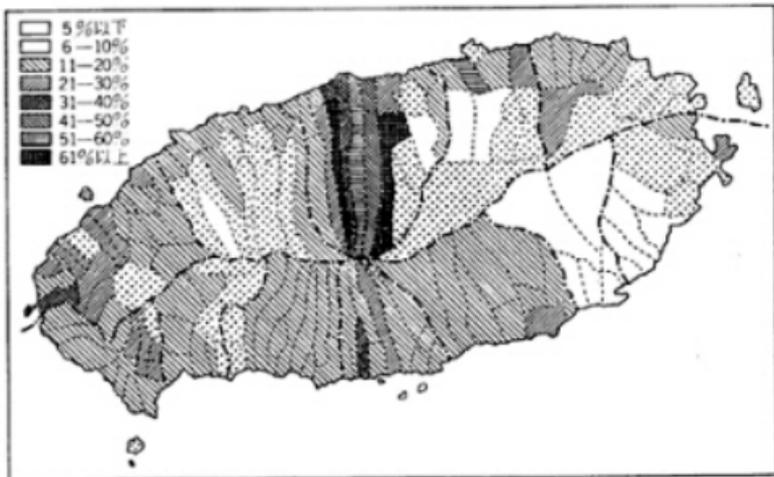
내지출가자(그림 1-18)는 대략 섬의 서반부 즉 濟州邑서부 新右 舊右 大靜 中面 左面 右面에 많으며 동반부인 西中 東中 旌義 舊左 新左 및 濟州邑동부에는 적다. 그중에서도 출가자의 집단구는 ①濟州 城內의 중심구 ②輪林중심구 ③西歸浦중심구의 3개 핵심구가 두드러진 지역이며 精確區로서는 ④表善중심구를 들 수 있다.

① 濟州城內 중심구

濟州城內의 一徒·二徒·三徒·龍潭·道頭의 諸里 및 非臨海 중간지대인 寧坪·道南·老衝 등 여러마을에서 각각 5백~9백명의 출가자를 내어 본적인구에 대한 출가자비율(그림 1-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적인구의 50~60% 이상을 나타내며 蓮洞, 寧坪里에서는 72%에 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출가자를 내지않고 있는 세대는 蓮洞 8세대, 寧坪里 12세대로, 道南里의 경우는 겨우 2세대인 것이다.

이와같이 濟州城內 및 성내주변부 농촌에 많은 것은 성내는 본도의 首邑으로 인구 1만여명의 도내 제일의 인구집단구로서 자유노동자 또한 많고, 다른 한편



〔그림 1-18〕 濟州島本籍人口에 對한 內地出稼者의 比率 (里別=昭和9年度)

오른 농가호수가 7천6백16호나 되므로써 마을마다 농가 1호당 평균경작면적의 최소지역으로, 예전부터 다른 면에 비하여 自作 및 自作家小作農이 많은 곳이다.

더우기 내지출가지로서 가장 오래되고 濟州島出稼推移 항목에서 후술하는 바와같이 大正8년(1919) 大阪鐵道방적공장으로 부터의 직공모집권유원의 최초 상륙지로서 모집지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環農村地域이었다.

당시 본도의 環狀道路가 開削되기 시작하긴 했으나 공작물이 완성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불연속적 도로에서의 교통은 말 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木浦·山地간 항로외에는 道外로의 연락항은 없었고, 물론 본도연안 周航船도 없었으며 자동차는 1대도 볼 수 없었다.

이와같이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는 濟州성내 및 그 교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부터는 용모할 수도 없고, 타지역에의 문서에 의한 권유는 出稼熱을 환기하는 데 그칠뿐 지지부진하여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후 大正12년(1923)에 환상도로가 우선 서쪽으로 개통되어 南濟州의 西歸浦에 이르고, 이윽고 동쪽으로 이어져 城山浦에 달하고, 그후 남동해안지대를 거쳐 西廻線과 西歸浦로 연결되었다.

승합자동차가 섬에 출현한 것은 大正14년(1925) 11월이며, 자동차도 또한 道路竣工順位가 도로의 가치성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성내를 기점으로 서편 56km의 幕瑟浦까지 통하고, 이어서 동쪽 44km의 城山浦로, 다시 南濟州의 西歸浦를 기점으로한 서쪽 36km의 幕瑟浦를 통하여 西半周線이 연결개통된 것이다.

## ② 輪林중심구

出移民의 제2의 집단지역은 북서부의 舊左面, 특히 輪林은 그 핵심지역이다. 각리마다 2백~3백명의 출가자를 보내어 출가비율이 21~30%에 이르렀는데 高山리에서는 32%에 달했다.

이 지방이 집단을 이루게된 이유는 전기 핵심지역에 비교적 근접하고 환상도로의 제1기개통과 최초의 승합자동차 운행지역이며 다케나카(竹中) 통조림공장을 비롯하여 제빙공장이라든지 그밖의 다른 공장의 건설은 부근주민에게 공장 노동의 체험과 내지출가에 관한 자료취위의 편의를 제공, 인접지로부터의 자극 등에 의하여 전자에 비급가는 内地出稼先進地가 되었다.

한편 도내에선 보기드문 주민의 진주성 과감성 근면성 등이 이곳을 집단지구로 만들었다. 또한 도내제일의 인구조밀지구로서, 區内 1평방km당 1천7백98명의 큰 밀도를 지니고, 호당경지면적은 濟州邑에 다음가는 협소구역인 점등이 더욱 출가를 조장했다는 사실을看過할 수 없다.

### ③ 西歸浦중심구

행정상 右面에 속하는 구역으로, 각리마다 1백~3백명 남짓한 출가자를 보내고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法遠里는 3백30명남짓, 下峯里는 2백명이상을 송출했으며, 비율에 있어서 好近里는 35%에 이른다.

이 지역은 도내 제일의 자연적良港인 西歸港을 갖고있고 특히 당국이 内地人 移住漁村의 창설에 즈음하여 제1차로 선정된 곳이다. 내지인 56호 61세대를 포함하는 濟州城內 다음의 내지인거주자 집단지역인 것이다.

漁期에는 内地通漁船이 항내를 배워 크게 활기를 띤다. 그때문에 내지인과 접촉, 내지 사정의 청취에 용이한 환경을 갖게되고 직·간접으로 내지도항을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環狀道路의 개통과 함께 南濟州의 송합자동차 기점이



〈그림 1-19〉 濟州島人 内地出稼者의 里別分布 (昭和9年)

되고 島支廳이 있다는 것 등도 출가축진의 원인이 되었다. 阪濟항로가 개항되면 서는 南濟州 최초 유일의 기항지로 된 사실도 出稼者誘導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表善중심구

섬의 남동부를 차지하는 출가 희소지역으로 행정상으로는 東中面 및 旌義의 북동부를 제외한 지역이다.

東中面은 중간지대 城邑의 70명을 최다로해서 만 지역은 어느곳도 50명이하의 구역인데, 본적인구에 대한 출가비율도 각각 5%이하이다.

그 稀疎이유는 지리적 위치의 관계상 섬중심지역과 떨어져 있어 가장 淳朴, 保守의 屯 농촌지역으로 첫째 주민의 성격과 환상일주도로 및 자동차개통이 가장 늦어진 지방이기때문에 출가자극이 미약한 탓이다.

한편 좋은 항구가 없고 여름에는 남풍풍이 강하여 阪濟항로의 개항후도 기항이 안될때가 종종 있다. 더우기 돌아올 때는 北岸을 西廻하여 최후의 상륙지가 되므로써 阪濟간 여러항구중 최장거리가 되고 돌아오는 최초의 기항지 金擘에 상륙해서도 육상교통관계상 값비싼 자동차요금과 숙박 필요가 생겨서 교통비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같이 섬 남동부에 위치해서 오사카에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廻線관계상 거리적으로 가장 먼 거리가 되고 있다. 더우기 이 구역은 도내인구의 최대희소지역으로 면내의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4.58정보, 濟州郡 및 舊右面の 약 3배의 경지를 가져, 노동력부족때문에 도내제일의 休閒耕地率을 보유한 지방이라는 것 등이 출가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從職業構成과 主要職工供給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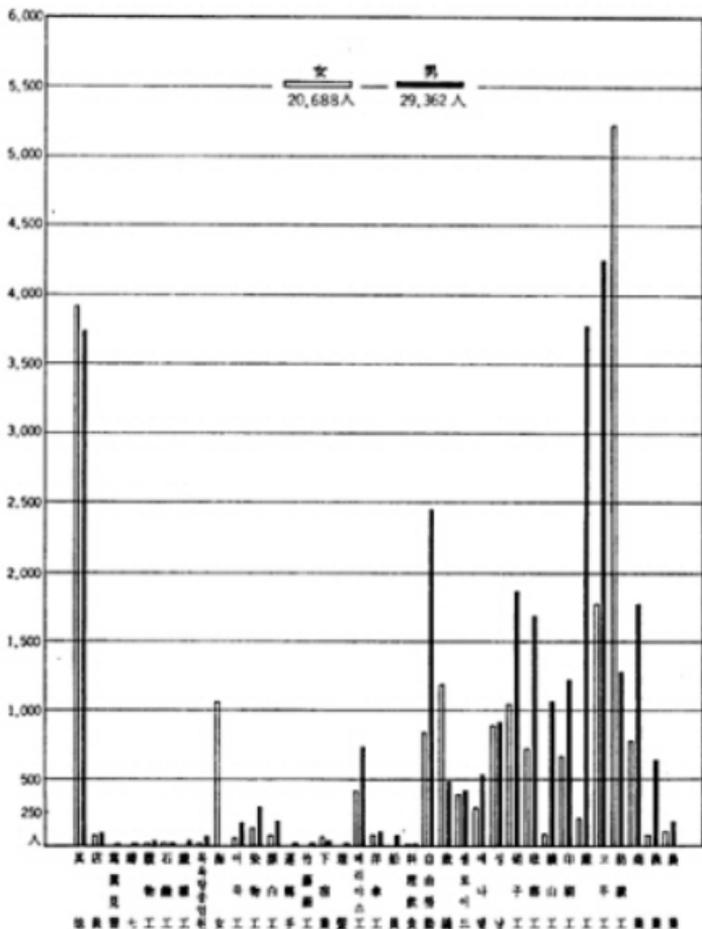
### 1. 出稼地에 있어서의 從職業構成

濟州島人의 내지 출가의 종사직업별인구는 出稼分布圖上(그림 1~16)으로 도 알 수 있지만 도내 12개소의 경찰관주재소에 제출된 집계를 얻어 작성된 것이 그림 1~20이다.

이에 따르면 34종류나 되는 많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농업이 2백44명으로 전체의 0.5%약이며, 어업은 6백87명으로 1.3%, 상업 6%, 66%강이 공업 즉 공장노동자로 되어 있다.

남자직공가운데 특색있는 것은 고무공이 4천2백8명, 鐵工이 3천7백94명, 유



◻ 圖 1-20 濟州島人 內地出稼者 職業別人口 (昭和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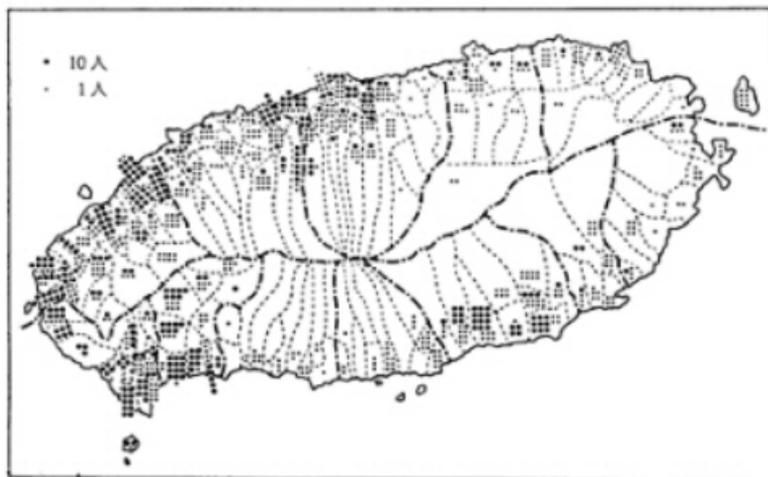
리공 1천8백77명, 磁器工 1천6백71명 등이 주된 직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지인의 내지에 있어서의 출가에선 남자출가<sup>1)</sup>의 첫째는 漁勞이고, 그 다음은 酒造, 炭鑛 그리고 賣藥의 순이며 이 4종류가 출가직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자쪽에서는 製米를 필두로, 방적 양잠 찾있따기 직물등 5대출가직종이 내지인에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濟州島출가의 경우엔 勸業工이 단연 최고인 5천3백7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고무공 1천7백56명, 미싱재봉공 1천1백83명, 유리공 1천50명, 성냥공 9백45명등이 특색을 이루어 내지인의 경우와는 두드러지게 다르다.

방적공이 많은것은 본도인의 출가가 방적회사의 방적공모집에 그 시초를 두고 있는것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 말한것 이외의 직업에서 절대적으로 남자들만이 차지하고 있는것은 선원의 1백3명과 목욕탕종업원 56명, 이발업 12명, 운전수 10명, 사진공 4명, 辯士 1명 등이다.



〈그림 1-21〉 濟州島出稼勸業工의 里別出身地 (昭和9年)

또 여자만이 갖고 있는 직업은 전술의 어업자 외에 출가해나가 1천93명이나 되는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통계의 조사시기는 4월말이지만 해녀의 최고출어기인 6월에는 2천명을 돌파한다는 것은 朝鮮半島部나 그 島嶼部에선 볼 수가 없는 본도 독자적인 현 상 으 로

拙著 '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研究'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데 이는 인구이동의 가장 특색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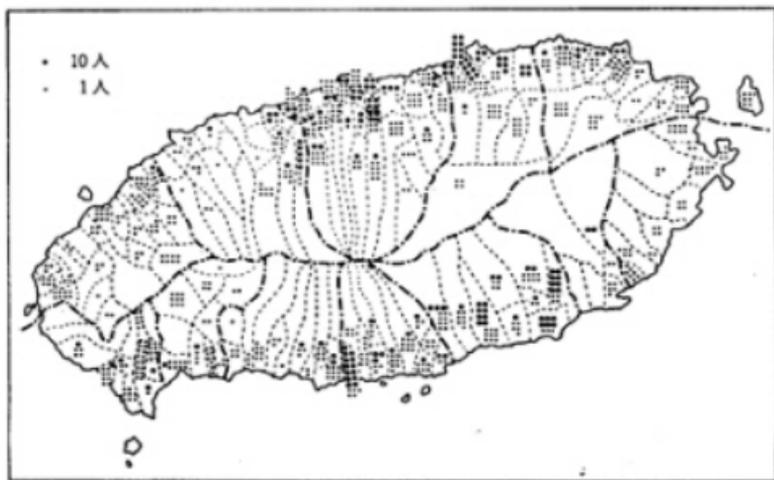
그외에는 자유노동자 3천2백63명, 하숙업 1백7명, 요리음식업 17명중인데 요리동도 내지인 상대의 조선요리업 경영이 아니라 단독출가자의 집단지구 즉 수력발전소 기타 土工 도카타(土方) 등 집단공사장 부근을 중심으로 마치 군대와 병참부대의 그것과도 같이 하숙업 요리음식점은 반드시 부수해서 이동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출가자중에 농업노동자가 적은 것은 고향이 主農業地帶로서 農繁閉期가 일지 되고 노동보수가 다른 그것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며 전기 2백44명의 농업노동자는 보수보다 良農이 되고자하는 集約營農見習者이며 어업의 경우도 같은 이유가 발견된다.

## 2. 主要職工 供給地

직공중에 최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방적공으로 고무공·철공·유리공등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2,3종의 직공의 출신지를 검토해보면 최대다수를 점하는 방적공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4.2배에 달하며 그 다음인 고무공은 남자가 거꾸로 많아서 여자의 3.1배가 된다. 방적공의 출신지별 분포도(그림1-21)에 의해 3개의 집단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濟州城內중심구 翰林중심구 奉聖浦중심구의 3핵심지역으로서, 앞의 2者는 그림1-18의 出稼供給중심지구와 일치하고, 후자는 그 인접구에 위치한다. 이들 핵심지역이 목화재배 手勛가내공업지역과 일치하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고무공(그림1-22)에 대해서 살펴보면 北濟州는 대개 濟州城內를 중심으로한 지역과 그 동쪽이웃인 朝天중심구에 많으며 서쪽이웃인 新右面은 적다.



〈그림 1-22〉 南洲島出稼고무工的 別出身地 (昭和9年)

南洲에서는 西歸浦를 중심으로하는 右面 및 東쪽이웃인 西中面에 많고 남동부인 東中 旌義 2개面은 적다.

그밖에 철공·인쇄공·법랑공·유리공·성냥공·에나멜공·세르로이드공·染織工 등에 대해선 각각 1백62개리에 대해 各里別供給狀況을 조사한바 있으나 여기서는 詳論을 생략한다.

이상 단순히 2~3개를 읊미한데 지나지 않으나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할 결과 같은 종류의 것이 어떤 지구에서 그 집단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理法의 잠재성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 出稼者의 素質

### 1. 出稼者의 性別

昭和9年(1934)의 출가자들을 성별로 검토해보면 절대수에 있어서 남자 2만9천3백65명 여자 2만6백88명으로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 70명의 비율이다.

이 숫자가운데는 幼年 不生産階級인 15세이하의 남자 3천8백12명, 여자 3천5백86명을 포함하며 또 육체노동 불생산계급인 50세이상의 남자 7백1명, 여자 6백47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숫자가 대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는것은 온가족이 출가한데서 나타난 숫자로서 불생산계급을 제외한 생산연령자 15세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은 남자가 2만5천50명, 여자 1만6천4백67명으로, 남녀비율은 남자 60%, 여자 40%이며, 내지인<sup>41)</sup>의 内地間出稼 남녀비율인 남자 54% 여자 46%에 비하여 여자가 약간 적다.

이상 말한 濟州島의 인구통계는 昭和9년(1934)의 조사이며 内地의것은 大正11년(1922)의 통계이지만 濟州島人의 출가초기인 大正11년의 남녀비율은 남자 91%, 여자는 겨우 9%로서, 남자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이 다음해인 12년에는 남자 88%에 대하여 여자는 겨우 12%가 되고 그후 여자의 출가는 증가해왔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극히 낮아서 그 때문에 内地는 남자의 출가지역이라고 말할정도로 특수지역이었으나 昭和6년(1931)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여 남자 60% 여자 40%가 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濟州島의 생산연령계급 특히 徵兵適齡期 남자가 内地의 그것과 비교해서, 하동 징병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勞力剩餘期를 자유로이 출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지인출가 남녀비율에서 남자가 웃도는 원인의 한 요소가 된다고 여겨진다.

원래 濟州島에 있어서의 인구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인구가 월등히 많고 그 통계로 얻을수 있는한 도내에서 작성된 것이 그림1~23이지만 여자<sup>42)</sup>인구는 항상 남자를 웃돌아 출가현상 출현이전부터 여자가 많아서 耽羅<sup>43)</sup>의 여러 풍속 항목 중엔 「女多男少」라고 나와있다.

가장 정확한 조사결과가 되는 大正14년(1925)의 국세조사에 있어서는 남자 9만5천2백80명, 여자 10만9천34명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많은것이 실로 1만4천7백54명이나 되며 昭和5년(1930)에는 남자 9만3천8백79명, 여자 11만1백82명으로 여자가 많은 것이 1만6천3백3명,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는 1백17명 짝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半島部에 있어서 같은 연도에는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 96명장의 비율이며 内地는 남자 1백명에 대하여 여자는 99명이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남자인구가 현저하게 여자에게 뒤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여자인구과잉의 결과 특수한 사회풍습까지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주목을 끄는데, 남자인구의 유출은 더 더욱 그 차를 크게 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2. 出稼者의 年齡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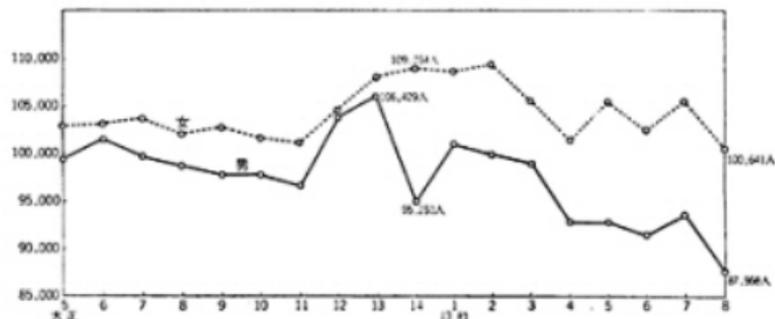
출가자들의 연령구성이 통틀어 활력에 넘치는 청장년층인 것은 출가가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생산업에 종사하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연령구성(그림 1-24)이 마름모꼴(菱型)로서 유년층은 극히 적고 청장년층은 두드러지게 많다. 또 노년층에 가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는 사사키(佐佐木彦)理學士가 말한바 양과<sup>41)</sup>모양(玉璽狀) 연령구성에 해당 하는 것인데 그는 이 형태를 「도회성」의 한 요건이라고 했으며 다케미(武見)이 학사는 「入移民地性」<sup>42)</sup>이라고 칭하였으나 필자는 「出稼年齡性」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연령구성은 도회성의 경우보다도 한층 양과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출가자 연령가운데 16세부터 40세까지의 생산연령계급자는 16~20세는 남자 4천2백47명, 여자 3천4백81명, 21~25세는 남자 6천6백91명, 여자 3천5백15명, 26~30세는 남자 5천4백22명, 여자 3천8백22명, 31~35세는 남자 4천2백53명, 여자 2천6백70명, 36~40세는 남자 2천9백55명, 여자 1천8백28명으



〈그림 1-23〉 濟州島의 人口(性別)推移

로 합계 3만8천8백84명에 달하며 총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최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계층은 21세부터 25세까지로, 1만2백6명에 오르며, 특히 남자가 66%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키나와(沖縄)도민의 내지출가자에 있어서 여자<sup>4)</sup>가 남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것과 흥미있는 대조로서 이 연령기의 남자가 본도에서는 정병과 무관계인 때문에 남자가 월등히 많은 중요한인이 되고 있다.

半島部女性이 집에 들어앉아 비활동적인 것과는 전연 사정을 달리하는 것이다.

여성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본도에 있어서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흥미있는 경향이다.

### 3. 教養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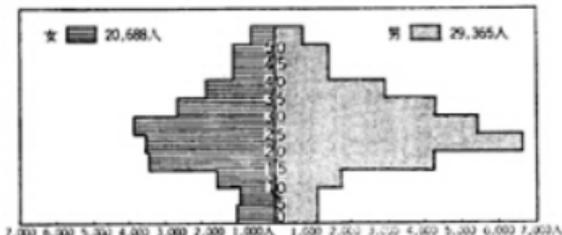
출가자총수 5만53명의 교양정도는 昭和9년(1934) 현재 제주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無教育者가 3만3천7백15명으로 실로 총수의 67%강에 이르고 있다.

이 實數가운데 자료관계상 10세이하의 出稼隨伴者인 유소년자 4천1백4명을 제외하고도 아직도 59%의 문맹출가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남녀별로 보며는 남자가 1만4천9백21명으로 총수의 50%강을 차지하며 여자는 1만8천7백94명으로 실로 91%에 달한다.

修學者 1만6천4백46명 가운데 書堂수업자는 1천9백62명으로 그 비율은 72%강을 점하고 그밖은 新制教育修業者이다.

서당수업자는 남자 1만8백52명, 여자 1천1백10명인데 이 비율은 9대1이다.



<그림 1-24> 濟州島人內地出稼者の 年齡構成 (昭和9年)

〈表 1-6〉 濟州島人의 內地出稼者 供給 家庭調査(昭和9년 4월말 현재)

		全家族 渡航戶數	50세이상 20세미만 전류	여자와20 세미만자 전류	40세이하 20세이상 2명까지 전류	전가족 만수이상 20~40세 전류	渡航戶數	非渡航 戶數	계
농 업	수작	14	111	36	191	99	451	690	1,141
	지작	102	1,110	1,362	2,852	2,573	7,999	6,536	14,536
	지작겸소작	578	1,694	1,858	2,670	2,430	9,230	4,733	13,963
	소작	954	1,929	1,331	1,909	1,745	7,868	3,249	10,117
어 자 용 업	업	155	472	351	427	450	1,862	1,706	3,568
	노동	200	22310	194	289	188	1,094	364	1,458
상 업	업	192	95694	95	116	168	666	497	1,163
공 무	업	32	58929	66	66	29	251	59	310
	직	421	284	193	122	56	1,076	134	1,210
계		2,648	5,983	5,487	8,642	7,738	30,498	16,968	47,466

신제교육수업자 즉 보통학교졸업자는 남자 3천6백8명, 여자 7백83명 합계 4천3백91명으로 남자가 82%강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舊制 서당수업자들이다. 그밖은 보통학교 및 기타 학교졸업자들인데 대략 교육정도는 낮고 무학문맹자가 많은것은 南部 이탈리아의 出移民의 경우와 흡사하다.

5만여명의 출가자를 보내고 있는 가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내세대의 이동을 살펴보면 昭和9년4월현재 제주도인 세대수 4만7천4백66호중 출가자가중을 얻고서 도합한 호수는 3만4백98호로 실로 64%의 출가호수를 보이며, 그 내용은 표1-6에서 보는바와 같이 1세대당 평균 1.1명의 출가자를 보내고 있다.

더우기 한집안 모두가 출가한 호수에 있어서는 농업 1천6백48호, 어업 1백55호, 상업 1백92호, 공업 32호, 자유노동자 2백호, 무직 4백21호중 합계 2천6백48호로서 全島출가호수의 9%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술한 유년불생산계급인 7천3백98명, 노년불생산계급인 1천3백48명 등은 一家전체출가 가족중에 그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이다.

더구나 일가전체의 출가도 문을 잠가 놓고서 쉽게 도합하고도, 부제중에 거의 도난등의 염려가 없다 한다. 그것은 分家제도와 음료수 등 관제로 극단적인 集村聚落을 형성해 통일구내의 대지에 수세대가 있고 田畵에서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으로, 자연히 출가하기에 편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간소한 생활과 외따로 떨어진 孤島인 지리적환경등은 이런것들을 잘 防犯해주고, 경찰의 감시망도 유감없이 퍼져서 도항에는 도항허가증이 필요하며, 범인의 탈출은 우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출가가 성행되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도 비교적 윤택해서 섬에는 공립자가 적고 거지 같은자도 필자가 몇차례에 걸쳐 당사중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가전체의 출가를 용이하게 해주고, 농업기에는 섬에, 농한기에는 내지로 適時適所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은 계절적 出稼移民을 “Golondrinas (스페인어로 ‘제비’)”라고 부르는데 내지에서도 눈많은 지역에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태평양지역(表日本)에 일시적으로 入移住하는 사람들을 ‘찌드레기(掠島),’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50세이상 20세미만자를 본집에 있게하고 가장 활력있는 생산연령계급자만의 출가 호수는 5천9백83호로 渡航호수의 20%, 여자 및 20세미만자를 남겨둔 출가 호수는 5천4백87호로, 18%나 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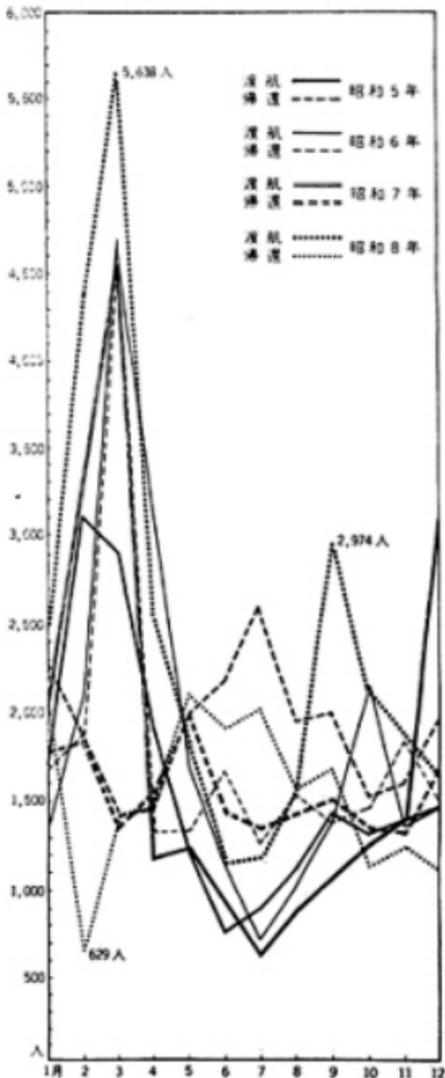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内地에서는 볼 수 없는 地主 및 自作農계급자의 출가로서 전도의 지주 1천1백41호 가운데 4백51호가 도항호수이며 자작농에 있어서 9백99호 즉, 전 자작농의 55%강이 출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작경 소작농, 그리고 소작농에 이르러서는 66~77%에 달하며 섬의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바가 다대하다.

## 出稼季節과 섬의 營農勞力配分

出稼移動에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入稼地에 있어서의 노동수요관계 즉 養蠶出稼, 찾임따기출가, 어로출가등이다. 농업자의 출가는 營農開期를 이용한 잉여노동의 이동이기에 계절성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게 된다.

제주도민의 계절적이동조사를 위해 昭和5년(1930)부터 8년(1933)에 이르는 최근 4년간의 月別出稼渡航, 거기예다 귀환자의 이동조사를 각 경찰서를 통해 조사한 것이 그림 1~25이다.



〈図型 1-25〉 昭和5~8年の 濟州島  
内地出稼者の 月別變化

출가에 있어서는 出稼渡航許可證 수령자의 승선, 하선에 즈음해서 제주경찰 본서 기타 15개 경찰관주재소 및 기선회사의 협력으로 조사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 위에 販濟間 향로의 기선 안에 있어서도 선재 전원을 동승한 이동경찰관 및 선원의 협력하에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이것들은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1~25에 의하면 1년에 2개의 봉우리를 나타낸다. 즉 도항자수는 2월에 들어 급증하고 3월에 이르러 최고에 달했다가 점차 遞減하여 6, 7월에 들어서는 極小이 되고 8, 9월에는 재차 증가한다. 그러나 후자의 增加指數는 전자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귀환자의 변화에도 2개의 골짜기가 나타난다. 즉 도항자의 極大月인 3월에 극소가 되었다가 점차 그 수를 증가, 7월에 이르러 커지고 재차 감소한다.

도항자수 및 귀환자수를 나타내는 線에 매년 공통적으로 거의 동일시기에 2개의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음이 이동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자의 2개의 봉우리와 후자의 2개의 골짜기와의 각달은 거의 동일하며 그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시말하면 도항자의 最多月은 귀환자의 最少月이며, 도항자의 최소월은 귀환자의 최대월이 되고, 그것은 도외에 유출하는 노동력의 귀농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해서 最多渡航月은 매년 3월이며, 특히 그 수에 있어서도 1933년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4천5백명전후에 항상 그 수적일치를 보인다.

가을철엔 우란분(孟蘭盆: 음력 7월 15일의 中元명절)을 마쳐 9월에 출가하는 것인데 그 숫자가 전자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짧은 것과 여름농사의 豐凶에 상관관계에 따른다.

특히 제주도의 농업은 필자가 이미 보고한바와 같이 본도 중앙에 높이 솟은 화산 1천9백50m의 主峰 한라산 주위에 널려있는 緩傾斜部인 2백m이하의 벌판에 전개되는 9만4천9백여정보의 광활한 경지는 논이 겨우 9백57정보밖에 안되며 주로 밭농사 지역이다.

따라서 재배하는 주작물은 맥작이 첫째이다. 그중에서도 大麥(濟州倍取)이

75%를 차지하며 小麥(江島神力, 赤連華) 裸麥(竹下·熊本島原) 大豆(長齒·赤殼) 조(稷, 強突粒·青味實·濡) 고구마 등 비교적 限定糧作物로서 자급자족을 기조로 하는 영농법은 粗放 농업이 된다.

조 과종과 같이 5월 하순으로부터 6월 하순 사이에 밭에 平播)고 과종과 동시에 밭 심수두에서 수심두를 풀어 진압하는 특별한 건조농업이 이루어지며 陸稻 大豆 고구마 목화등의 과종과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본도 주작물인 대맥·소맥의 수확과 정곡, 여름철의 제초 10~11월의 여름작물 수확, 겨울작물의 파종으로 5월말에서 11월말까지는, 그 사이 얼마간의 繁閑不連續은 있으나 대개 농번기가 계속되고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농한기가 되는 것은 표 1~7<sup>(4)</sup>의 海岸地帶非出稼農家面別營業概況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노동일수는 農閑期月은 農繁期月의 5분의1에서 10분의1로서, 농한기월에는 2분의1에서 3분의1의 노동인원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으며 내지의 多角的集約農業에 대하여 노동임여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도 당국의 장려로 곡류 이외의 각종 공예농작물의 재배가 점차 행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원시적 조방농업으로, 아직도 試作期를 벗어나지 못해, 섬의 농가경제를 支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잉여노동의 커다란 마무리기간이 있게 마련이어서 출가자들을 보다 많이 내지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섬이 위치·지형관계상 때때로 태풍의 중심이 되고 그 진로를 맞아 主作物이 재해를 입어 흉작이 될 때에는 다수의 내지 출가도항자의 격증을 보게 되는 것이다.

昭和8년 9월의 격증은 동년 8월7일 南鮮지방을 휩쓴 풍수해에 의한 흉작의 영향이며, 그 해는 비상시 군수공업의 勃興에 의한 출가자受入地의 경제적 번영에 따른 영향 및 換인플레이에 의한 수출품산업의 활황에 의한 호경기때문인데 노동력의 수요·공급 兩地間의 經濟的豊凶이 우연히 일치한 결과, 그와 같은 이상현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表1-7. 濟州島非出稼農家別

縣 別	姓 名	年 齡	勞 動 能 力	農 業 用 土 地 面 積	經 營 概 況	月 別		
						1月	2月	3月
濟 州	戸主	57	1.00	畜 0.622	水稻 0.622	18	18	21
	妻	57	0.90	田 88.844	陸稻 2.000 大麥 8.000	15	15	18
	長男	29	1.00	岱 0.724	綿作 0.620 甘藷 1.310	15	18	21
	長男妻	28	0.90	山地 7.818	粟 21.600	21	21	21
	雇男	41	1.00	其他 1.427	蕎麥 4.000 豆類 5.000	24	24	24
	計			99.715	綠肥 18.300	93	96	105
旧 右	戸主	55	1.00	畜 0.400	大麥 1.000	7	8	8
	妻	51	0.90	田 25.000	綿作 1.000	5	7	6
	長女	25	0.80	岱 0.800	小麥 1.000	5	6	6
	長男	22	0.90		甘藷 0.500	—	—	—
	二男	19	0.73		桑園 2.000	3	3	4
	計			25.800	豆類 0.500	20	24	24
大 静	戸主	46	1.00	畜 0.400	水稻 0.400 大麥 8.000	3	3	5
	妻	49	0.90	田 23.000	大麥 1.000 綿作 0.300	2	2	5
	四男	11	0.30	岱 0.600	小麥 0.400 甘藷 8.000	—	—	—
	計			25.400	粟 1.000	5	5	10
中	戸主	47	0.70	畜 0.500	水稻 0.500	—	—	—
	妻	48	0.70	田 17.700	大麥 7.000	4	4	5
	父	86	0.20	岱 0.600	綿作 1.000	3	3	4
	長男	28	0.90		小麥 0.500	—	—	—
	長男妻	24	0.80		甘藷 0.400	4	4	5
	長女	16	0.50		粟 7.000	—	—	—
計			18.800	蕎麥 0.800 豆類 0.500	11	11	14	
左	戸主	41	1.00	畜 3.000	水稻 3.000	10	8	10
	妻	43	0.90	田 18.800	陸稻 2.000 大麥 9.000	10	10	13
	長男妻	26	0.90	岱 1.000	大麥 1.500 綿作 2.000	9	6	10
	長女	22	0.90	山林 9.000	小麥 2.000 甘藷 1.000	8	4	4
	二女	19	0.70	其他 2.000	甘藷 7.000 粟 3.000	7	4	3
	三女	17	0.50		蕎麥 1.020 大豆 1.000	6	1	3
計			33.800		60	32	43	

個別營業概況 (新右面資料を除外)

労働日数											計	壮年者 換算日数	家族労働 報酬	壮年者1 人1日の 労働賃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計						
27	27	27	27	27	27	27	24	18	288			壮年者1 人1日の 労働報酬	養蜂(50群) 冠物編		
24	24	24	24	24	24	24	21	18	255						
27	27	27	27	27	27	27	24	18	285						
24	24	24	24	24	24	24	21	18	270						
27	27	27	27	27	27	27	27	24	312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17	96	1,410	日 1,357.5	円 684.50	円 0.32			
9	10	15	16	12	10	9	9	3	116						
7	7	9	9	8	9	8	7	3	85						
6	7	8	7	6	5	5	4	2	67						
—	1	—	1	—	—	—	—	—	2						
4	5	6	7	6	5	3	2	2	50						
26	30	38	40	32	29	25	22	10	320	282.9	284.10	0.41			
6	10	20	20	20	10	8	10	10	125				織物		
1	4	15	15	15	5	8	8	5	85						
3	3	10	10	10	3	3	5	3	50						
10	17	45	45	45	18	19	23	18	260	216.5	162.66	0.36			
2	2	8	10	8	5	5	8	3	51				漁業		
6	6	8	10	10	7	8	8	3	79						
2	2	3	2	2	2	2	2	2	29						
2	2	8	10	8	5	5	8	3	51						
6	6	8	10	10	7	8	8	3	79						
6	6	6	10	10	7	8	8	3	64						
24	24	41	52	48	33	36	42	17	353	237.9	166.67	0.43			
17	20	23	20	15	20	17	20	24	204				長男24歳普 通学校卒業 公吏並職員 労働留各		
13	21	23	24	20	15	20	20	15	214						
10	13	14	15	7	8	9	5	8	114						
5	7	9	12	6	8	8	5	7	83						
5	5	6	5	6	7	7	5	6	66						
5	5	6	6	6	7	7	5	6	63						
55	71	81	82	60	65	68	60	66	744	601.6	237.67	0.12			

〔表1-7의 계속〕

姓 名	世帯 別	年 齡	勞 動 能 力	農 業 用 土 地 面 積	經 營 概 況	月 別				
						1月	2月	3月		
右	戸主	50	0.60	畜	反	水稻	2,500	10	9	10
	妻	52	0.50	田	2,000	大麦	8,500	10	7	8
	長男	24	1.00	岱	13,000	綿作	0,700	15	10	15
	長女	20	0.80	山林	0,700	小麦	1,100	10	4	8
	二男	18	0.70	其他	10,000	甘藷	1,000	10	4	7
計				2,000	粟	0,200	10	4	7	
				27,000	蕎麥	6,000	55	34	48	
						豆类	2,500			
西 中	戸主	33	0.70	田	69,000	稲	3,000	8	10	10
	母	54	0.90	岱	1,000	大麦	11,000	8	12	12
	妻	35	0.80	山林	2,000	綿作	0,300	10	15	15
	長女	13	0.10			小麦	1,000	—	—	—
	計				72,000	甘藷	3,000	26	37	37
						粟	0,300			
						蕎麥	15,000			
						蕎麥	4,000			
						大豆	1,000			
東 中	戸主	45	1.00	田	90,108	大麦	6,000	13	13	14
	妻	48	0.90	岱	0,606	綿作	0,500	22	22	22
	長男	22	1.00	山林	12,620	小麦	1,000	22	22	22
	長女	17	0.80			甘藷	1,000	22	22	22
	二男	14	0.50			粟	6,000	21	21	21
計	11	0.40			其他	5,000	24	25	25	
				103,404						
旌 義	戸主	55	1.00	田	22,400	稲	3,000	5	3	4
	妻	56	0.90	岱	0,500	大麦	6,000	5	6	8
	長男	28	1.00	山林	5,700	綿作	0,200	5	2	3
	長男	30	0.90			小麦	2,000	5	5	6
	計				28,600	甘藷	2,000	20	16	21
					粟	6,000				
					蕎麥	2,000				
					大豆	3,000				
					蔬菜	0,200				
田 左	戸主	52	1.00	田	18,300	稲	1,600	3	6	6
	妻	56	0.90	岱	1,000	大麦	4,500	2	2	2
	長男	28	1.00	山林	1,000	綿作	0,600	2	5	6
	長男	21	0.90			小麦	0,600	3	4	5
	二男	19	0.90			甘藷	0,800	1	3	4
計				20,300	粟	9,000	11	20	23	
					蕎麥	2,000				
					大豆	2,600				
					煙草	0,600				
新 左	戸主	43	1.00	田	15,500	稲	2,500	2	3	10
	妻	48	0.90	岱	0,500	大麦	4,000	1	2	10
	長女	19	0.60	山林	3,000	綿作	1,000	—	—	5
	二女	16	0.60	其他	8,500	小麦	1,000	—	—	5
	計				27,500	甘藷	0,500	3	5	30
					粟	9,000				
					大豆	2,500				
					豆类	0,500				
					牧草	5,000				
					茅	3,500				

勞 動 日 數											仕 年 者 叫 換 算 日 數	家 族 勞 動 報 酬	仕 年 者 1 人 1 日 的 勞 動 賃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計					
13	20	23	16	15	17	15	20	12	180				長男23歳普通学校卒業 公吏廳裏吏 從事留音	
10	14	16	22	17	10	15	16	10	155					
22	26	26	25	24	20	20	18	20	241					
10	16	18	17	12	20	20	15	20	170					
10	14	17	18	12	10	15	17	20	154					
65	90	100	98	80	77	85	86	82	900	日 670.3	円 191.67	円 0.18		
10	12	14	16	16	17	10	10	8	141				海女作業	
10	10	16	15	18	15	12	12	10	150					
16	17	16	17	26	20	15	15	14	196					
—	5	6	—	7	5	—	—	—	23					
36	44	52	48	67	57	37	37	32	510	397.4	263.84	0.33		
16	18	23	25	25	22	21	14	13	217				가마니짜기 海女作業	
3	3	8	20	25	21	20	15	5	126					
4	6	21	21	25	25	21	13	2	145					
3	3	8	20	25	21	20	5	2	113					
4	3	8	20	25	21	20	5	2	114					
3	3	8	20	20	20	18	2	2	102					
2	2	5	5	5	5	1	1	1	34					
35	38	81	131	150	135	125	56	27	852	732.9	199.75	0.006		
7	7	7	7	9	9	10	5	4	77					海女作業 海女作業
23	20	16	15	10	10	9	7	7	130					
6	7	6	7	9	9	10	4	4	72					
15	16	10	14	10	10	9	7	7	114					
51	50	33	43	38	38	38	23	22	393	368.6	82.40	0.065		
10	12	20	27	22	24	26	26	11	193				漁業 海女作業 漁業 海女作業	
13	15	19	21	24	21	27	24	18	188					
10	12	20	26	27	24	26	23	18	199					
9	13	21	27	26	22	24	21	19	194					
5	10	20	26	26	24	24	26	11	180					
47	62	100	127	125	115	127	120	77	954	897.8	253.37	0.150		
15	20	30	25	25	25	20	5	205				網巾製造		
15	20	25	25	25	20	20	5	193						
10	15	20	20	23	23	20	15	5	156					
10	15	20	20	23	23	20	15	5	156					
50	70	95	90	96	96	85	70	20	710	585.2	204.94		0.171	

## 內地出稼의 趨勢와 그 進出助長性

### 1. 內地出稼의 轉移

이상은 제주도인의 내지출가에 대한 개요인데, 昭和9년에는 실로 5만명이상, 全島주민의 25%나 되는 특색있는 出稼供給地域을 구성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인의 출가는 극히 최근의 일에 속하는 것으로 그 급격한 증가발전도 드물게 보는 것인데 그 轉移過程에는 4기의 경과가 고려될 수 있다.

#### a. 제1기(明治40년~大正2년·1707~1913)

이 기간은 자발적출가기인데 제주도인의 내지출가 요람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 동안에는 섬의 행정구획상에도 離合改變가 있어서 그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섬안의 古老 및 내지인 최초의 이주자들인 長老 나카무라(中村鶴吉·長崎縣출신), 사이고(西郷武十·同對馬출신) 기타 몇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 北九州 西部中國 및 北四國지방의 어선이 본도근해의 좋은 漁어장에 착안, 출어하고 한창 활약했다.

원래 일반적인 어로에 익숙치 못했던 도민들은 그저 通漁船의 활약에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통어선의 활약, 어선·어구·어법의 우수성에 자극되어 통어선에 편승해 漁撈見習으로서 내지도항을 한 것이 최초로 그 수에 있어서도 1백여명에 불과했다.

※註: 당시 섬의 동쪽 城山浦해안은 방어 정갱이, 南部 西歸浦해안은 조기 고동어 방어 고대, 南西 加波島해안은 돛 번자리, 北西 飛揚島해안은 참치 돛 가다랭이, 北部濟州해협은 유명한 고동어의 어장으로써, 당시에 비해 어획고는 감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선 굴지의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 b. 제2기(大正3년~11년·1914~1922)

前期에 대하여 유발적출가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대전의 발발과 함께 日本이 미중유의 공업발전을 보게되었고, 내지노동자와 직공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므로써 마침내 노동력을 절해의 고도인 濟州로 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大阪방적공장 기타 회사의 사무원이 직공모집을 위하여 내도하고, 이에 응모해서 오사카로 도향한 제주도인은 우수직공으로 인정을 받아 수요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호황기는 더욱 계속되고 내지공업의 융성과 함께 大正8년(1919)에는 阪神공업지대로부터의 모집과 출가귀환자의 물질생활향상 및 内地紹介에 자극받아 많은 도향자를 보게되었다.

한편 福岡縣鞍手郡新入村의 미즈비시(三斐) 탄광회사의 광부모집을 위한 내도가 있었고, 이것을 인연으로 北九州의 공업지대로도 진출을 보게되어 大正11년(1922)에는 남자 3천1백98명, 여자 3백5명, 합계 3천5백2명의 출가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그림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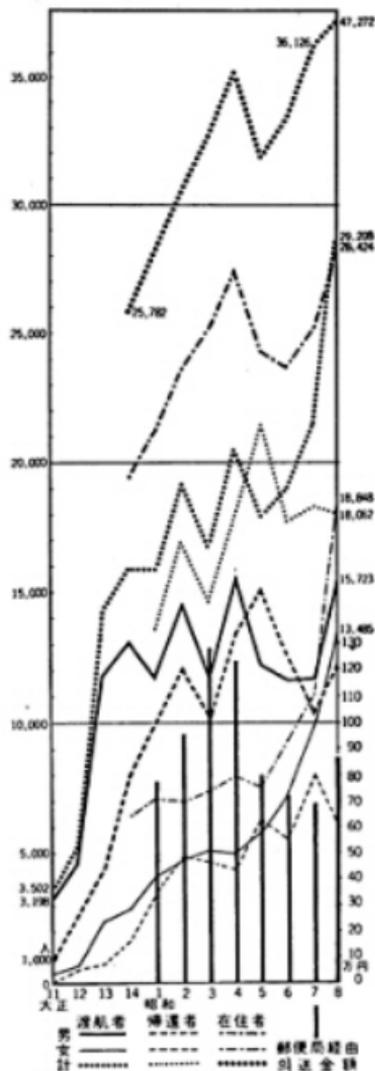
### c. 제3기(大正12년~昭和8년·1923~1933)

惰性的출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기인데 大正말기부터 직공모집원, 勸誘員의 내도는 끊졌지만, 정확한 통계가 있는 大正11년에 이미 3천5백여명의 출가자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韓旋渡航者였기 때문에 대개 안전하게 근무·노동하므로써 노동자로서의 좋은 자질을 구비, 半島部에 비하여 사회상태 풍속관습등에 순박하고 선량했다. 특히 三姓<sup>31)</sup>의 신화는 섬사람들에게는 内地를 「어머니 나라」라고 부를만큼 특수한 情操關係가 지배되고 고용자에게도 비교적 신용을 얻고 있었다.

뒤에 경제계는 不況來襲과 함께 각사가 경쟁적으로 생산비절감을 기도하고 제품판매상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본도출가자를 저임금지향의 시대에 투입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저렴한 운임이 阪濟間 거리를 시간적으로나 운임상으로도 현저하게 단축시켰다. 阪濟間 교통기관의 혁명이라고나 할까. 大正11년에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회사의 阪濟間 직통항로가 개시되고 동13년에는 朝鮮郵船의 阪濟間 정기항로가 개시되는등 오사카에의 도향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大正13년에는 일약 1만4천2백78명으로 2년전에 비하여 4배강이나 되고, 동년 귀환자는 5천1백7명으로 1년간 왕복 2만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더 나아가 14년(1925)에는 渡航者 1만5천9백6명, 歸還者 9천6백46명으로 漸增했다. 이에서 昭和2년(1927)에는 도향자 1만9천2백24명, 귀환자 1만6천8백63



〈그림 1-26〉 濟州島人內地出稼者의 年次變化와 送金額

명으로, 실로 1년간 승선자가 약 3만6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昭和4년(1929) 4월에는 東亞通航組合이란 기선회사가 창립되어 동사의 備船「伏木丸」이 취항함과 동시에 三巴경쟁이 되고, 도내 11개 기항지로부터 오사카항까지 균일요금으로 식사비까지 합쳐 3円이라는, 결손이 되는 파격적인 低廉均一 요금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무학문명자도 본고장에서 승선만하면 2~3晝夜뒤에는 직접 목적지에 상륙이 되고, 선박의 마중, 공제회의 알선등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昭和4년에는 도항자가 2만4백18명, 귀환자가 1만7천6백60명으로, 약 4만명의 출가자왕복이 있게 되고 출가자의 우편국경유 송금액을 봐도 약 1백20만円을 계상하기에 이르렀다(그림1-26). 그러나 東亞通航은 마침내 경쟁에 패배해서 昭和7년(1932) 伏木丸은 廢航이 되고 현재는 朝鮮郵船회사의「京城丸」(1천39톤) 아마가사키(尾ヶ崎)기선의「第2君代丸」(9백19톤) 등 두척이 교대로 매월 3회씩 취항, 요금도 阪濟間 8円, 16円の 2등급 균일제를 채택하고 있다.

출가민이 京阪神공업지대에 집중하고 있는것은 노동력수요의 관계도 있지만 우선은 阪濟直航의 저렴하고 안이한 교통수단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北九州에 가려면 한번 오사카에 나가 下行航路에 편승, 석탄을 실기 위하여 시모노세키(下關)에 기항하는 기회에 상륙을 해서 九州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大阪~下關간 선임은 阪濟間 선임 8円보다도 비싸다. 木浦·麗水·釜山등지 코스를 경유하는 경우는 섬과 반도간에서 이미 阪濟間 운임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특정요금제가 阪神공업지대로 濟州人 출가의 集團的인 偏在을 본포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 d. 제4기(昭和9년)

출가도항자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게 되어 昭和8년(1933)에는 도항자가 2만9천2백8명, 귀환자는 1만8천62명, 9년에는 실로 약 5만명, 전도인구의 25%에 달했고, 더구나 4만1천여명이 가장 활력 왕성한 생산연령계급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도외로 송출함으로써 말미암아 해마다 노동력은 감퇴하고 노동력의 부족은 도내임금을 올리게 했다.

귀환자는 도외의 惡風에 익숙해서 귀농시의 勞動能率감퇴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문에 현재 농가 1호당 평균경지 1町4反步를 겨우 1.5~2명이 경작하는 상

태인 것이다. 더욱이 휴한지의 改良利用이 진척되면 1호당 28반보(内地 1호당 평균경지의 2.8배)쯤의 경지가 되어 한층 노동력부족을 가져오게 되어 도당국은 諭示를 내려 도항을 막았다.

한편으로 12개 경찰관주재소에 시달하여 출가자를 엄선하고 自覺적으로 도내에 머물러 있도록 新規殖産開發을 지도하고 있다. 昭和8년1월부터 9년4월까지에 도항출원자 12만7백2명 가운데 도항유시자는 8만4천4백58명이며 출원자의 70%를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당국의 유시가 없었다면 구제불능의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를 판이다. (표1-8)

## 2. 出稼의 動因 및 助長性

여기에는 경제생활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이탈하고자하는 소극적인 動因과 보다 좋은 경제생활을 바라는 생활의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두방면이 생각될 수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인의 内地出稼動因을 2백60명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출가자 각 개인의 본질적원인은 향토에 있어서의 경제상태의 적극적동인에 유래되고 있으나, 그러나 전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출가의 왕성함을 가져오게한 직접적원인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 a. 「契」 및 친족의 援助와 자극

어떻든 내지출가의 발단은 오사카나 北九州의 공업지대로부터의 직공모집원의 내도에 기인하다고 하는 것은 既述한바와 같지만 계 및 친족의 원조, 그 자극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친족 및 계원중의 출가귀환자로부터 받은 자극과, 출가희망자에 대하여 그 渡航旅費의 융통, 취직, 숙박소 소개등의 알선을 해주는 일은 출가를 두드러지게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 무일푼의 사나이라도 출가희망자에게는 隣保相扶相助의 계정신에서 융통이 되고 출가자도 출가여비의 융통에 대해 返濟했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물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사람의 출가귀환자는 재차 도항 때는 반드시 이웃 또는 知人을 유인, 몇사람이서 出稼渡航을 했던 것이다.

### b. 濟州島共濟組合 및 海女組合의 활동

영농관계상 아무리 임여노동력이 있어도 특히 言語를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表 1-8〉 濟州島人 內地出稼出願者 및 出稼諭示者數(昭和8年1월~9년4월)

種 別		出稼 渡 航 出 願 者			出稼 渡 航 諭 示 者		
		男	女	計	男	女	計
年 月	性 別						
	昭和 8 年	1	4,086	2,187	6,273	2,745	1,072
2		5,394	3,395	8,789	3,048	1,270	4,308
3		5,568	3,428	8,996	2,580	778	3,358
4		3,582	2,978	6,560	2,854	1,163	4,017
5		3,360	1,579	4,939	2,388	760	3,148
6		2,088	1,739	3,827	1,488	1,233	2,721
7		3,790	3,150	6,930	3,156	2,627	5,783
8		4,434	3,658	8,092	3,618	2,948	6,566
9		5,388	3,290	8,678	3,764	1,940	5,704
10		5,310	3,231	8,541	4,182	2,289	6,471
11		5,602	3,362	8,964	4,048	2,517	6,565
12		5,202	3,063	8,265	4,320	3,328	7,648
計		53,254	35,060	88,314	38,191	20,825	59,016
昭和 9 年	1	4,742	3,652	8,394	3,724	2,993	6,717
	2	5,421	3,216	8,637	4,758	2,851	7,609
	3	5,155	4,623	9,778	4,193	3,207	7,400
	4	2,453	3,126	5,579	1,552	2,164	3,716
	計	17,771	14,617	32,388	14,227	11,215	25,442
累 計		71,025	49,677	120,702	52,418	32,040	84,458

출가는 단순한 友人·知人の 원조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발전이 있게된 데에는 조합의 힘에 의한 것이 크다. 현재의 제주도출가자는 반드시 제주도공제조합원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도항이 허가되지 않는다. 조합은 본부를 제주도城內에, 同支部는 大阪府東成區 中道에 두고서 내지출가자의 취업소개 숙박소·주거편의의 알선, 근검저축의 장려, 위생사상의 보급, 풍속도덕의 향상 등 훈련을 실시했다.

이로써 노동자의 능률·소질을 높이고 또한 그것이 고용자를 격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c. 阪-濟間 直通航路

제주도는 절해의 고도에 위치해서 半島部경유에 의한 복잡한 교통로와 비안여비, 언어 풍습을 달리하는 內地에의 무학자진출발전은, 阪-濟間 직통항로의 정기개항이 큰 誘導을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쟁선박의 출현, 소위 3개기

表1-9 昭和8年中 濟州島人

月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濟州邑	16,827	14,732	5,803	12,066	13,883	18,503
涯月	6,200	8,200	7,000	7,000	7,000	8,100
輪林	11,162	6,646	6,427	6,427	14,342	7,424
高山	6,059	4,635	5,638	7,561	3,698	4,326
慕瑟浦	3,912	5,156	6,479	6,190	3,980	5,230
西場浦	7,220	7,756	8,962	8,551	7,109	5,583
表善	4,466	4,035	5,045	5,388	3,261	2,629
城山浦	4,487	2,780	4,017	4,861	3,270	3,429
金寧	5,209	12,620	11,034	5,881	3,903	2,563
朝天	9,498	5,842	5,054	5,438	7,985	6,893
計	75,042	72,402	65,459	69,563	69,831	64,679

선회사의 경쟁에 의한 과격적인 汽船賃은 오사카에의 도항을 더욱 조장시켰다.

日本상공업의 심장부인 오사카로 가는것은 조선의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운임에 있어서 거리를 단축시켰으며 昭和7년에는 마침내 關釜연락선 운임보다도 싸게, 阪-濟간은 겨우 3円이 되고 그나마 제주도 주위의 2배여가가 어느 항구에서도 균일요금제를 이루고 있다.

섬인 지리적환경은 힘들이지 않고서 섬과 오사카를 연결시켰고 승선만하면 오사카출항에 도착하고, 오사카잔교에 집안함과 동시에 先着者の 출영을 받게 되고 共濟會의 알선 등으로 쉽게 도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對岸인 木浦港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간편하다고 여겨졌다.

#### d. 出稼地의 經濟的繁榮期에 投合

섬의 농업노동은 그 생산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舊法墨守가 많지만 종합적인 노동력의 잉여, 즉 장기간 농한기를 갖게 되는 위에 계·친족·조합등의 원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 出稼地인 阪神지방 공업계의 경제적 번영기에 投合된 점을 볼 수 있다. 초기의 출가는 오사카 방적공장으로 부터의 勸誘員의 내도에 시초를 두었으며 그후 内地공업계는 大正·昭和연대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보아 제주도인의 출가가 함시 공업계의 발전과 병행되었다.

内地出稼者送金額月別表

(각 우편국조사 : 円 이하의 보고는 생략)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計
9,236	14,392	13,655	16,401	16,709	20,972	173,179 円
7,400	8,200	8,252	7,500	7,500	8,500	92,752
4,234	9,936	11,382	22,144	7,839	16,593	124,346
5,400	6,515	4,423	4,354	7,400	7,324	67,333
5,975	6,823	5,848	4,444	7,410	9,635	71,082
4,276	4,482	7,799	8,449	8,257	9,303	87,749
4,078	4,144	3,564	3,548	4,050	3,703	47,911
3,275	4,233	3,405	3,739	4,314	3,245	45,055
3,494	4,902	6,430	3,654	3,966	3,682	67,338
5,938	4,345	7,892	7,285	6,725	7,989	80,883
53,306	67,972	72,650	81,518	74,170	90,946	857,628

즉 출가자수의 증감이 공업발전의 지표인 공업자본의 증감과 일치하였다. 日本銀行의 조사에 의한 최근 5년간의 공업자본은 昭和4년도(1929) 5억2천6백 60.6만円, 5년도 2억3천3백55.9만円, 6년도 3억2천11만円, 7년도 1억9천1백 81.5만円, 8년도 4억6천5백93.6만円 등으로, 증가의 최대연도인 昭和8년도에는 출가자수에 있어서도 현저한 격증을 보게 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요컨대 出稼者인 阪神지방의 大正에서 昭和에 이르는 경제적 번영이 유인이 되고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값싼 阪-神간 직통 정기항로가 열리면서 그 흡인력을 조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出稼者の 郷土에 미치는 影響

### 1. 좋은 影響

#### a. 生活程度의 向上

5만여명의 출가자 중 그 대부분이 내지의 大商工業都市 특히 오사카의 공장 노동자였다. 阪濟간 직항에 의한 교통의 발달은 매년 4만명 내외의 왕복자를 해 아래게 되었고 교통편과 교통비의 저렴은 往復頻度を 높게 해서 월 1일과 16일

의 돌아오는 항로에는 월말·월중의 정산입금을 손에 전 귀환객들로 배는 크게 붐볐다. 그리하여 이들 귀환객들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향상을 보게 되었다. 생활정도 향상의 정밀한 측정은 어려운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향상이 뚜드러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생활정도의 향상은 음식물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특히 소비되는 음식물의 종류를 변화시켰는바 종래의 조밥(粟食) 및 보리밥(麥食)에서 쌀밥(米食)으로 바뀌어나가게 되었다.

본도는 전체인구 19만6천9백49명 중 内地人이 1천3백13명, 중국인 60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상태를 통해서도 분명히 생활정도의 향상은 인정되고 있다. 昭和8년도<sup>12)</sup>의 移輸入무역총액은 1백56만圓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백미 16만1천8백71円(9천2백74석), 쌀래기(碎米) 3만5천2백80円(1천9백60석) 소맥분 10만5천円(10만5천관) 청주 2만2천8백80円(2백20석) 소주 1만7천8백80円(5백90석) 맥주·설탕 2만6천7백3円(14만7천6백94근) 기타 일용잡화류 직물 화장품 고무신 건축재료 등인데 移輸出총액 1백10만圓을 40여만圓이나 초과하고 있다.

쌀은 원래 논이 적어서 본고장 米産額은 昭和8년 2만4천8백10석 중 벼(水稻)가 1만2백34석이지만 쌀생산이 없던 당시는 대부분 쌀의 移入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본고장 쌀에 移入米 1만1천2백34석을 합치면 실로 3만6천44석을 소비하는 것이 되어 이 점에서도 생활향상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入超는 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엔 항상 수입초과를 이루어 40~1백60만圓(昭和4년)을 나타내며 자급자족 경제체제로부터 入超經濟體制로 바뀌게 되었다.

또 예전부터 불완전한 유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左面 麗水里에선 도내 최초의 계획으로 간이수도가 준공됐는데 이것은 귀환자의 발기에 의한 것이다.

이상은 직접 출가에 의한 생활향상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b. 出稼者의 送金과 入超相殺

본도 출가자에 의한 外國 經濟 送金액은 통계가 있는 昭和元年(1926)으로부터 8년(1933)까지의 8년간을 보면 昭和원년의 送金액이 77만4천7백84円, 昭和3년도는 급증하여 일약 1백28만7천1백40円으로 1인당 평균 40円에 달했다. 4년도에도 1백24만여圓, 7년도에는 68만5천1백55円으로 감소했으나 8년에는 재

차 증가해서 85만7천円이 되었다. 이것을 월별 및 연별 송금액(표1-9)으로 보면 8년간의 송금총액은 약7백30만円の 거액에 달하여 연액 평균 1백만円 송금을 보였다. 이것들은 도민의 인습에 의해 대부분 지폐로 송금됐다.

더우기 출가자가 스스로 소지해서 귀환하는 금액을 합계하면 어쩌면 郵送金の 배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도에 있어서의 내지지폐의 유통은 극히 유통해서 이 점에서도 지역성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정도의 향상을 수반하는 入超額은 이들 出稼金에 의해 相殺가 되고, 더욱 다소의 잉여 상태를 보임으로써 실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c. 內地語(日本語)의 보급

카가와(香川) 현의 면적에 필적하는 제주도, 그런데 內地人이 적은 지역인데도 內地語(日本語)가 잘 보급되고 있다. 육지부에선 보통학교 교육을 받은 청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지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어떠한 산간벽지의 오지에서도 잘 내지어가 이해되고 잘 말해진다. 내지인의 내지어와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있어서 청장년은 물론이고 교양이 없는 노인, 부녀자도 잘 내지어를 이해하고 내지어의 보급도 또한 탄탄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는 내지출가에 의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점인 것이다.

## 2. 나쁜 영향

### a. 勞動力의 不足

치열한 渡航熱에 자극된 잉여노동력의 島外流出 이상으로 家業을 버리고 향토를 떠나는 상태가 되므로써 농가 1호당 평균경지 1정 4단보를 1.5명 내지 2명이 경작하는 상태까지 되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상의 묘가 있는 농촌이 황폐되는 원인이 되고 광활한 耕地는 텅 비게 황폐화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편 노동력의 과도한 유출은 노동임금의 현저한 高賃金指向으로 빠져들고 농가경제의 파멸을 가져오게도 되었다.

### b. 精神的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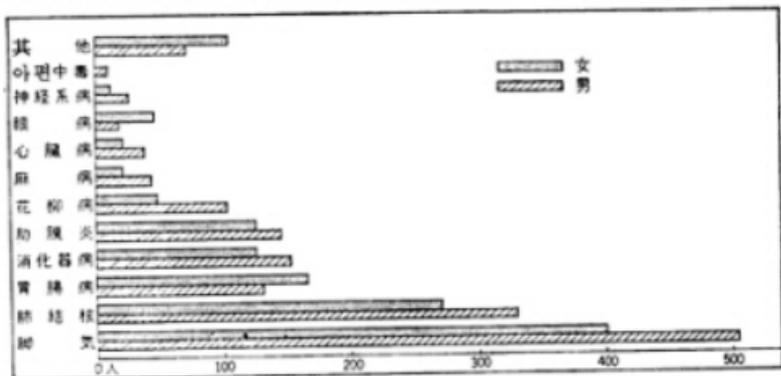
출가에 따라 도시풍조에 익숙해지고 단순한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풍습이 생겨남으로써 종래의 용감인척한 근면 정신은 점차 근포를 억제하는 풍습으로 기

올어졌다. 歸還者は 醒醒無爲를 일삼아 농업을 돌보지 않고 마치 휴양하러 귀환한 자인양 되어 본래의 農閑期 剩餘勞動力의 경제가치화 정신에 바탕을 둔 出稼는 그 정신이 本末轉倒가 되어 향토의 미풍을 파괴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우기 원래 제주도인은 절대 勞動爭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도항자의 격증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관계등으로 해서, 최근 사상계의 나쁜 기류에 奔弄되기도 해서 民族的偏見과 계급적 사상운동에 편승된 魔手는 귀환자를 통해 도내에 전파되는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선박검역을 엄중히 하고 移動乘船查察員을 배치하여 極左運動의 단속에 힘쓰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출가도항자를 엄선하기에 이르렀다.

### c. 肉體的 방면

출가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일보다 심사사람들이 육체적방면에서 받는 절손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출가 개시이래의 정확한 조사는 입수안되고 있으나 昭和9년4월 현재의 조사로 얻어진 자료에 의하면 疾患者 총수는 2천8백95명으로 출가자 총수의 5.7%強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의 종류는 주로 11가지인데, 가장 많은 것이 風土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脚氣病으로 9백6명에 달하며 두번째는 폐결핵환자의 6백1명, 다음은 위장병 2백93명 기타 소화기병환자 2백83



〈그림 1-27〉 昭和9年4月の 濟州島人內地出稼者 症患者數

명, 녹막염 2백71명의 순이며, 호흡기병 소화기병을 합쳐 50%強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이에 버금가는 것은 花柳病환자의 1백49명으로 5.2%에 달하고 전염병인 악성환자가 많은 것은 도회지 출가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과 유사하다. 위생사상에 어둡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교양도가 낮은 출가자 및 섬사람들이 받는 病害는 예상이상의 것으로 판단되어서 섬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濟州島人の 内地出稼의 地理的意義

이상 제주도의 지역성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섬사람들의 内地出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제주도인의 내지출가는 全 朝鮮가운데 수위를 차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역도 극히 偏在的이어서 京阪神의 상공업도시, 특히 오사카에 가장 집중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흡인력의 강대성에도 기인하지만 특히 特殊交通系가 그 분포상 두드러진 제약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出稼供給地域에 있어서의 공급분포 현상의 보편성은 섬의 자연지리적 위치로서 火山地形 臨海繁落과 경지관계 등의 유사성 및 環海性이 販濟간 정기기선을 연안에 거의 등거리적으로 기항시키고 더 나아가 販濟간 균일제 기선운임 채택에 따라 강력하게 유도되었다.

3. 출가는 본래 노동력의 季節的 過不足地域의 繁開期가 다른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동력의 과잉지로부터 부족지로 기술의 이동 및 노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기술의 이동출가가 현저한 것은 漁撈出稼·海女出稼·차일파기출가·모심기출가 등이지만 본도인의 경우는 대부분 농업자출가로서 공장노동자가 주종을 이룬다. 이들은 노력을 제공, 계절적인 이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4. 출가자의 性別上 초기에는 남자가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최근에 가까스로 여자가 남자수에 접근해 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양과모양의 靑壯年生産型을 나타내고 땀 출가이민지역의 연령구성과 유사하다.

5. 출가자를 공급하는 가정비율은 섬 전체호수의 64%에 달하며 1호 평균 1명

이상의 출가자를 공급하고 있음은 출가공급지로서 類例가 없는 것이다.

6. 출가는 향토문화를 높이고 생활정도의 향상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매년의 送金高는 백수십만圓에 달해 향토에 있어서의 入超相殺 효과를 크게 했다. 출가자에 無學文盲이 많고, 자각없는 출가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 勸農買林의 고유미풍이 파괴되는 현상도 많아졌다. 특히 출가공급은 수요지의 경제상태에 좌우되는 바가 많고 최근의 불황은 不穩思想의 移入媒介者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질병자가 해마다 증가해 심신이 함께 침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영향이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당국은 마침내 출가의 제한, 업선을 하기에 이르렀다.

출가의 완전한 발전은 노동력 수요지의 경제지리를 조사하고 그것으로 두 지역간의 노동력 수급관계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한편에선 島當局이 기도하는 종래의 單純粗放耕作이 多角的 集約營農으로 나아가 노동력이 평균화되는 외에, 지리적 환경을 이용, 그전부터 개통된 販濟항로의 이용으로 생산품의 중앙시장에의 移輸出 및 출가초기의 정신에 입각한 優秀素質者의 출가를 꾀해나간다면 섬의 발전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잠시 지도를 베풀어주셨던 다나카(田中啓爾) 조교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갖가지 자료와 조사의 편리를 제공해 주신 濟州島司 다구치(田口賴憲)씨, 미우라(三浦)내무주임, 고노(河野)서무주임, 그 밖에 立野角之助, 有吉脩 玄花正典 崔炳默씨, 그의 도청의 여러분, 제주보통학교장 池田俊雄씨, 西歸浦 遠藤壽雄교장 해녀조합이사 金根壽씨, 동주임 樹田耕豊씨 제주경찰 山田至朗부장 등 佐藤重太郎씨 西中面 杉本幸一부장을 비롯한 각 경찰관주재소장, 각읍면장, 同사무소원 樺島久治씨 기타 도내유지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한다.

(昭和10년 6월30일/濟州島人の 内地出稼에 관하여)

## 濟州島의 취락

수년대 제주도에 관한 地誌學的 연구에 뜻을 두고 그 결과는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53~60) 이 연구도 또한 그러한 연구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문제의 일부는 昭和9년(1934) 11월 오오즈카(大塚)地理學會대회에서 발표를 시도했다가 그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이 기회에 보고를 하고 많은 분들의 비판을 받고 장차 완성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의 취락문제에 관하여는 ① 섬의 집構造에 의한 地域性 ② 취락형태와 분포 ③ 취락발전과 그 이동 ④ 同族聚落의 지리적 특수성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섬의 집구조의 지역성, 취락형태와 그 분포에 한정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 濟州島의 集構造

### 1. 家 屋

본도의 호수는 4만2천여호에 달한다. 그중 조선인 거주 가옥은 4만1천8백호이다. 조선인의 직업별은 農·牧業 약 3만8천3백호, 漁業 1천5백호,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옥은 濟州城內 및 西歸浦·城山浦에서 내지인이 경영하는 여관 기타 2~3호를 제외하면 모두가 단층집(平家)들이다. 그 배치는 구형(矩形)가옥 한채씩, 2중 對稱의 「二」자형, 3중의 「역ㄷ」자형, 혹은 「ㄷ」자형 및 4중 「ㄱ」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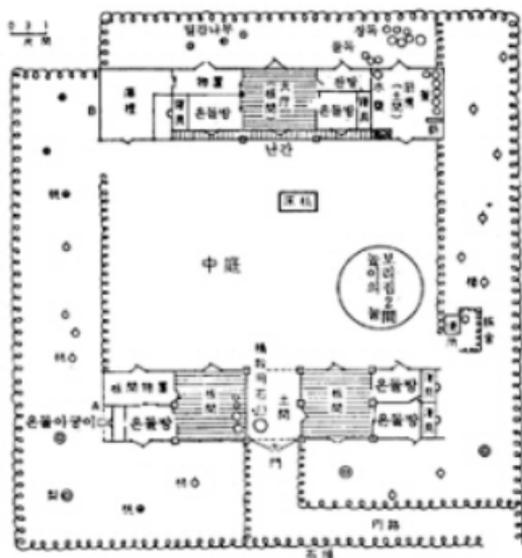
더우기 동수 및 가옥의 大小와 貧富度는 내지에서와 같이 정비례하지만 죽보를 존중해서 예로부터 分家제도의 절대적인 계속 실시로 해서 同族集團의 습속을 보지하기 때문에 동일대지내의 동수의 다과에 富貴度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장 두드러진 가옥배치 양식은 「二」자형과 「ㄷ」자형이다. 「二」자형배치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대치하는 것이 많다. 이 경우 북측가옥은 안

채(内棟 또는 内家) 남측이 부속가옥(바깥채 外棟 또는 外家)이다(그림 1~28).

1世帶의 경우는 안채는 家長 주부 아이들이 살며 바깥채에는 연장자의 머슴방이나 작업방인 경우가 많다. 또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북측가옥이 本家, 남측가옥이 分家의 경우가 보통인데 대지범위가 허용하는 한 이 형식이 채택된다.

「ㄷ」자형의 경우, 혹은 「역ㄷ」자형의 경우, 북측가옥이 안채, 남측이 바깥채로서 하인들의 방, 또는 작업실이 되며 동측 또는 서측 가옥은 협실(夾室, 안방에 달려 붙은 방)이 된다. 「ㄱ」형의 경우는 북측에 안채, 동측에 사랑채, 서측에 협실, 사랑에 대치해서 하인실(작업실·창고) 등과 각 직능을 달리 하는 건물이 배치된다.

그림1~28은 필자가 실지답사를 할 때 복희 戶主의 호의에 따라 방 배치도를



〈그림 1-28〉 濟州島 農家構造와 配置

작성한 것인데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방의 배치와 집 구조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가 있다.

半島部 가옥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은 온돌아궁이를 각각 별개로 갖고 주방 즉 취사장은 독립해 있으며 아궁이는 여러개가 대소의 순으로 바르게 배열해서 밥짓는 화기를 온돌로 이용하지 않는 점이다. 특히 집구조에서 주의할 점은 門路(울래)가 직접 퇴모양(退形)으로 되어있어서 안채가 직접 비쳐지지 못하도록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옥의 건축방식이 몹시 낮고 문짝틀 외에는 창이 없으며 채광은 충분하지가 못하다. 지붕은 새(띠) 茅로 덮고 기와집은 조선인의 한 마을에 1~2등을 헤아릴 정도여서 廟堂이나 양반의 가옥에 한정된다.

함석지붕은 내지인이 많은 시가지 가옥이나 공장 등 城內에 비교적 많고 城山 浦 西歸浦 華亭浦 등지에는 극히 적었으며 농가는 전부가 새(띠)집(茅屋)이다. 30~40cm 두께의 새(띠)지붕은 표면을 띠로 만든 굵은 짚줄로 그물코 모양으로 묶어 견고하게 보이는데 반도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나타낸다. 사방의 벽은 문짝틀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돌과 흙으로 만들어지고 지상에서 30~50cm 높이의 床板 또는 돌을 깔아 그 위에 진흙을 발라 한 편에 온돌아궁이를 마련하고 있다(그림1~28).

## 2. 돌 담(石垣)

다음 지역적인 특색은 가옥의 大小, 대지의 廣狹에 관계없이 매호 전부가 집 주위에 병풍모양의 돌담을 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돌담의 높이는 보통 1.5~2m로 구조양식은 全島가 거의 비슷하다.

石材는 자연히 붕괴한 검은색 玄武岩의 角礫으로 대단히 거치른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오오무라(大村)扁狀地상의 취락의 돌담 이즈하지조(伊豆八丈)의 麗岸玉石과 같은 둥근돌맹이가 아니라 거치른 모난 돌맹이를 쌓아올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돌담사이 구멍으로 內外兩側을 엿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일견 불안정한 감이 있으나 纒面은 잘 짜여져 있다.

이 돌담은 단순히 민가만이 아니라 관청 학교 기타 공공영조물 內地人住宅까

지 같은 양식이다. 그리고 가옥뿐만이 아니라 묘지 밭 논등에도 빠짐없이 돌담을 둘러치고 있는 경관은 異色의인 장관을 이루는데 도민들은 예전부터 생활의 대부분을 들의 문화 건설에 바쳐온 듯한 느낌이다.

실로 돌담은 섬고유의 문화경관이며 두드러진 지역특성이기도 하다.

### 3. 採水林

집주위에 심어진 방풍림은 무사시노(武藏野)의 농가, 레이하(靑波)平野의 고립주택 마츠에(松江)低地の 민가주변등 헤아릴 겨를이 없다. 이들 방풍림과 외관이 하등 다른점이 없지만 그 기능상으로 보아 오히려 採水林이라고 명명한다. 즉 물을 채취하기 위한 수풀이란 뜻이다. 필자도 답사 초기에 돌담 안쪽에 수목이 둘러 있는 것을 보고 방풍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방풍적 요소에 대하여 갖가지 고찰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조사가 전지역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그 피상적인 관찰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防風の機能 혹은 防火의기능까지 지니는 것이지만 채수림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히 채수림이란 말을 쓰기로 한 것이다.

防風策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가옥의 구조, 지붕 이는 법, 돌담 등의 모든 구조로 보아 매년 여름 가을에 내습하는 초속 40m안팎의 강풍에 대하여도 충분한 것이다. 실지로 北濟州의 해안지대에는 전지역이 대부분 無樹木으로서 다만 검은색 현무암의 돌담과 황갈색의 둔중한 두꺼운 새지붕에 의해 강한 乾燥感이 지배되지만 동부 및 남제주지역에 있어서 녹색으로 둘러싸인 민가의 집단적 경관은 마치 오아시스의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필자가 이들 수목에 대하여 채수림이라고 부르는 연유는 墜落地의 기초요인인 음료수, 湧水가 풍부한 북제주 해안의 모른 취락에는 집안에 거의 수목이 없고 빈집터 뿐인데 반하여 물이 풍부하지 못한 중간해안지대의 취락은 이 수목을 이용하여 天水를 모아 음료, 기타 용도에 쓰는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나무의 종류는 동백나무와 해변 批把樹가 가장 많고 녹나무, 대나무숲 등도 있다. 그리하여 한마을 동일종류의 수목을 심어 지리적으로 수종을 같이 한다는 것은 흥미가 있었다. 또 채수의 목적을 고도로 발휘하는 것은 동백나무인데

부산물로 동백기름이 나며, 따라서 동백나무는 많이 심게 된다.

수종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보면 ① 해변 비파수의 채수림지구 ② 동백나무의 채수림지구 ③ 대나무숲의 채수림지구 등을 볼 수 있다. 디옥이 녹나무(檫樹)에 의한 채수림도 있으나 그 지역은 답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차후의 조사로 미룬다.

### ① 海邊枇杷樹의 採水林地區

北濟州의 해안지대는 대부분이 無樹木地帶이지만 동부로 옮겨갈수록 朝天面 北村부근에서부터 점차 수목의 출현을 보게 된다. 나무 사이사이에 비교적 성겨서 대부분 멸구슬나무이지만 여기부터 동쪽인 漢東里·細花里·下道里의 別訪 풍지는 해변비파수의 푸꺼운 잎사귀가 무성하다. 나무의 높이는 지붕을 겨우 넘을 정도인데 주방 부근에 많이 심어지며, 특별히 바람의 방향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어 보인다.

### ② 동백나무의 採水林地區

南濟州 동쪽끝에 위치한 城山面은 앞의 지구와 인접하는 지역이지만 이 城山面은 주로 동백나무의 채수림을 이루고 있다. 그 가장 아름다운 美林을 이루고 있는 곳이 古城里·水山里·花南洞·溫平里등인데 짙은 녹색의 미림이 갖는 경관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감이 있다. 여기서는 탱크를 만들어, 한편으론 나무줄기에 새 또는 보리짚을 빙빙 감아 줄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아 탱크나 항아리로 유도, 저수하는 양식이다.

또 南濟州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西歸面의 新孝里 下孝里 好近里 西歸里 등의 여러마을에선 수령 1백년 이상의 동백나무에 둘러싸여 미림이 집집마다 들어차 있었는데 簡易水道 준공후에도 여전히 동백나무 미림은 남아 있다.

### ③ 대나무숲의 採水林地區

南濟州, 동쪽의 南元 表善 양면에서는 대나무숲에 둘러싸인 취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表善面의 九龍洞 加時里 爲美里등의 마을인데 필자가 전에 보고한 台灣의 竹園仔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으나 기능은 다르다. 채수능력은 빈약하지만 취락경관상 대나무숲은 특색을 이루어 기후관계상 조선에서는 극히 진귀하며 南元·城山·表善등의 중간지대 여러마을에 많다.

## 家屋構造 生成의 地理的因子

단층집(平家)건축은 본도의 가옥에 국한되지 않고 半島部와 함께 朝鮮人 취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층집은 가옥건축의 초기에 출현하는 구조로서 기술이 유치하고 문화정도가 낮은 시대의 구조이며, 다른 한편으론 토지에 여유가 있는 경제기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가옥의 단층집은 온돌에 의한 防寒機構이며 그 가옥은 반도부에 비하여 한층 낮은 짐에 耐風構造의 특색이 인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주방과 온돌아궁이의 구별을 제외한 그 밖의 것은 모두가 내풍적 구조인데 본도의 강풍은 널리 알려진 바로서 강풍일수는 1년의 약3분의1이나 된다.

이 지역의 강풍에 대하여는 이미 『耽羅誌』에 삼다(三多)의 하나로서 기술된 바가 있다. 지붕이 새로 덮어진 것은 본도의 中間, 山間 양 지대에 풍부하게 발생하는 새가 많은데 기인한다. 지붕을 바꿔 이는 일은, 반도부에선 비 수확 후 새로운 짚으로 갈아 이어 같은 색으로 새로 갈아 덮은 산뜻한 지붕과 집주위의 장작 울타리는 겨울에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경관이기도 한데, 이 섬의 지붕들은 新舊混色을 이루어, 지붕의 색깔에서도 반도부와 섬과는 차이가 생긴다. 이는 섬에서는 새(띠) 지붕이기 때문에 耐久力이 커서, 몇 년만에 지붕을 갈게 되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지붕에 새 끈으로 된 굵은 밧줄을 묶고 있는 것은 본도 독특한 耐風構造로서 밧줄의 굵기와 그물코의 대소에 따라 強風區 중의 강풍지역임을 알 수 있다.

집을 돌담으로 둘러싼 것은 이사가키지마(石垣島. 註=冲廳縣에 있는 섬)와 같이 강풍지역에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진술한 바와 같이 지형, 지질보다는 석재구입이 손쉬운 데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방풍기구이긴 하지만 본도의 중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의 放牧牛馬에 대비한 것이란 것도 간과할 수가 없다. 더우기 가옥배치상의 立地에 대하여는 직업·풍습·同族分家制·風水說 등의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당장은 무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독립된 주방과 온돌아궁이의 구별, 주방의 독립은 半島와는 그 취지가 다르고 内地농가의 양식과 흡사하다. 또 온돌 아궁이를 별개로 해서 炊事火熱을 이용안하는 것은 반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기후가 온난하고 온돌용 연료에, 농가는 물론 시가지에서도 대부분 牛馬糞을 태고 있기 때문이다. 우마분은 들간에 방목되어 있는 7만여 마리의 우마로부터 쉽게 얻어지며, 마치 연탄덩어리같이 그 화열은 온화한 심 기후에 적합하고 保溫時間도 오래다. 온돌입구를 屋外에 마련한 것은 防臭策에 다름 아니다.

## 聚落形態

본도의 취락은 火山島인 자연지리적 제약과 그 거주지역의 지리적 제약을 받아 취락형태상에도 명료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략 塊狀形態를 이루는 것이 많아서 집단촌(塊村)·環狀집단촌·散村 등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림 1~29는 육지측량부의 5만분의 1 濟州島地方圖幅<sup>41)</sup>에 필자의 답사에 의한 수정을 고려해서 1평방km의 方眼을 치고, 형태상의 구분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것으로 본도의 취락이 형태적으로 현저하게 집단화된 현상을 인정할 수 있다.

### 1. 집단촌(塊村)

집단촌은 北濟州의 해안지대에서 南西 濟州 일대에 걸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본도 집단촌의 경관은 마치 버섯의 균락을 보는 것과는 같은 느낌이다. 대지내부는 나무그늘과 공지가 부족하고 대부분 裸家屋만이 들어서 있다.

특히 지형관계상 취락내 도로망은 交通路·住居路가 모두 불규칙인게 전도에 걸쳐 가장 많은 취락형태이다. 이는 聚落立地의 기초적 요인이 되는 음료수와 의 관계가 가장 큰 때문인데 湧泉에 의한 경우도 큰 마을 안에 용천이 2~3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취락입지상 생 있는 곳과의 거리적 제약이 根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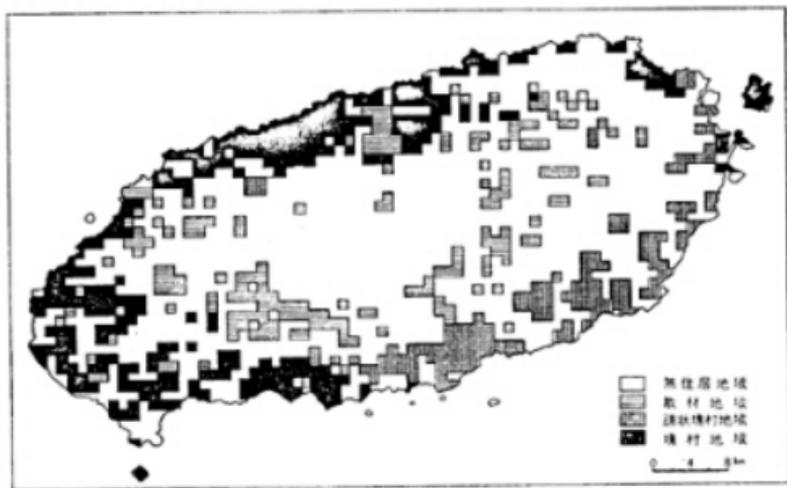
한편 예전부터의 分家制度에 의한 동족의 集團群居의 습성 舊來의 惡政에 의한 강요, 過重課役을 피하기 위한 가옥구조의 응축, 倭寇·海賊방위상의 집결 등 역사성, 精數 기타 농산업상의 연자방아 설치를 위한 공동출자, 그 중에서도

최근 20~30년간의 경제기구의 변화가 섬의 경제중심대를 중간지대로부터 해안지대로 轉移시킨 것이 집단촌 형성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집단촌은 臨界的 위치를 차지해서 한 마을 호수가 3백호를 헤아리는 것은 北濟州지역에 가장 많다. 다시말하면 濟州邑內的 濟州·禾北, 菴月面の 菴月·下貴·翰林面の 翰林, 舊左面の 東金寧·西金寧·月汀·坪岱·細花·下道, 朝天面の 新村·朝天·威德 등이며 南濟州에선 大靜面の 華瑟浦가 유일하다.

이상 여러마을은 모두가 바다에 임해 있어 해안일주환상도로를 따라 발달하고 있다. 임해지역이 아닌 곳은 菴月面の 納邑이 유일하다.

南濟州 東半部에는 1개 취락 3백호를 갖는 대집단촌은 한 곳도 없다. 3백호 이하의 소집단촌도 여전히 북제주에 많고 어느 것이건 북제주의 非臨海地域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1-29〕 集落形態로부터 본 濟州島의 聚落分布

## 2. 성곽집단촌(城郭塊村)

집단촌중 특수목적에 의하여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취락이 있다. 본도의 首邑인 濟州 및 大靜面의 大靜(安城里·保城里·仁城里) 城山面の 旌義(城邑)에는 각각 그 주위에, 濟州는 門陣, 다른 지역은 方陣으로 높이 3m에서 5m의 성벽을 갖고 보호되고 있으며 성내에는 警備神·守護神으로서 세워진, 현무암으로 조각된 將軍立像(註=돌하루방)이 남아있다. 제주성벽의 일부, 중앙을 횡단하는 도내일주도로 以北은 山地港 축항 매립공사때에 헐어서 매립용으로 사용했고 성벽터는 개수되어 半環狀道路를 이루고 있다.

## 3. 소상집단촌(疎狀塊村)

이 형태는 南濟州에 두드러지게 많은 현상으로, 그중에서도 西歸面 以東지역에 많다. 집집마다 들담 안에는 비교적 넓은 空地를 갖고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해변비과수, 과일나무, 기타 수목으로 덮여 있으며 집터 주위에는 면적의 廣狹은 있으나 박하 제충국 뽕나무 등의 특수작물이라든지 養蜂등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것들을 單元으로한 가옥이 住居路, 小路村網으로 연결돼 한 덩어리의 취락을 구성하고 있다. 西歸面の 西好里·好近里·西拱里·東拱里·吐坪里·西孝里·下孝里·南木里 등은 울창한 수목에 둘러싸인, 그 대표적인 곳이다.

읍리수에는 湧泉·天水·簡易水道 등의 여러 형태를 볼 수 있지만 등성등성하게 이뤄진 요인은 일찍이 儒林마을이었던 점, 각호별로 읍리수를 天水(奉天水)에 의지했던 점등을 들 수 있다. 특히 敎使시대의 官道는 제주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涯月面の 院을 거쳐 大靜으로 통하고, 또 동남쪽 旌義에는 朝天面の 院洞을 거쳐 직통하는데 반하여, 남부는 관도에 멀리 떨어져있어 그 구석진 곳에는 목사를 비롯한 官員의 왕래를 드물게해서 착취의 손길이 뻗쳐지는 일이 적어 가옥구조도 자연히 커지게 되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된 것으로 여겨진다.

## 4. 散村

散村은 中間·山間지대 및 南濟州의 南元面지역등의, 바다와 많이 떨어져 있

는 지역, 標高와 傾斜度가 큰 表土層이 얇은 지역과 일치한다.

南元面 기타지역에 있어서도 표고 4백m부근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散居하는 마을(墨旨)에 4호, 장구못(長鼓池) 12호, 斗數岳洞 5호, 馬體洞 6호, 다시 그 동북쪽의 表善面에 속하는 新權旨洞 上權旨 靈巖洞등은 어느 곳이나 한라산 南東斜面 중허리의 비교적 평탄면에 분포한다.

散居<sup>14)</sup>는 개간을 의미하고 인류거주 본래의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으나 앞에 말한 散村聚落은 舊政時代(註: 日帝이전)의 이른바 火田마을로서 전술의 집단촌 소상집단촌등의 집단적생활형태와 떨어져서 자급자족의 고립 경제생활이 행해지고, 火田禁止후는 그 명맥유지책으로 耕·牧을 주로하여 아직도 원시적 생활이 행해지고 있다.

中文面관내의 표고 6백m이상의 上文洞·法井洞·鹿下旨, 복제주 滙月面の 院18호 上花田10호 大靜面孤村洞 輪林面上水洞, 滙月面於音里와 같은곳은 데라다(寺田)씨의 散居立地에 대한 견해와는 전혀 상반해서 기존 疏狀集團村이 최근 20~30년간의 경제기구의 변화에 따라 해안지대로 이동한 결과 잔류농가가 散居形態를 이룬 것으로 노년기취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중간·산간지대에는 이같은 종류의 산촌이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본도 취락의 이동문제에 대하여는 後述하기로 한다.

### 5. 無住居지역

이 지역은 표고 6백m를 한계로 하는 한라산 중허리 이상의 지역으로 경사도가 크고 또한 林野局의 관리에 속해 있어서 要存林으로서 삼림지대를 형성,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또 동부 및 서부지역은 燧岩原을 이루고 용암의 풍화가 진행되지 않아 음요수가 부족한 지역인 것이다.

## 聚落分布의 特色

이상과 같이 취락분포를 볼 때 토지이용상으로 본 4지대중의 해안지대에 全島취락의 75%가 위치하고 그 중에도 해안선 약 2백50km를 따라 首邑 濟州邑를 비롯 74개 취락집단촌 및 소상집단촌이 분포해 있다. 그리하여 복제주에 52, 남

제주에 22개가 環狀으로 배열되어 있다. 다시 그 안쪽 해안으로부터 3~5km의 지역, 즉 환상일주도로 또는 그보다 안쪽 2~4km의 지역에 나머지 대부분이 분포해 있다. 그 內陸度는 남제주의 西歸·中文 및 南元의 여러면에 적고, 西歸·中文 양면의 경우 소위 孤立的 散居聚落을 제외하면 3km 이내의 내륙에 그친다. 北濟州는 대체적으로 內陸度가 커서 濟州邑·涯月·翰林·朝天面 등은 5~6km의 지역에 있어도 비교적 많은 聚落分佈를 본다. 특히 서부의 涯月面에서는 최대 11km에 이르는 지역이 있다. 이와 같이 前者의 臨海環狀 聚落 分佈帶에, 그리고 그 안쪽에 제2환상 취락분포대를 볼 수 있고 다시 그 안쪽에 산거적 고립취락이 제3환상대를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들이 토지이용상의 海岸地帶 中間地帶 山間地帶의 각 3개지대와 거의 일치한다. 취락의 대소는 해안에서 내륙에의 거리에 반비례 한다. 표고 6백m를 한도로 해서 상부는 寺院 및 버섯재배용 오두막 및 계절적거주의 특수취락을 제외하곤 무거주지역으로 점차 옮겨갔다. 이러한 현상은 취락입지의 자연적 요인인 음요수 즉 용천, 熔岩의 風化度와 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 聚落立地와 飲料水

### 1. 飲料水

전술한 바와같은, 특색있는 聚落分佈를 결정하게된 제1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바는 음요수문제이다. 상부의 삼림지대를 제외하며는 거의가 無樹木地를 이루고 火山岩이 전도를 덮어 표토는 극히 얇고 地相은 半沙漠의 경관을 나타낸다. 하천도 대부분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枯渴流로서, 대부분은 속으로 흘러서 용암의 깨진곳이나 화산의 砂礫속으로 침투해 해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솟아오른다. 따라서 해안에서 가장 많은 湧泉을 볼 수 있다.

필자가 해안지대에서 세어본 용천은 1백62개소의 많은 지역에 달했으며 점차 내륙으로 나아감에 따라 용천은 감소하고 주민은 음요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본도의 음요수는 원시적형태에 속하며 지역적으로 채수방법을 달리한다. 採水양식상으로 湧泉사용지역 우물물(用水)



현, 昭和9년과 10년의 각 8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용천을 핵으로 해서 운반거리  
에 따라(석유빈동 물값이 1전에서 4전까지) 4등급의 等値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도청부근은 실로 4級區로 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두 호류의 湧泉帶가 존  
재한다. 즉 동부의 山地川, 서부의 屏門川인데 모두 연안지역이다.

두 하천이 모두 間歇的枯涸流인데 河口는 潮沙干灘을 예민하게 탄다. 가장  
풍부한 용천지대는 전자인데 濟州神社언덕 밑(현재의 東門로터리 북쪽)의 삼천  
수(三泉水)는 그 대표적인 것이며 주민들은 대부분 이에 의존한다. 다시 하류  
의 健入里 山地다리근치의 용천, 또 그곳으로부터 하류 우측강 밑에 2개소, 발  
전소부근에 7개소, 三泉水 남쪽에도 2개소의 용천을 볼 수가 있는바, 삼천수는  
質·量 모두가 우수해서 시가지 중앙에 가까운 점에서 이용도가 높다. 병문천  
의 용천은 질·양 모두가 떨어진다. 따라서 성내에서는 湧泉帶가 두드러지게  
동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우물물(井水) 사용지역

우물물 사용지역은 극히 범위가 한정돼 있다. 新政후(註: 日政통치후를 말  
함) 내지인의 入島者증가에 따라 위생 기타 견지에서 인공적으로 우물물 파서  
음료수 기타 용도로 공급하고자 굴착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용암이 두껍고 압  
반굴착도 쉽지 않아서 기술·노력·비용 여러점에서 濟州城內나 城山浦등지에  
한정되고 내지인거주지와 일치하는데 우물의 보급은 전도가 요원한 상태이다.

### ㉔ 城內 島廳중심구

도청을 중심으로한 지역인데 도청구내에 2개의 우물이 있으며 제주보통학교  
북동쪽과 그에 인접한 煙草專賣局 제주출장소 구내의 남쪽 및 동쪽(20~1호 地  
內), 같은지역 동측등에 3개소가 있다.

기타 無線電信局 구내, 濟州郵便局, 그 남측의 자동차회사등에 우물이 있어  
서 음료 기타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여름에 고갈돼서 여전히 용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㉕ 山地川 沿岸區

제주성내 동쪽지역에 있는데 山地川 左岸에 3개 및 서쪽 殖産銀行舍宅구내,  
남쪽의 도립병원장관사, 右岸環狀道路북쪽등에 있는데, 우안의 용천지구와 좋  
은 대조를 이룬다. 이 지역은 산지천의 蛇行部(꼬부라진 부분)인데 그 북류수

의 침투로 우물물은 풍부하고 양질이다.

㉔ 南西지구

성내의 남서부 즉 濟州尋常高等小學校 및 도립의원 구내에 각 한 군데 우물이 있어 사용중이다.

④ 城山地區

본도의 동쪽끝 城山浦지역으로 내지인 30호(96명) 조선인 1백64호(7백50명)가 살고 있는데 西歸浦 다음의 도내 제3위의 내지인 다수점거지역이다. 火山島인 城山을 연결하는 모래톱 위에 위치하나 용천은 없다.

이곳에는 옛 우물(古井)이라고 칭하는 전설의 鑿井이 있어서 예전부터 주민들은 여기에 의존, 도내 叢古의 우물사용지역이 되고 있다.

明治44년(1911) 이후 내지인의 증가에 따라 우물파기가 차례로 이루어져서, 내지인 개인용 우물 9, 조선인 개인용 1, 공동우물 1, 공동세탁용 우물 1 등 합계 12개의 우물이 있다.

우물의 상층 2m는 흑색토, 다음층 5~6m은 황색자갈, 이어서 적색점토에 이른다. 이것이 粘土帶水層인데 깊이는 7~8m, 水心이 1m를 넘는것은 거의 없다.

이 지역에 특히 우물이 많은 것은 첫째 지질관계상 우물파기가 용이하며 노력·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3) 天水使用地域

이 지역은 제2환상위막본토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그림 1-30의  $A_2$ ,  $A_2'$ ,  $A_2''$ ). 雜用水는 물론 음료수도 전부 천수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雨水採集의 방법에 관해서는 암반의 오목한 곳(凹狀), 점토층의 오목한 곳에 담겨진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매우 원시적 자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질·지형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雨期에 천수를 함아리에 담아 저수한다. 채수방법으로 수목에서 우수를 구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旌義面 水山里에서는 大正10년(1921)에 이미 개인용탱크가 설치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공동용탱크를 마을안 3개소에 마련, 각 탱크 소속자는 집집마다 수목으로 부터 빗물을 모아 공동탱크에 반입, 乾期의 사용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탱크는 昭和5년 경비 8백円을 공동지출해서 1천석둘이를 만들고 이어서 8년과

9년에 같은 용적의 것을 1개씩 증설하였다. 이렇게 해서도 아직 갈수기에는 멀리 4km의 용천지대로부터 음료수를 운반한다.

#### (4) 簡易水道地域

南濟州의 중앙부 한라산 南斜面에 위치한 西歸面해안에 입지하는 西歸浦 및 제2환상취락본포지대에 위치한 好近里·吐坪里·下孝里·新孝里등 碓狀集團村을 포함한다(그림1-30B)

##### ㉔ 西歸浦지구

西歸浦는 섬의 최남단 熔岩尖端위에 있다. 본도 최초의 수도설치구로, 도내 제2의 내지인 다수 거주지가 되었다. 내지인 61호(2백18명), 조선인 4백56호(1천6백92명) 기타 8호에 급수를 해주고 다시 춘추 兩雨期에 집중하는 內地通漁船에 급수하는 상태이다. 이 수도가 창설된 것은 大正15年(1926)5월로서 본도 개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이고(西郷武十)용봉의 공적에 힘 입은바 크다.

##### ㉕ 好近·西好里 지구

西歸浦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두 마을 합해서 4백40여호, 내지인거주자는 4호이다.

山麓平坦面에 입지해 집집마다 울창한 동백나무 노수에 둘러싸여 있고 넓은 대지를 지니고 있는 표준적 소상집단촌으로 극히 부유한 경관을 보이지만 음료수는 부족하다. 樹木으로 우수를 모으고 갈수기에는 동쪽 1~2km의 湖外川 골짜기의 용천 및 남쪽 약 1km의 용천에서 물을 구한다. 그러나 앞에 말한 西歸浦의 인접해 있고 내지출가귀한자의 생활향상의 영향은 수도건설을 촉진하게 되고 공비 8천円을 투자, 북쪽 5km, 표고 5백m의 湧泉에 水源을 구해서 昭和2年(1927) 7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 ㉖ 西歸面 동부지구

吐坪 下孝 新孝의 3개리 8백81호를 일단으로 하는 지역인데 동백나무 老樹로 집집마다 둘러싸여 있는 소상집단촌으로 多角産業이 발달해있는 모범적 산업부락이다.

종래 음료수를 吐坪리는 천수로, 新孝리는 천수 및 孝敦川의 용천에 의존했으나 북방표고 4백m 米岳 동쪽기슭의 용천을 수원으로 이용할 것에 착안, 전기

두 지역의 隣接刺戟과 내지출가귀환자의 촉진운동이 공을 이루어 지방민으로서  
는 거역인 1천5백圓을 투자 昭和7年(1932)에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 姓으로 본 聚落의 發達

제주도에서의 조선인 세대수는 4만7천39호인데 이들은 姓의 종류<sup>64)</sup>가 겨우  
67종으로 포괄되고 있다. 조선의 성 종류 총수가 2백50종임에 비하면 30%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도내의 大姓<sup>65)</sup>은 申씨의 1만1백85호를 필두로 高씨의  
4천1백45호, 다음으로 李씨 3천5백27호, 姜씨 2천7백62호, 梁씨 2천3백58호,  
康씨 및 吳씨 각 1천4백63호, 文씨 1천1백44호, 朴씨 1천2백69호, 宋씨 1천1백  
59호, 洪씨 1천1백14호 등의 순위이다.

이들 대성은 全朝鮮에 있어서의 대성의 순위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高  
씨의 전체순위 제22위가 제2위로, 梁씨의 제25위가 제5위로, 康씨의 제36위가  
제6위인 점등이 본도 姓에 나타난 특색인데 이는 梁高夫의 3姓<sup>67)</sup>이 제주도를 본  
관으로 하는 성이기 때문이다.

이 3姓 이외에는 모두가 육지방면으로부터의 移入者라고 봐야할 것이다. 물  
론 조선의 姓은 원래 중국의 모방인데 그 기원을 거슬러 오라가면 高句麗 百濟  
新羅때는 아직 姓을 칭하지 않았었고 新羅 제3대 儒理尼師今의 9년분 6부제가  
하사되었다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기사는 後世 新羅에 唐문화의 영향이 커지  
고 중국세력의 지배를 크게 받게됨으로써 그 王家가 漢姓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처음으로 학자들에 의해 작성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新羅 高麗 李朝로, 사대주의가 강한 조선민족은 모두가 漢姓을 사용하게 되  
었고 그중에서도 중국의 저명한 성을 내세우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조선의 여  
러성과 중국의 姓譜를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것이 대단히 많아서 大瀛追隨의 사  
상과 著姓승배의 관념보다는 선조의 역사가 미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본  
다. 따라서 조선의 姓은 그 종류가 몹시 적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著姓에 속하  
는 자가 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필자는 본도위략의 발달을 문헌에 의해 알아보기 위해 이들 諸姓이 소유하고  
있는 족보를 갖고서 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姓의 制定은 전술한 바와 같이 新羅

이후에 속하며 제정 전에 이미 본도에 취락이 발달했음은 상상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문헌에 의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축보법을 채택하고 梁高夫 3성 이외는 도의로부터의 이주를 전제로 해서 全島 各面의 힘력으로 축보조사를 시도한 것이었지만 쉽게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겨우 中文面에서 불충분하지만 조사를 했는데 그 요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江汀里

○尹(本貫 坡平). 15대조(中宗때) 尹斌宜傳官의 관직을 갖고 임도, 제주성내에 거주, 7대조 尹富額은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전에 江汀里에 來住. 오늘에 이른다. 現代孫 尹太彦은 농사에 종사한다.

現住 同門族 76호.

○高(濟州). 始祖 高乙那 46대손 高末老에 이르러 왕위를 잃고 高末老의 16대손 高台堯은 제주성내로부터 舊右面(현 翰林面) 明月里로 내주,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전 8대조 高得悅이 江汀里로 내주, 현대손 高靈吉은 농업을 영위함. 현주 동문족 56호.

○金(金海). 金은 같은 金海 본관을 갖지만 혹은 2~3대전 혹은 5~6대전 大靜面 涯月面 濟州邑등지로부터의 내주자임. 집단적 친족관계를 갖는者 소수임.

金씨의 합계는 58호,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람은 8대전에 大靜面 日果로부터의 내주자로, 현대손은 金眞浩라고 칭한다. 농목업에 종사한다. (傳說 칭위)

### 道順里

○李(全州·古阜). 全州李氏는 13대조 李樹鑿이 지금으로부터 3백90여년전에 육지로부터 임도 제주성내에 거주, 그후 8대조 李太林은 2백40년전까지 宋里(현 中文面 道順里)에 내주, 현대손을 李奉千이라 부르며 동문족은 28호.

古阜李氏는 15대조 李世蕃이 3백50여년전 池씨, 林씨등 3명이 함께 육지로부터 임도, 大靜面 桃源里(舊頓浦)에 거주, 11대조 李光立은 左面 靑來里(현 下靑里)로 이주, 그의 동생 李光信은 분가해서 中面 柑山里로 移住, 2백여년전의 7대조 李宗英은 道順里에 來住, 현대손 李鏞王은 농업을 함 동문족 25호.

### 河源里

○ 金(慶州, 光山, 金海). 慶州金氏는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李朝太宗시대) 18대조 金檢龍이 육지로부터 입도, 旌義面(현 城山面) 吾熙里에 거주, 그후 10대조 金尙默은 지금으로부터 2백50년전에 河源里로 내주, 현대손 金基恒은 농업에 종사함. 동문족 32호.

光山金氏는 高麗말인 지금으로부터 5백여년전 19대조 金允이 육지로부터 입도, 舊左面 金寧里에 거주, 그후 8대조 金殷良은 약 2백년전 河源里에 내주, 현대손 金弼圭는 농업에 종사함. 동문족 23호.

金海金氏는 3대조 약50년전에 新右面(현 漑月面) 於音里로부터 河源里로 내주, 現代孫 金致亨은 농목업에 종사함. 현재 동문족 8호.

### 大浦里

○ 金(金海), 大浦里의 金씨는 본관이 같은 金海로 2파가 있다. 하나는 11대조(이름불명)가 약 3백년전에 육지로부터 濟州面 老衡里로 내주, 그후 7대조 金興大는 大浦里로 이주, 현대손 金恒源, 동문족 30호.

다른 하나는 10대조가 약 3백년전에 육지로부터 大靜面 日果里로 내주, 그후 7대조 金米秋가 2백여년전에 大浦里로 내주, 현대손 金千. 동문족 33호.

○ 李(古阜). 13대조 약 3백50년전의 李世蕃은 육지로부터 입도 大靜面 日果里에 거주, 그후 6대조 李仁時는 大浦里로 내주, 현대손 李在水. 농목업에 종사함.

### 河源里

○ 姜(晉州). 본관이 동일한 晉州이지만 2파가 있다.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4백년전 16대조 姜渭亮이 육지로부터 입도, 제주성내에 거주, 그후 12대조 姜繼男은 加樂里(지금의 漑月面 上加里)에 거주, 10대조 姜斗一은 같은面 於道里로 이거, 6대조 姜時鷹은 1백90년전에 安德面 柑山里로 이주, 그의 4남 姜晩華는 약 1백40년전에 河源里로 내주, 현대손 姜尙玉. 동문족 23호.

다른 일파는 약 3백50년전에 13대조 姜仁濬가 육지로부터 입도 大靜面 日果里에 거주, 10대조 姜富雄은 2백년전에 河源里로 내주, 현대손 姜恩重은 농목업에 종사한다. 동문족 45호.

### 廻水里

○ 李(古阜). 지금으로부터 3백50년전 현대손 李正喜의 15대조 李世蕃이 육지로부터 입도 大靜面 桃源里에 거주, 약 2백30년전 11대조 李光立은 中文面 靉來里(현 上靉·下靉里)에 내주, 2백년전 10대조 李斌은 中文面 大浦里로 내주, 지금으로부터 1백70년전 大浦里로부터 分岐해 中文里가 되고 그후 85년전에 中文里로부터 分岐해 廻水里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동문족은 47호.

### 中文里

- 李(古阜). 廻水里의 李氏와 동문족으로서 현재 동문족은 1백10여호.
- 金(金海). 약 3백50년전 14대조 金信明은 육지로부터 입도, 大靜面 桃源里에 거주, 지금으로부터 2백90년전 제12대조 金永孫은 安德面 沙溪里로, 1백80년전 8대조 金尚秋는 中文面 道順里로, 약 1백년전 5대조 金致榮이 이 마을에 내주했다. 현대손은 金承彰. 동문족 30호.
- 金(光山).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 16대조 金某가 육지부로부터 입도, 喪善面 吐山里에 거주. (중간 未詳).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전에 8대조 金某가 城山面 水山里로부터 이 마을에 내주, 현대손 金丙洙. 동문족 15호.
- 金(慶州).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에 현대손 金性洙의 18대조 金儉龍이 육지로부터 입도 舊左面 終連里에 거주, 3백20년전에 14대조 金子植이 南元面 衣貴里에 내주, 1백50년전 6대조 金華弼은 中文面 中文里로 내주하고,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동문족은 20호.
- 金(金海·光山·慶州)씨 성을 가진자로서 선조의 파가 모두 다른 사람이 30여호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었다.

### 橋達里

- 金(金海). 지금으로부터 5백년 전에 현대손 金麗權의 22대조 金景興이 육지로부터 입도, 제주성내에 거주, 약3백년 전의 15대조 金信邦은 安德面 沙溪里에 거주, 60년후의 10대조 金歌仁은 中文面 靉來里에 내주, 1백80년전의 8대조 金起皙이 이 부락에 내주함.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53호.
- 金(慶州). 지금으로부터 5백년전 현대손 金喜珍의 21대조 金某는 육지부

터 입도. 南元面 衣費里에 거주, 1백70여년전에 7대조 金某는 이 부락에 내주. 현재거주하는 동문족은 26호.

#### 上靛里

○ 姜(晉州).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 현대손 姜升祿의 16대조 姜海가 입도. 安德面 沙溪里에 거주. 그후 9대조 姜潤輔는 3백년전에 中文面 靛來里(현 上靛里)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68호.

○ 金(金海). 지금으로부터 3백80년전에 현대손 金潤燦의 16대조 金福諷가 육지로부터 입도. 도내 山今의 井實洞(현 제주읍 吾羅洞관내)에 거주. 그후 13대조 金訥輔는 濟州面 利承里(현재의 海安里)로 이주, 8대조 金遇繕은 菲月面 納邑里로 이주, 6대조 金孝澤은 2백년전에 中文面 城山里(현 上靛里)로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6호.

○ 金(光山). 지금으로부터 5백50년전에 현대손 金元枝의 18대조 金胤祖가 입도해 城山面 古城里에 거주. 그후 9대조 金晉鎔은 濟州面 明道巖(현 奉蓋里 부근)에 내주. 6대조 金繼隆은 新右面(현 菲月面) 光舍里에 내주. 2백년전 6대조 金胤禱는 中文面 靛來里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30호.

○ 金(延安). 지금으로부터 4백년전에 현대손 金永好의 15대조 金安實가 육지로부터 입도. 濟州面 一徒里에 거주. 약2백년전에 6대조 金聖時는 이 마을에 내주. 현재 거주하는 동문족은 5호.

이 밖에도 본관이 金海, 光山, 延安, 慶州인데 선조의 派生이 각각 달라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 吳(軍威).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전에 현대손 吳樸仁의 19대조 吳碩賢이 입도. 旌義面 古城里에 거주. 2백50년전 9대조 吳世振이 이 마을에 내주. 현재 동문족은 66호.

#### 下靛里

○ 姜(晉州). 上靛里的 姜씨와 같다.

이상은 中文面 거주자의 족보가 전해주는 거주이동 및 발전의 과정이다.

현재의 총호수 2천6백27호는 모두가 5백년이후의 入居者로서 原住者 불명인 高씨를 제외하면 도외로부터의 來住者이며 李朝시대에 있어서의 발달된 취락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尹씨와 같이 官命에 의해 입도해서 定住後 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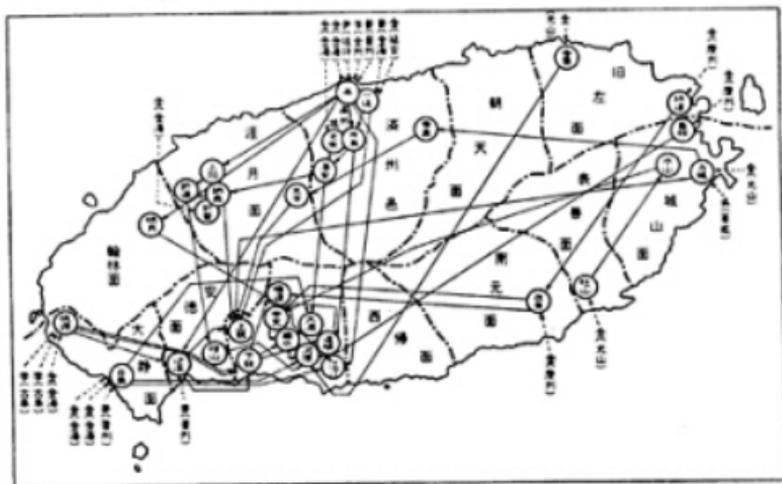
이 변영에 오늘날의 마을을 형성했거나, 은둔자 유죄인 복수계급자 등의 자손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더우기 中文面 거주자 가운데 육지로부터 직접 이 면에 온 사람은 전무하고 (그림 1-31) 2~3차례의 이주, 晋州姜씨의 一派 등은 5차례, 金海姜 金海金 古阜李씨 등도 입도이후 각각 4번에 걸쳐 정착, 오늘날의 변영을 이룬 것이다.

더우기 이번 조사에 있어서 입도자의 최초의 상륙지가 濟州城에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大靜과 城山 두 면에 많은 것도 3군시대의 大靜·旌義의 각 城邑에 가까운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직접 최초부터의 입도자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섬 가운데 가장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결과였는지 여부는 도내 전부의 조사를 한 후에 판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바는 聚落地가 해안으로부터 약간 내륙의 해안지대와 중간지대와와 漸移的 위치를 선정해서 이주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당시의 農牧地와 森林帶와의 交界地를 이루고 첫째의 주거조건인 음요수를 비롯, 地形 地勢 日射 要塞地 연료 교통 등 비교적 생활의



〈그림 1-31〉 中文面聚落構成者의 入居住經路

好條件地가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이 육지방면으로부터의 내주자의 주생업인 농목업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었으며 소위 한라산 山麓線의 전기 조건들을 비슷하게 갖춘 땅을 선택하여 취락은 발달이 되고 거기에 산목의 취락분포대는 결정되었다고 사료된다. 舊旌義軍의 수읍 旌義 및 大靜郡 大靜이 高麗朝에 발달을 보게된 것도 이 산목지역에 중점이 있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지금도 여전히 유서깊은 舊家가 비교적 많고 禮儀 言行 등도 뛰어나서 민풍은 순박하고 내지출가가 왕성한 본도에 있어 아직 그 자극에 접하지 않은 채 초연하는 바가 많다.

## 聚落의 移動

이상은 입도자에 의한 취락발달의 一面으로, 본도 취락분포의 기초가 된 것이지만 근대에 있어서는 島內間移動에 있어서 2개의 동향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섬 중앙에 솟아있는 漢擊山頂을 향하여 차츰 산기슭과 산허리로, 해안지대로부터 중간·산간지대로, 내륙·높은지대에 耕地·牧野를 찾아 上進移動이 이루어지고, 한편 그와는 반대로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해안지대로, 특히 臨海地域에의 이동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동향에서 전자를 求心的 移動, 후자를 遠心的 移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전체 마을이 甲地로부터 乙地로 이동하는 경우 및 부분적이동, 즉 甲마을의 일부가 乙地로 옮겨 신취락을 형성하는 경우, 甲마을이 전부 이동해서 乙마을과 합성하는 경우등이 있으나 일괄해서 취락이동이라고 한다.

### 1. 聚落의 求心的 移動

그림1~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第2環狀聚落稠密地域<sup>44)</sup>이 모체가 돼서 이 지역의 취락민이 그 전면에 펼쳐진 삼림지대(古老가 말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황량한 초원지대는 전에 큰 삼림을 이루었음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南元面長인 金乘柱씨 집 대청마루 판자계목인 느티나무는 폭이 1척5촌남짓이나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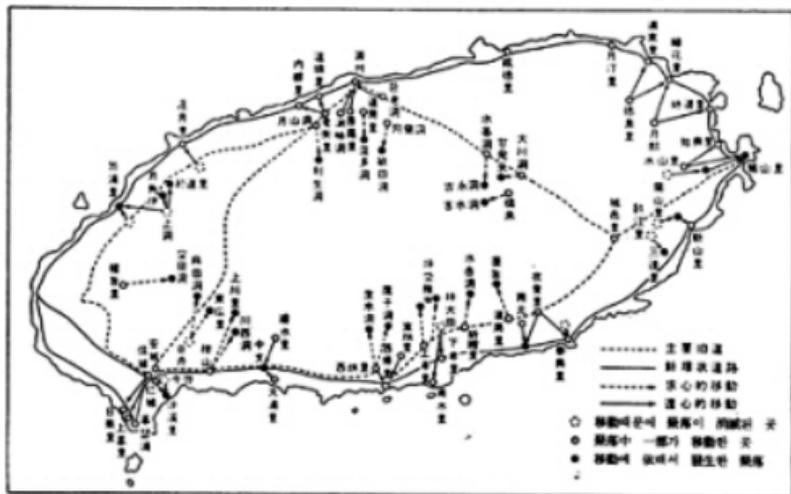
대 전 집터부근에 있던 것을 별채한 것이라고 한다)의 때려온 점차 火田化됨에 따라 산간으로 원시적농업을 위해 이동한 것인데 개간당초에는 「墓, 또는 「農墓」이 영위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주해 취락을 형성하는 양식이 행해졌다.

이 삼립지대에의 이동은 화전이 목인 되던 李朝말기까지인데 新政후(註=한 일합병후)의 火田금지와 함께 구심적이동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 (1) 南濟州地區

구심적이동은 대략 남제주에 많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大靜郡誌에 의하면 安德面 東廣里(현재 1택47호)와 동 麻田洞의 두 취락은 약 1백년전 自丹이란 마을이 존재했었음을 기술하고 있고 自丹에 사는 사람 수 명이 院水岳 남쪽 기슭 일대의 삼립을 개척해 농막을 개설한 땅에 자란 사람이 두 마을로 나뉘어 이주했는데 하나는 東廣里를, 다른 하나는 麻田洞을 형성, 자란의 옛 취락은 2개의 새 끼마을(子村) 과생과 함께 소멸한 것이다.

이 밖에 이 면의 柑山里로부터 과생된 上川里·川西洞의 두 취락은, 西鎭面에 있어서는 西烘里의 高某씨와 그 일족에 의해 生水洞을, 같은 마을 金씨일족



〈그림 1-32〉 濟州島에 있어서의 聚落

은 鷹子洞을 만들었다. 坪岱陳田은 上峯里의 뒷서일쪽에 의해 새 취락을 형성했다. 南元面의 水岳洞은 新禮里를 母村으로 하여 金씨 및 鄭씨등에 의해, 墨井은 漢南里의 李씨, 高씨 일쪽에 의하여 각각 새로운 취락의 발전생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2) 北濟州地區

이 지구는 朝天面의 橋來里를 중심으로 하는 甘發來·古水洞·吉永洞等, 그리고 濟州邑 濟州城 남쪽 중간지대인 阿蘭洞으로부터 분파된 敏田洞·道南里를 모촌으로 하는 金씨 중심의 並多洞·利生洞 등 2개 집단을 볼 수 있는 외에는 극히 적다.

현재의 삼림지대는 표고 약 6백~8백m까지 후퇴해, 전기 신취락은 그 사이에 분포하고 특히 2백50m~3백50m 내외의 고도에 분포한 것이 많다.

화전은 6백~8백m를 한도로 하여 新政에 의하여 그 이상의 殘存林은 모두 要存園有林으로 편입되어진 결과 취락의 上昇移動現象도 정지되고, 거꾸로 이 지역의 취락은 최근 20년간에 해안지대를 향해 이동현상을 보이게 되기까지 되었다. 新政에 의해 획기적인 정지가 배풀어 지지 않았다면 이미 한그루도 남기지 않고 전도가 황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新政후에는 내륙에 구심적 방향으로 이동한 中文里가 있다. 여기는 현재 약 3백70호를 보유하는 面政의 중심취락인데 大正4年(1915)의 3等環狀道路의 개통당시에는 1호의 민가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것이 臨海部에 위치한 上文里의 취락을 전부 이곳으로 이동시켜 신취락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2. 聚落의 過心的移動

현재 본도의 취락밀도의 최대지역은 해안지대로서 특히 인구 1천5백명이상을 포괄하는 대집단촌은 모두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전에는 第2環狀聚落分布帶 즉 해안으로부터 5~10km의 내륙부가 취락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이야말로 오랜 역사를 갖고 유서깊은 舊家·兩班·富農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일해지역은 대개 貧農·賤民이 많이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환상 취락분포대의 각 취락을 연락한 官道가 아직도 不連續環狀을 이루고 있는 점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안취락은 관도를 향해 내륙에 도로로 연락하

고 해안 상호간보다도 배후의 취락 내륙부와의 關係密接性이 도로망에도 인정되는 것이었다.

더우기 당시는 어민을 낮추어보는 풍조가 강하고 차별적인 사상마저 있었다. 특히 이와같은 孤島의 위치에 있는 임해취락은 海賊來襲의 우려를 피해서 임해취락을 마련하지 않고 내륙에서 농목을 주로하고 현재의 비교적 취락의소한 중간지대가 조밀지역을 이루어, 背海의으로 다시 내륙으로, 가는 중 火田에 의해 구심적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어서도 해안지대를 향하여 이동했던 것도 또한 인정되는 바이다.

#### (1) 南濟州地區

城山面水山里가 동백나무의 採水林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에서도 드문 美村인 점은 기술한 바와 같으나 水山嶺에 보존하고 있는 瀛南各戶負擔書에 의하면 이 마을은 7代 이전(약2백년전) 康西 거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康西는 원래 북쪽 瀛南里의 小王山 및 小王山 동쪽 기슭에 4백여를 지니는 큰 마을로 거주했으나 甲寅年(약2백년전)의 가뭄으로 인한 대흉작과 전염병 발생등으로 사망자가 속출, 병을 두려워 康西를 따라 이주해 온 30호가 현재의 水山里를 형성한 것인데 瀛南의 취락은 그후 이주가 계속 됨으로써 소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터는 현재도 아직 水山里 주민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많고 경작되는 밭가운데서 陶器類의 파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동쪽에 위치한 황무지는 30호정도 되는 소취락이었으나 30년래 임해취락인 吾照里 및 城山리로 옮겨져 현재는 겨우 3호만이 남았으며 이 또한 조만간 자취를 감출 운명에 놓여 있다.

같은 面 蘭山里는 현 위치보다 3km 서쪽에 위치했었으나 뒤에 동쪽해안에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고 蘭山里보다는 新環狀道路를 따라 新山리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다. 三達里는 원래 臥江里라고 부르고 북서쪽 약 2km의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臥江里 취락의 전신은 더욱 내륙의 南山峰 동쪽 기슭에 위치했던 것으로, 현재의 三達里는 세번 이동해서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三達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라는게 면장의 이야기였다.

南元里 경찰관주재소의 스키모토(杉本幸一) 부장 말에 의하면 南元 동남쪽의 泰興里 취락은 현재 해안가 사이에 위치하지만 新政전에는 북쪽 2km에 위치했던

것으로, 그 이동은 음료수의 결핍과 가뭄에 기인하며 그러한 유적들을 남기고 있다.

南元面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에 북쪽 衣費里였다. 호수 3백여를 헤아리고 舊一岡官道변에 발달된 취락이었으나 大正4년(1915) 해안가까지 새환상도로가 개통되고 주거가 없는 새길 연변에 면사무소를 우선 이전, 점차 전기 衣費里 및 南元리의 각 주민은 해안의 신도로 걸음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보통학교 경찰관주재소 등의 설치를 보게 되고 중산간지대 취락의 이동에 따라 신흥의 취락 南元의 탄생울 보게 되었다. 이 때문에 泰興리는 현재 겨우 1백여 호를 보유하고 있고 舊南元도 또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면장 金秉柱씨의 주거도 南元으로부터 옮겨온 거택으로 친히 그 집구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많은 경우 가옥을 해체해서 주거와 함께 이동이 이루어진다.

西歸面에 있어서는 東烘리의 북쪽 坪大田이 겨우 3호를 보유하는 散居聚落이지만 평탄한 넓은 지역에는 집터와 밭터가 잔존한다. 그 원인은 풍수설의 過信으로 해안인 甫木里와 下孝리로 이동한 것이다. 西歸浦의 발전은 新政뒤인데 특히 두드러지게 호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수년간의 일이다. 남제주 제일의 용성을 보게 된 것도 주로 배후인 東烘 西烘의 山地 여러마을로부터의 이동의 결과이다. 또 中文面 中文리는 上文里로부터의 이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既述한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북쪽 廻水里 및 大浦里로부터의 이동에 의해 오늘을 이루게 되었다.

安德面 沙溪리는 그 북쪽 2km의 山房山 서쪽의 今勿리에 있던 취락이 현재의 임해적위치로 이동했음은 大靜郡誌를 보므로써 알 수 있고 현재도 돌담 못 기타 陶器破片 등이 남아있어 취락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大靜面에 있어서 해안지방으로의 취락이동이 현저한 예는 3郡時代의 大靜郡廳 소재지 大靜을 중심으로 주위로 옮겨가서 保城, 安城, 仁城의 城廓집단층으로 발전했으나 3郡 合併에 의해 郡政中心의 기능을 잃고 더욱 최근에는 면사무소도 남서쪽 4km의 幕瑟浦로 이전함에 따라 保城사람들은 주로 幕瑟浦와 日果里로, 仁城·安城사람들은 남동쪽 沙溪리와 남서쪽 4km의 上幕里 등지로 이동하였다.

## (2) 北濟州地區

翰林面의 면사무소는, 현재 覺浦里 남동쪽 1km 남짓에 취락을 형성, 面政의 중심취락을 이루었으나 新環狀道路 개통의 결과 大正8년(1919)에 도로북쪽으로 이전, 취락도 또한 용천의 풍부함과 교통의 편리함에 유인되어 신 면사무소를 따라 이동, 현재는 殘留民家 8호와 돌담 기타등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그 소유권은 아직 覺浦里民의 것으로 소속돼 있다. 또 면사무소원 赫顏씨 말에 의하면 覺浦里 남동쪽 涯月面境에 가까운 표고 2백80m의 중간지대에 있던 上木洞은 과거 30년동안 이동해서 북쪽 1km 지점에 月角伊를 만들어, 어떤이는 覺浦里로 내려가고, 또는 於道里로 옮겨가서 현재는 겨우 3호만이 남았다고 한다.

涯月面의 面政의 중심지 涯月은 남동쪽 약 2km 지점에 있었으나 2백여년전 홍작이 몇년에 걸쳐 마침내 현 위치로, 숲모세의 전거와 함께 따라와 점차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村老의 회고담이다.

朝天面의 威德里는 북동쪽에 崖山岳을 지녀 지독한 북서풍과 본도 독특한 貝殼粉末砂 및 해안지형등은 대규모 모래언덕(砂丘)을 발달시켜 그 내륙에의 이동은 심대하고 당국의 砂防竊心도 효과가 적어서 신환상도로를 비롯, 경지·민가를 배물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진로에 해당되는 威德里 취락의 남동쪽 민가 약 10여호는 서쪽으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舊左面 月汀里의 동쪽민가의 이동도 또한 같은 이유 때문이다.

## 濟州島에 있어서의 聚落移動의 地理的意義

이상은 본도에 있어서의 취락이동중에 조사할 수 있었던 결과이지만 求心的移動은 明治43년(1910)의 新政개시를 획으로 정지되고 遠心的移動은 大正4년(1915)의 해안일주 신환상도로의 완전개통을 기해서 두드러지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는 조선의 혼란형태로서 가장 민족적 특징을 발휘한 同族同門聚落중에 예속되는 下人農民이 지배계급인 지주 양반으로부터 이탈하는 독립적 自營心에 의한 이동이다.

동쪽의 마을은 一族一門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家名門閥을 중히 여기고 계급관념이 강렬하였으며 종교를 중심으로한 선조의 제사 동족의 친목 상

호부조 일치단결심봉이 강했다. 과거에 있어서는 판 門族과의 경쟁반목 지위단결력을 악용한 핏포가 발호하고 부근 상민에 대하여 비밀리에 私刑의制裁를 가하는 자도 있었다. 이들의 박해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이동, 경쟁에 의한 나오자의 온둔에 대하여 개발되지 않은 채 남겨졌던 삼립지대는 그들을 화전민으로 이동을 유발시켰다. 더 나아가 이동을 조성시킨 것은 민족성으로서의 취락입지에 대한 풍수설의 신빙이다. 또 원시적 粗放農業을 영위하고 자급자족적 경제를 이루고 있는 점이 풍수설과 합쳐서 전 취락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해안지역으로의 이동은 新政후 특히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火田경작의 임금, 과거 남벌화전으로 말미암은 水源의 고갈, 천수음료와 위생사상의 함상에 따른 해안 용천지대의 이동, 新政에 의해 자급자족 경제로부터 交易經濟時代로의 移行동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산물의 가격에 비하여 일상생활비가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작농 이하는 수지불균형의 경제로 빠져들고 생활상 여유없는 결손계급농이 격증함에 따라 轉業者의 급증을 보게 되었다. 貧農 영세민중 可動性階級の 轉業誘因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임해지역의 교풍의 편리와 상품업의 발달 노임의 고율봉이 유인이 되어 전조선 제일의 내지출가지역을 형성하게 하고 출가자의 생활정도함상은 귀환후 이농을 하고 중간지대로부터 해안지대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昭和14년1·2월/濟州島聚落의 地誌學的研究, 제1·2보)

## 参考文献

- 1) 濟州島畜産同業組合「家畜 家禽調, 昭和7年(1932年)8月
- 2) 樹田一二「濟州島」, 平凡社 百科事典 第10巻 昭和7年(1932年)9月 p. 300.
- 3) 福井英一郎「日本の氣候區」, 地理學評論 昭和8年(1933年)3月 p. 31.
- 4) 尾崎島四郎「房州の地誌」, 昭和4年(1929年)7月 p. 18.
- 5) 濟州島廳「牧畜の沿革と現況」, 昭和8年(1933年)5月 p. 1~2.
- 6) 樹田一二「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下) 昭和9年(1934年)3月 p. 144.
- 7) 中村新太郎「濟州火山島雜記」, 地球 第4巻 大正14年(1925年)10月 p. 326.
- 8) 河野正直「但馬に於ける牧牛の地理學的研究」, 地學雜誌 昭和9年(1934年)4月 p. 157.
- 9) 樹田一二「中國の人文地理(畜産と林業)」, 日本地理大系 昭和6年(1931年)5月 p. 195.
- 10) 濟州島廳「濟州島の畜産」, 昭和4年(1929年)12月 p. 12.
- 11)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昭和4年(1929年)12月 p. 26.
- 12) 樹田一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 地理學評論 昭和8年(1933年)6月 p. 517.
- 13) 森壽美術「大村扇狀地の礎」, 地理學評論, 昭和7年(1932年)6月
- 14) 眞野恒雄「放牧牛馬の耳印」, 島 昭和8年(1933年)9月 p. 453.
- 15) 田中啓爾「朝鮮の人文地誌學的研究」, 地理學論文集 昭和8年(1933年)9月 p. 685.
- 16) 樹田一二 (6) 斗同一 p. 154~158.
- 17) 内田寛一「氣候と農業地域の垂直的限界」, 經濟地域に關する問題の研究 昭和9年(1934年)3月 p. 289.
- 18) 徳田義信「養蜂に就て」,
- 19) 千葉縣社會課「全國潜水業者調」, 昭和6年(1931年)6月 p. 8~10

- 20) 陸地測量部「圖幅20万分ノ1, 濟州島北部・同南部,
- 21) 同 圖幅「5万分ノ1 金寧・濟州・城山浦・漢拿山・翰林・表善・飛揚島・西歸浦・大靜及び馬羅島・華瑟浦,
- 22) 中村新太郎「濟州火山島雜記」地球 第4卷 大正14年(1925年)10月 p. 325
- 23) 原口九万「濟州島火山」, 小川博士 還曆記念地學論叢 昭和5年(1930年)10月 p. 3.
- 24) 辻村太郎「地理學」, 大正12年(1923年)1月 p. 551~552.
- 25) 岩田一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 地理學評論 昭和8年(1933年)6月 p. 64.
- 26) 田口眞憲「濟州海女」, 朝鮮 昭和8年(1933年)7月 p. 68.
- 27) 濟州島海女漁業組合「各面里別 組員統計」, 昭和6年(1931年)及び昭和7年(1932年)8月 現在
- 28) 朝鮮總督府農商工部「韓國水産誌」, 第3輯 明治43年(1910年)10月 p. 425.
- 29) 朝鮮總督府「濟州島漁業免許指令書」, p. 1~155.
- 30) 同「海女漁業組員 各府縣別出稼調統計」, 昭和5・6・7年(1930年~1932年)
- 31) 同「各府縣内出稼地 各村別及び面里別統計表」,
- 32) 水産試驗場「海洋調査要報 第51報」, 昭和8年(1933年)5月 p. 12. p. 45.
- 33) 朝鮮總督府殖産局水産課「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 昭和6年(1931年)7月 p. 457.
- 34) 朝鮮水産會「朝鮮漁業組合規定集」,
- 35) 朝鮮總督府「朝鮮の人口現象」, 昭和2年(1927年)12月 p. 460.
- 36) 岩田一二「濟州島の人口移動に關する地理學的研究」, 地理學評論 第11卷1號 昭和10年(1935年)1月 p. 65~86.
- 37) 岩田一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 地理學評論 第9卷第6號. 昭和8年(1933年)6月 p. 66.
- 38) 岩田一二「濟州島海女之地誌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下) 昭和9年 p. 148~150. p. 154~156.
- 39) 岩田一二「濟州島の地域性素描」, 地理學 第2卷第13號 昭和9年(1934年)12月 p. 270~272.

- 40) 田中啓爾「日本に於ける海岸平野の人文地誌學的研究概報」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1輯 昭和8年(1933年) p. 600~604.
- 41) 山本熊太郎「我國の主要季節的移動分布」地理學 第1卷 昭和8年(1933年) 11月 p. 114.
- 42) 農商務省農務局「副業的季節出稼に就て」大正11年(1922年) p. 15.
- 43) 樹田一二「濟州島の地域性素描」地理學 第2卷第13號 昭和9年(1934年) 12月 p. 265~266.
- 44) 金斗奉「耽羅誌」p. 6.
- 45) 佐佐木彦一郎「鹿角盆地の經濟地理機構」地理學評論 第2卷 大正15年(1926年) p. 623~658.
- 46) 武見芳二「樺太入移民の經濟地理學的考察」地理學評論 第4卷 昭和3年(1928年) p. 881.
- 47) 武見芳二「沖繩島出移民の經濟地理學的考察」地理學評論 第4卷 昭和3年(1928年) p. 42.
- 48) 武見芳二「人口の移動」地理學講話 昭和6年(1931年) p. 29.
- 49) 濟州島「農家經濟調査」昭和3年(1928年) p. 1~52.
- 50) 朝鮮史學會「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島建國沿革
- 51)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島 昭和4年(1929年) p. 22~23.
- 52) 濟州島廳「濟州島管内狀況」昭和8年(1933年)
- 53) 樹田一二「濟州島」平凡社百科事典 第10卷 昭和7年(1932年) p. 300.
- 54) 同「濟州島の地理的特性に就て」地理學評論 昭和8年(1933年) 6月.
- 55) 同「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下) 昭和9年(1934年)
- 56) 同「濟州島に於ける畜産の地理學的研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3輯 昭和9年(1934年)
- 57) 同「濟州島の地域性素描」地理學 昭和12年(1937年)
- 58) 同「濟州島の人口移動に關する地理學的研究」地理學評論 第11卷第1號 昭和10年(1935年) 1月
- 59) 同「濟州島人の内地出稼に就て」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5輯 昭和10年(1935年) 12月

- 60) 同「濟州島南北斜面の地理的對比」地理學評論 第13卷第6號 昭和12年(1937年)6月
- 61) 同「台灣の聚落竹圍仔に就て」全國地理歷史協議會台灣南支旅行報告 昭和7年(1932年) p. 294~298.
- 62) 陸地測量部 圖幅「5万分ノ1 金寧・濟州・城山浦・漢拿山・翰林・西歸浦・琴瑟浦・飛揚島・表善・大靜・馬羅島」
- 63) 寺田貞次「震岐の人口稠密なる原因の一部に就て」小川博士還曆記念史學地理學論叢 p. 93~94.
- 64) 濟州島 各邑・面事務所 戶籍簿 昭和11年(1936年) 8月 現在
- 65) 善生永助「朝鮮の同族部落」地理教育 昭和10年(1935年) 1月
- 66) (64)로부터 算出
- 67) 朝鮮史學會「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濟州島建國沿革
- 68) 樹田一二「濟州島聚落の地誌學的研究(第1報)」地理 第2卷第1號 昭和14年(1939年)1月 p. 36.
- 69) 樹田一二「濟州島人の内地出稼に就て」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5輯 昭和10年(1935年)12月

# 잊을 수 없는 濟州島

## 濟州島 調査의 動機

地圖에서 보는 濟州島에의 憧憬

그로부터 그러저러 四半世紀나 지났다. 나는 그즈음 東京文理科大學地理學教室의 助手를 하고 있었는데, 東京大學으로부터 츠지무라(辻村太郎) 선생이 地形學 講義를 위해 오시고 계셨다. 어느날 강의가 끝난 후에 5만분의 1 濟州島 地圖(金寧·城山浦·表善·濟州·漢拿山·西歸浦·翰林·大靜·飛揚島·奉恩浦의 10매)를 내보이면서 地形的인 특색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셨다. 얼른 보아서 그 景觀의 굉장함과 선생님의 설명에 매혹되고 말았다.

辻村先生은 모두가 아는 바와같이 日本地形學의 始祖로 地形學의 강의에는 항상 선생 특유의 멋진 「블릭 다이어그램」의 묘사에 의해 지형의 새로운 視角, 思考方式에 대해서 강의하시는지라 흥미가 진진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視角, 그 思考方式이 잇따라 우리들의 腦裡에서 발전해 나가는,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 선생님이 손에 넣었다고 하시면서 濟州島 地圖를 일부러 갖고 오셔서, 그 地圖를 통해서 흥미진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그 感興은 실로 깊은 것이었다.

나는 즉시 미야케자카(三宅坂)의 參謀本部 옆에 있던 地圖판매점인 小林川流堂에서 地圖를 사서 이것을 맞붙여 等高線에 따라서 레아식으로 색칠하고 착색해, 한눈에 지형이 鮮明해지도록 공리를 썼다. 더우기 또 세트로 구입을 해서, 기호에 따라서 색칠을 하고, 土地利用圖를 작성했다. 이 두가지 地圖를 좁은 서재에 걸어 놓고 자세히 비교했다. 地形圖에는 그 中央에 우뚝 솟은 朝鮮 제2의 高峰, 아스피태형의 漢拿火山(1950m)의 아름다운

들관, 특히 동서로 길게 펼쳐진 緩傾斜의 들관, 거기에는 3백여를 헤아리는 중대거리 같은 鐘狀火山群이 돌기해 있어 옷자락처럼 아름답게 분포한다. 造化의 神技의 아름다움에 감명받았다. 한편 土地利用圖에서 보는 環狀의 土地利用型, 이 環境 속에서 빛어지는 섬사람의 생활, 聚落의 分布에 따른 흥미와 매력은 讀圖에 의해서도 섬에 대한 무한한 憧憬을 품게되고 訪島의 꿈은 커가기만 했다.

### 訪島의 꿈 實現

昭和5년(1930) 8월, 朝鮮總督府의 委囑에 의해서 약 1개월간, 온사인 다나카(田中啓爾) 선생을 모셔서, 朝鮮半島의 거의 全域, 그 중에도 農村·山村·漁村地域을 주제로 한 관찰의 기회를 얻었다. 現地觀察에 있어서는 특히 慧眼의 田中先生을 좇는 實地踏査이며 게다가 朝鮮語에 능숙하고 박식한 總督府의 가토(加藤澤寛)씨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얻는 바가 엄청 많았다. 加藤씨는 또 濟州島 사정에도 밝았기 때문에 긴 여행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로부터 섬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訪島熱을 더욱 더 부풀게 하였다.

이 여행은 京城(서울)을 맨끝으로 일단 끝났기 때문에 好機를 놓칠새라 홀로 濟州島에 갈 것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總督府로 부터는 섬의 島司에게 전보를 쳐주었다. 나는 京城에서 곧장 木浦에 내려가, 木浦港에서 밤배로 다음날 새벽, 섬의 중심인 濟州郡의 山地港 港外에 碇泊했다. 어수스레 한 해안에는 提燈을 들고 오가는 出遊客의 人波가 보인다. 그 뒤에는 남쪽 아득히 漢拏山의 조용한 자태가 밝아오는 하늘에 어렴풋이 떠 있다. 島廳 사람의 마중을 받으며 거룻배로 가카스로 上陸. 오랫동안 그리던 땅, 濟州島에 첫발을 디뎠고, 그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항구 근처에 있는 M여관에서 해뜨기를 기다려 아침식사를 끝내고, 島廳에 다구치(田口)島司를 찾으니 미우라(三浦)內務主任을 비롯 각 課長·主任·技師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모두 日本人으로, 그 밑에 朝鮮人 吏員을 거느리는 조직이다. 濟州島는 1邑11面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行政·警察 兩

權을 쥐고있는 島司가 섬을 관할하고 있다. 面(村)長 및 邑(町) 面事務所員의 대부분은 조선인이다. 島司가 섬의 행정·경찰의 양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實態調査上 지극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도청에는 島勢要覽, 人口, 土地臺帳, 農業, 林業, 水産業, 鑛工業 등 섬 全城에 대한 통계자료, 明治43년(1910년)에 日本에 歸屬된 이래의 매년 통계자료등도 갖춰져 있었다. 인쇄되어 있는 것은 즉시 제공해 주었고, 邑·面事務所에 있어서의 里別, 洞別 末端統計資料도 보관되어 있어, 자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究明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만일 현지조사를 하게 된다면 原住民들과의 접촉도 상당히 있기 마련인데 兩班이나 有志, 元老를 대할 경우, 또는 가정을 방문할 때, 風俗 慣習의 차이에서 오는 에티켓, 혹은 勞力에 대한 謝禮의 방법등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의논했다.

이런 일들은 일본안의 現地調査에서도 상대방의 感情을 상하게 한다거나 缺禮를 하므로써 그 眞相이나 實態를 파악하지 못하며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며 고생하는 수가 있다. 하물며 外地에 있어서의 細密調査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컸었기 때문이다.

그 때는 약 1주일 정도의 滯在었는데 때마침 그 봄에 全長 2백50km의 海岸環狀道路가 개통하여, 南岸의 西歸浦로 서회선, 동회선의 두 定期버스가 오전·오후에 각각 2회씩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섬의 南東部 이외의 해안지대의 약 4분의3을 대충 살피고 南端의 西歸浦로부터 中央에 솟아있는 漢拿山의 頂上을 확인한 다음 북쪽의 濟州城內로 내려오는, 南北 橫斷코스를 踏破하여 섬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뒷해에도 訪島를 기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昭和7년(1932) 여름, 滿洲國 출장의 도중에, 訪島해서 전번의 나머지인 海岸地帶와 中間地帶의 일부를 잠깐 볼 수가 있었다.

## 研究對象地域으로서 發願

앞서 두차례의 見聞調査에 의해, 섬이 갖는 중요한 성격은, 自然景觀이

나 사회경관으로부터 받은 강한 印象과 魅力에 의해, 연구대상으로서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섬의 地域性的의 종합적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發願했다.

그렇지만 研究필드로서는 너무도 멀었다. 현지조사를 위해 간다면 장기간 滞在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의 휴가를 이용해야 하므로 조사의 계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않을까. 거리적·시간적·계절적으로, 더우기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누가 이 섬의 조사에 착수할 것인가? 濟州島야말로 나에게 하늘이 안겨준 研究分野는 아닐런지. 어떠한 곤란을 만나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섬의 全貌를 究明하고 싶다고 결심한 것이다.

## 本格的 調査에 들어가다

昭和8年(1933)부터 5년간, 年間 40일씩, 2백일간의 예정으로 착수를 했다. 昭和8년 여름에는 木浦를 경유해서 訪島, 歸途는 불과 10의 여선에 편승해서 麗水에 건너가, 釜山으로부터 시모노세키(下關) 경유의 코스로 왕복 일수를 포함해서 40일을 소비했다. 다음해 9년(1934)에는, 도민이 大阪에 해마다 수만명씩 出稼하기 때문에 大阪과 濟州島와의 사이에 특별히 直通航路가 있어, 出稼자들이 월급을 갖고 歸島한다고 하는 8월1일의 便船으로 訪島하기로 했다.

배는 아미가사키(尼가崎) 汽船의 第二君代丸(919)으로 大阪築港棧橋로부터 출항한다. 船客은 5백65명, 그 가운데 일본인은, 그해 봄, 고마자와(駒澤)대학을 졸업하고 歸島한다고 하는 가바시마(樺島)學士와 나의 2명, 그외에 사복의 이동경찰관 3명이 승선해 있었다. 섬의 第1寄港地까지는 3晝夜, 섬의 주위에는 15곳의 寄港地가 있어, 손님들을 乘降시키며 섬을 일주한 후에 大阪에 돌아가는 코스이다.

내가 이런 巡航船을 선택한 것도 배상이 食費포함해서 上等席 12円(下等席은 6円)이라는 값싼 요금때문만은 아니었다. 濟州島 출신의 出稼者를 손

님으로 삼는 이 때에서 항해중에 船客을 통해서 섬에 대한 聽取調査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地理的인 조사는 大阪繁港棧橋의 광경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3晝夜의 항해로 現地에서의 1개월분 조사와도 맞먹는 농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拙稿의 『濟州島人の 内地出稼에 대해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昭和10年(1935)에는 겨울휴가를 이용해서, 木浦경유로 年末年始에 걸쳐, 3주간 조사를 했다. 여름의 조사에서 미처 着眼못했던 한라산에 있어서의 南北斜面の 積雪의 高度差나 농작물의 景觀의 差異, 年中放牧에 있어서의 牛馬의 자연이동, 겨울의 생활, 연말연시의 행사등, 겨울에 보는 現實이 예전의 상상이나 推定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어 겨울의 現地調査의 수확은 매우 큰 것이 된다.

『濟州島の 三多』라는 말이 있는데, 三多란 바람과 돌과 여자로, 濟州島の 名物이 되어, 地域性을 잘 象徵하고 있지만, 北風이 강한 겨울철은 열집에 가는 동안에도 날라갈 것 같은 強風에 놀라며, 명절용 장식품이나 식료품을 실은 배에 강풍 때문에 거룻배가 접근하지 못해, 명절用品이 배를 놓치는 일 등은 겨울의 現地調査에서 얻은 體驗이었다.

그후 3년간은 봄의 調査를, 그리고 가을의 訪島를 생각했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름휴가를 섬의 調査로 보내게 됐다. 그 사이에 중간보고로써 다음의 拙論을 발표했다.

1. 『濟州島の 地理的特性에 대해서』, 地理學評論 昭和8년6월.
2. 『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 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 昭和9년3월
3. 『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學的 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3輯 昭和9년6월.
4. 『濟州島の 地域性 素描』, 地理學(古今書院 現發行 「地理」의 前身) 昭和9년12월
5. 『濟州島の 人口移動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地理學評論 昭和10년 1월

6. 「濟州島民의 内地出稼에 대해서」,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5輯 昭和10년12월
7. 「濟州島 聚落構成要素로부터 관찰한 地理學上的의 二, 三의 問題」, 地理學評論 昭和11년6월.
8. 「濟州島 南北斜面의 地理的對比」, 地理學評論 昭和12년6월
9. 「濟州島 聚落의 地理學的 研究 第1·2報」, 「地理」(大塚地理學會에서 發行한 雜誌, 戰爭의 激化로 인해 地理學評論과 合併) 昭和14년 1·2월

#### 調査中の 不愉快했던 일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濟州島에는 처음 온 때부터 島司를 비롯하여 島廳 사람들, 邑·面事務所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組合이든 事務所이든, 有志인 個人이든 家庭을 방문해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訪島가 세 번, 네 번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섬의 官民은 더욱 더 협조적이 되었고, 가장 큰 걱정이었던, 原住民과의 杞憂도 사라져 그들도 진심으로 隔意없이 協力을 해 주어, 나는 島民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언제나 유쾌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떨어진 섬에 멀리 東京으로부터 대해 방문하는 나에게 親愛感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또, 이런 協力的인 態度가, 나를 먼 이 섬까지 끌어당긴 引力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昭和12년(1937)의 8월, 언제나와 같은 기분으로 訪島했다.

먼저 島廳을 찾았다. 島司는 京城에 출장가서 부재중이었다. 內務主任과 課長들과 潛在 일수, 작업동에 대해 미리 의논도 하고, 새로운 통계자료의 요구에도, 언제나처럼 흔쾌히 수락하는 중 친절히 협력해 주었다. 그것은 調査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쁜일이었다. 이제부터 調査나가겠다고 하자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격려해 주었다.

처음에 S面事務所를 방문했다. 面長은 出勤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모여 앉아서 서로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나의 모습을 보자 각기 제자리로 돌아갔다. 土地台帳을 열람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 이전

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자료라도 내어주곤 했었다.

사무소내의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에 오래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고 판단, 다음날을 기약하면서 작별하고 다음의 K面事務所를 찾아가다.

구면인 面長은 기분 좋게 맞아주고 土地台帳도 내주었지만, 직원의 태도가 웬지 모르게 그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담당자도 質疑에 대해 어떤지 단지 외무적으로 대할 뿐이었다. 어쩐지 이상스러운 일이다. 예전에는 組合長인 R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紹介狀을 써준다거나, 상당히 먼거리라도 직원이 안내해 주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러오겠다고 직원이 달려가 주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은 지극히 비협조적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어째서 이렇게 냉담해졌는지 나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原住民에 대한 에티켓에는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고 자부한다. 냉담한 취급을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한심스럽고 不愉快한 일이었다.

이유는 U面의 국민학교장 I씨를 만나서부터 분명해졌다. I씨는 카가와(香川)縣 출신으로 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람. 그가 말하기를 지난 7월 中日戰爭이 발발한 이래 그렇게 변한듯 하다. 우리 교장과 교원까지도 학부형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낀다. 그들은 日本이 國際聯盟을 脫退했다. 이번은 일본이 무언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알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滿洲事變 발발때도 그랬었지만 事變이 마무리 지어지자 事變前 이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방침을 바꿔 對人關係가 적은, 물의 조사에 主眼點을 두기로 했다. 진작부터 물도 조사했었고, 砂漠과도 같이 물이 모자란 이 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물의 全貌를 파악하는 일이, 앞으로 조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島内 1邑11面에 대해서 오로지 自然湧水点, 天水溜(註=奉天水), 天水堰 크, 우물을 簡易水道施設의 所在 등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하여 面別로 해당 지대로부터 中間·山間地帶로 조사영역을 넓혀서, 이것을 5만분의 1地圖에 담을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島廳에 들러 물의 鳥瞰圖를 내보이면서 忠告를 구했는데 7백여개를 헤아리는 '물'이 있다는 데에는 놀랐다.

이번 조사에 즈음하여 非協力的이고, 不愉快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눈치도 알고 있었지만, 선생은 관함을 것이라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 출발할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던 것은 그런 때문이었다고 한바탕 웃었지만 이런 태도에는 警戒를 요하는 것임을 강하게 느꼈다.

물의 調査에 있어서는 警察官의 도움에 의한 것이 많았다. 聚落안과 그 부근의 물의 조사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었지만, 中間·山間 등의 無住地帶의 踏査를 위한 혼자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가는 곳 마다에서 駐在所에서 자고 非番의 경찰관에게 同行을 부탁하는 가 하면 放射谷의 '와디', (Wadi 註= 雨期에만 물이 흐르고 우기이외에는 물이 없이 마르는 골짜기) 속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넓은 들판에서는 방목중인 牛馬 떼를 목표로 물을 찾아내어 지도에 표시하며 카메라에 담아 물을 확인하는 일등은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었다. 빗대인 1938년 여름에는 전례와는 사뭇 달리 한층 험악적인 데는 놀라고 기뻐했다. 그것은 大陸作戰의 결과가 눈부실만큼 好轉되고 있었기 때문일까.

### 고마웠던 일들

昭和12년(1937)의 조사에는 가는 곳마다 警察官駐在所를 宿所로 제공받았다. 덕분에 대단한 농름을 올린 일은 이미 말한대로이다. 濟州島의 조사에서 언제나 불편을 느낀 것은 여관이였다. 島內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은 4개 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50~60km씩 떨어져 있다. 그것 이외에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여관밖에 없었다. 물론 처음에 島司가 여관이 불편하면 駐在所를 이용하도록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숙소가 아니면 原住民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駐在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이용을 주지했던 이유였다.

昭和9년(1934)의 여름은 表善里라는 아담한 부락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黃海에 저녁달이 질무렵, 피로한 몸으로 朝鮮旅館의 입구에 섰

다. 입구의 正面이 4疊半(註=2疊가 1疊) 정도의 방, 그 양쪽에도 같은 크기의 방이 있다. 소리를 내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다. 복색을 내려서 기다리면서 봤더니 오른쪽 방에서 남자 5명이 둘러앉아 노름에 열중하고 있었다. 정면의 방은 바닥에 있는 감돌을 들인 종이 같은 것(註=장판지)을 붙인 방인데, 바닥은 드문드문 무늬를 이루고 있고 파리가 떼지어 있었다. 그 방 건너편이 들인데, 물웅덩이 속을 돼지가 굴굴거리며 흠탕질을 하고 있다. 이윽고 中年의 아낙이 나왔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묻자,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환경으로 상상컨대 食事, 夜具, 그리고……, 도저히 편히 잘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저녁식사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릴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좀 散步 다녀오겠다」고 아무생각 없이 말이 나와 잠박으로 나왔다.

그래서 인적이 없는 마을 안을 20분정도 헤매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길모퉁이에 駐在所가 있는지라 나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 駐在所에 들어섰다. 지금까지의 상황설명을 했더니, 宿所를 사절해서 올테니 여기서 머물라고 친절히 말해준다. 게다가 警察官 自身이 가서 복색도 찾아오겠다고 한다. 내가 가야하는게 도리지만 모처럼 부탁했던 처지라 취소하기 어려웠다. 경찰관이 다녀오겠다는 것은 고맙지만,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이 나갔다. 역시 내가 가야 하는데……. 노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얼마 안있어 복색을 자전거 뒤에 실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경찰관의 얼굴을 보는 순간의 안심과 기쁨,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心境을 말하는 것인가. 그저 고맙기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은 물이 부족한데도 물을 데워주어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저녁은 쇠고기뭇조림과 마늘양파볶음, 미역된장국 등등 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섬의 이야기당 東京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모기향도 짧아져 잠을 자기로 했다. 새모기장, 깨끗한 寢具 위에 들어누어서 감사의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은 쾌적한 아침이었다. 경찰관부인의 厚意에 깊이 감사하고, 朝鮮人 여관에 둘러서 寸志를 두고 나왔다. 도청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자 섬의 駐在所에는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고, 자기들도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나의 경우, 스기모토(杉本) 巡查부인의 厚意는 몸이 사무처 영원히 잊을 수 없다.

### 奇緣

그 다음해인 昭和10년(1935) 여름 조사때의 일이다. 西歸浦行 버스를 놓친 나를 島廳의 포장자동차(島內唯一의 車)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厚意를 받아들여, 東回線코스로 부탁했다. 그렇게 한 것은 작년에 신세를 진 杉本 순사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나의 처가 만들어준 예기옷과 장난감을 건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駐在所에 들른 것이 3시 넘어, 주인은 木浦에 출장으로 부재중이라고 한다. 부인의 안색이 심상치 않아 들었더니 얘기가 열이 높고 설사에 잠만 계속 잔다고 한다.

내게는 昭和7년(1932)에 큰딸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다. 얘기의 증상은 疫痢같은 예감이 든다. 이곳은 無醫村으로 의사는 80km 정도의 濟州邑과 30km 남짓의 西歸浦에 밖에 없다. 그리고 西歸浦에는 道立病院이 있다. 寸刻을 다투어 부인과 작은 생명을 차에 태워 道立病院으로 달렸다. 病院에서는 擬似疫痢로 危機 직전이라는 진단이 내려 입원했다. 電報 받은 주인이 다음날 도착했다. 위기를 넘겼다고 醫師가 얘기했다. 부부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울면서 기뻐했다. 그로부터 4일째, 내 큰딸을 잃었던 괴로운 경험이 어린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할 수 있다. 죽은 큰딸의 명복을 다시금 빌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훌륭한 처녀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인이 되어 어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 잊을 수 없는 실패

資料도 일단 수집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現地調査도 대강 끝나서 그 때마다 찍은 사진도 대략 4백매를 헤아린다. 여기서 濟州島의 綜合的研究을 정리하고, 장기간 지도를 해주신 恩師 다나카(田中)·조지우라(辻村) 선생을 비롯하여 모든 분의 叱正을 받고자 意圖해서 그 일에 착수했다.

그때부터 나날이 전쟁은 확대되어, 太平洋戰爭이 世界大戰이 되어, 日本의 攻勢는 얼마 없어 守勢로 바뀌고 美軍의 反攻作戰은 결국 日本 본토에 上陸作戰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상륙 예상지는 규우주규우리하마(九十九里浜), 아니면 도사(土佐)灘頭. 그렇지 않으면 濟州島등으로 추정되어져, 參謀本部에서는 가와이(川合)大尉가 主任이 되어 濟州島의 자료를 구하고 있었다. 田中선생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공하는 게 어떠한지 추천을 받았다. 나는 조사자료가 쓸모가 있게 된다는 데에 감격하고, 고리짝에 가득찬 資料·寫眞까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운반케 했다. 그 즈음 文理科大學地理學教室에는 2~3학년의 학생은 水路部나 參謀本部에 學徒動員으로서 출동하고, 나는 1학년생을 데려, 圖書·地圖·機械器具類 등을 함께 지치부(秩父)의 집에 疎開하고 있었다. 5월25일의 空襲에서는 東京의 집도 圖書·家財도 하나 남김없이 재가 되고 말았다. 자료가 參謀本部에 제출하므로써 難을 면한 것은 神의 도움이었다고 기뻐했다. 8월15일 드디어 天皇은 終戰을 선언했다. 당시 나는 秩父에 있었는데, 1주일간 上京은 禁足되어 있었다. 제출된 자료는 대부분 불에 타 버려졌다. 학생이 調査室에 급히 알려가준 때는 오래된 統計 2권이 뒹굴고 있었다고 했다. 10년간의 苦心의 자료는 마치 가미가제(神風) 特攻隊같이 玉碎해 버린, 잊을 수 없는 黑星(실패)였다.

昭和30년(1955)의 가을이었다. 辻村太郎선생으로부터 濟州島의 寫眞만이라도 出版해 보면 어떠한지 고마운 말씀이 계셨다. 섬의 寫眞은 그때마다 보여드렸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도 뭉땅 없어져 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濟州島의 자료수집과 현지답사에 열심이었던 때가 가장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다. 처음에 着色한 제주도의 地形圖와 土地利用圖의 두가지를 치치부에 搬出하고 있었기 때문에 戰禍를 모면하고 있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추억은 끊이질 않는다.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濟州島」이다.

빨리 국제정세가 好轉되어 訪島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다시 한번 섬에 건너가, 새로운 각도에서 濟州島를 재삼 보고싶다고 바라고 있다.

(昭和34년(1959) 11월 「地理」 第4卷 第11號/調査의 追憶)